

전략연구 2016-39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박철희 · 조봉운 외

발 간 사

문화와 예술은 본연의 기능을 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한 문화예술 기반이 필요한데 그것은 문화예술을 지역사회 발전과 연결 시키기는 문화예술인 간의 협력과 지역사회의 연계활동을 하는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입니다. 문화예술인 클러스터가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예술가와 주민들의 교류가 활발합니다. 예술가들에게는 창작 활동과 사회공동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주민들에게는 예술 활동 참여를 통해 자존감을 형성하고 지역에 자긍심을 고양하며,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활성화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 목적이 아닐지라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술인촌, 예술인마을, 스튜디오, (구)발전소 또는 공장을 활용한 재생사업, 시장 활성화 사업 등 입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현재 충남도 및 시·군의 경우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에 대한 실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해도 지역 활성화와는 잘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특성과 문화예술인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지역을 찾아서 활동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가 충남도 및 시군의 문화정책에 수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연구 수행에 애써 주신 박철희 박사, 조봉운 연구위원, 신선하 연구원 그리고 바쁜 와중에 자문에 참여해주신 정경석 박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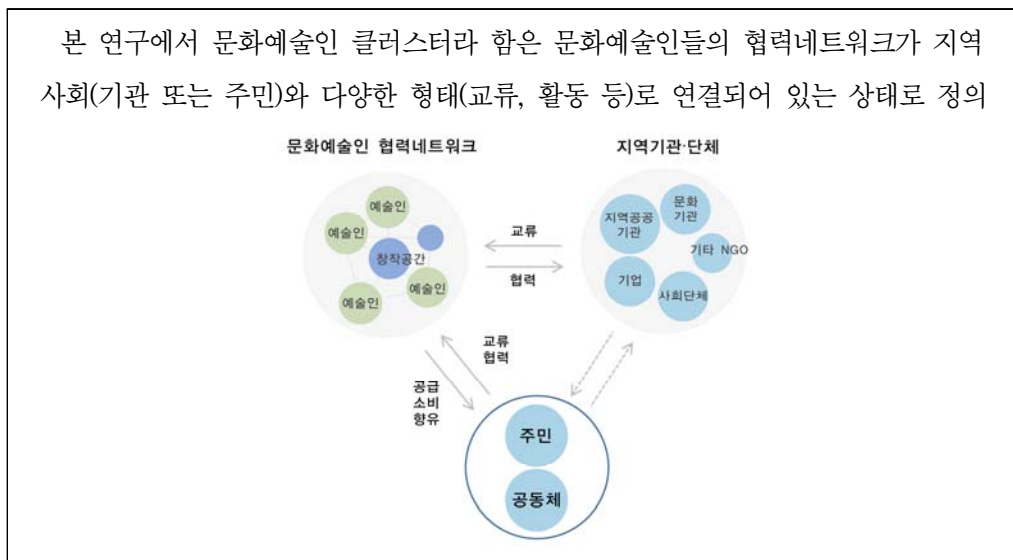
2016년 12월 31일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산업패러다임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문화예술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문화향유, 지역재생/활성화, 사회문제 해결 등)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의 형성이 중요하지만, 충남의 경우 현황과 실태에 대한 진단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사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개념 및 개념도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와 관련된 정책으로서 중앙정부에 정책은 명확하지 않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문전성시 프로젝트)’,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지구 조성사업’, 창고 및 공장 등 지역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사업 및 창작스튜디오 조성 사업’ 등이 있었고, 충청남도 및 시군에서도 중앙정부와 연계된 사업만이 추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책방향의 시사점 도출을 위한 사례조사로서 국내는 광주 대인예술시장, 부산 또따또가, 국외는 영국 이스트엔드(East End)와 Acme 스튜디오, 일본 요코하마(横浜) 문화예술창조도시

를 대상으로 하여,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 첫 째는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곳일지라도 정책 지원은 중요하며, 둘째는 예술가들의 협력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셋째 예술가들의 협력네트워크가 지역사회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실태조사는 충남 문화예술인과 클러스터로 두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먼저 충남 문화예술인 실태는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에 구성인자로서 클러스터 형성 정책에 기반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조사하였고, ‘2015 예술인 실태조사’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충남 문화예술인 조사 내용을 별도로 추출하여 분석한 후에 문화예술인 관련 단체, 정책사업 추진현황 등을 바탕으로 15개 시·군 문화예술담당자, 문화단체, 충남문화재단 및 시·군 문화재단 예술담당자에게 전화인터뷰를 통해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클러스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클러스터의 성격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최종 5개의 문화예술인 클러스터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충남 문화예술인의 거주분포 및 활동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 충남 예술인들의 거주분포는 전체의 3/4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여 지리공간적 측면에서 협력네트워크와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활동여건과 상태는 전국과 비교하여 넓은 창작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예술 활동을 통한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겸업비율이 높았다.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실태는 ①홍주문화연구회, ②야투, ③전통예술단 혼, ④계룡산도예촌, ⑤보부상 난전놀이를 대상으로 ①예술인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 ②예술인과 지역문화기관(또는 단체)간의 교류 네트워크, ③예술가와 주민과의 네트워크 관계를 지역장소 간의 네트워크 관계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클러스터들이 동일지역 내 기관 및 단체별로 유사한 예술 활동 내지 친분적 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질적인 단체 및 지역과의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융복합적 창작활동에 기반한 새로운 예술영역의 개척과 실험적 활동은 어려운 네트워크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집단별로 네트워크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매개시켜 줄만한 지역예술인, 기관 및 단체, 활동장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지역예술인, 단체, 장소 등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지역장소보다는 기관 및 단체 중심으로, 기관 및 단체보다는 협업예술인 중심의 네트워크 결속력이 강하게 나타나, 지역의 문화예술 네트워크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협업예술인에 대한 인적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역할들에 대한 탐색연구를 통해, 충남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육성 관리 및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한편, 예술인과 주민들과의 교류 네트워크로써, 장소중심 내지 장소를 매개로 한 예술가들의 네트워크는 협력예술인이나 기관 및 단체를 중심으로 한 협업 네트워크 구조에 비해 네트워크 결집력이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및 단체를 매개로 한 활동보다는 장소를 매개로 한 활동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충남 문화예술인 네트워크 관계도는 기관과 단체 또는 활동장소를 매개로 한 협력문화 확산보다는 개인의 사적 네트워크망(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예술인)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예술인들의 클러스터화 내지 협업문화에 대한 확산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공적 네트워크망의 강화 노력이 필요한데, 예술기관 및 단체의 연대화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협력 기관 및 단체를 매개로 하여 예술가들 간의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를 도모해 나가는 전략 마련이 요구되었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협력기관 및 단체, 지역장소는 각 지역예술인들이 서로 공유하여 활용하는 빈도가 높은 대상이라는 점에서 지역예술인과의 교류 기회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충남도와 사군의 정책기본방향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정책 기본방향은 ① 공공 측면에서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을 추진해야 하며 ②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는 유도적 접근 ③ 내생성, 착근성,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생태적 접근이 요구되었다.

정책과제로서 문화예술인 간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는 첫째 충남 문화예술인 협력 네트워크 매개자 양성 및 예술인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 충남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문화예술인 협력네트워크와 클러스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네트워크 속에 활동하고 있는 매개자를 발굴하여 전략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인 매개자로서 잠재적 역량을 가지고 있거나 의사가 있는 신진(청년) 예술인 등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문화예술인 네트워크화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이 필요하다. 충남도, 문화재단, 시·군에서는 지역 문화유산, 전통을 배경으로 같은 장르별, 다른 장르별, 세대별, 성별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새로운 예술작품을 구상하고 창작하

여 시연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 네트워크를 촉진할 뿐 아니라 지역문화진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협력 아티스트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매개·집적공간에 대한 공급이 필요하다. 예술인 간의 물리적 근접성과 접근성의 확보는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예술인 교류와 협력을 매개하고 촉진할 수 있는 공동체 교류 시설은 클러스터 활성화에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다.

문화예술인과 기관단체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 주체 간에 상호 존중, 동반자적 관계, 파트너십의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많은 예술인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관계로 인해 기관단체의 관계에 있어서는 약자일 경우가 많고, 기관단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술인들 간에 역량에 편차가 있어 신뢰와 수평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수평적 신뢰 구축 프로그램(문화예술인·기관 간 공감 프로그램)을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매개로 한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세부시책으로는 충남 커뮤니티형 레지던시 사업, 전통유산과 연계된 예술인들 간 협력형 사업 발굴 및 추진, 생활공간 개선에 예술인의 참여와 역할 증대 방안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인과 주민공동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해 알고, 문화예술인 또한 주민들의 생활공간 속에서 예술의 역할과 기능이 구현될 때 촉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충남 문화예술인의 날 / 충남문화 만남의 날 제도 도입,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 도입 활성화를 통한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기대효과	4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5
3. 연구의 흐름과 보고서 구성	7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5. 용어의 정의	11
제2장 관련이론 · 정책추진 및 사례	13
1.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개념 및 의의	13
1)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의 개념	13
2)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의 역할과 기능	14
3) 시사점	18
2. 국내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 관련 정책	20
1) 중앙정부의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관련 정책	20
2)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관련 정책	27
3.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관련 현황 및 실태	36
1) 문화예술인, 단체 및 기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36
2) 문화예술인 마을 및 창작촌	41
3) 창작스튜디오 및 레지던시 사업	41
4) 소결	44
4.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사례조사	45
1) 개요	45
2) 국내사례 - 광주, 부산	46

3) 국외사례 - 영국, 일본	52
4) 시사점	56
제3장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실태조사	58
1. 조사·분석의 개요	58
1) 조사개요	58
2) 분석의 틀	59
2.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조사	61
1) 충남 문화예술인 분포 및 활동실태	61
2)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조사·분석	76
3. 분석 종합	112
1) 충남 문화예술인 분포 및 활동실태	112
2)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113
제4장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117
1. 기본방향	117
1) 공공 측면에서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 목표에 부합되는 정책 접근	117
2)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는 유도 접근	117
3) 내생성, 착근성,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생태 접근	118
2. 정책과제	119
1) 문화예술인 간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 측면	119
2) 문화예술인과 기관·단체의 네트워크 형성 측면	124
3) 문화예술인과 주민공동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측면	128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30
1. 요약 및 정책제언	130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134
참고문헌	135
부록 1. 설문조사지	137
부록 2. 문화예술인 네트워크 분석	145

표 목 차

<표 1-1>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와 관련 개념과의 비교	2
<표 1-2>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10
<표 1-3> 문화예술의 범위	11
<표 2-1>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와 연계된 문화의 환경·경제·사회적 효과	19
<표 2-2> 문전성시 프로젝트 지원시장	21
<표 2-3> 문전성시 프로젝트 사업 주체 및 역할	22
<표 2-4> 문화지구 관련법규	23
<표 2-5> 문화지구 지정현황	24
<표 2-6> 국립현대미술관의 레지던시 사업 개요	25
<표 2-7> 국립현대미술관의 레지던시 시설	26
<표 2-8> 서울시 창작공간 운영현황	27
<표 2-9> 인천아트플랫폼의 역할과 기능	31
<표 2-10> 충남 문화예술인 분야별 활동 현황	36
<표 2-11> 충남 문화예술 활동에 근거한 민간예술단체 현황	37
<표 2-12> (사) 한국예총 충남도 연합회 지역별 장르별 활동인원	38
<표 2-13> 문화예술 관련 협동조합 현황	39
<표 2-14> 문화예술 관련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	40
<표 2-15> 폐교 활용 국내 초기 창작스튜디오 운영 주요 사례(2011년 이전)	42
<표 2-16> 충남 창작스튜디오 운영 현황	43
<표 2-17> 15~16년 충남문화재단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사업 현황	43
<표 2-18> 대인예술시장 사업추진 현황	46
<표 2-19> 또따또가 사업개요	50
<표 2-20> 또따또가 인쇄1길 프로젝트	50
<표 2-21> 요코하마 ‘문화예술창조도시’정책의 정책 기본방향과 목표	54
<표 3-1> 충남 문화예술인 분석의 틀	59

<표 3-2> 실태조사 관련 전국 및 충남표본 현황	59
<표 3-3>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조사·분석의 틀	60
<표 3-4> 충남문화예술인 시군별·장르별 분포현황	61
<표 3-5> 충남문화예술인 시군별·장르별 입지강도	62
<표 3-6> 지역별 충남문화예술인 거주지(도시·비도시) 분포현황	63
<표 3-7> 분야별 충남문화예술인 거주지(도시·비도시) 분포현황	64
<표 3-8> 분야별, 거주지(도시·비도시)별 분포비율	65
<표 3-9> 충남문화예술인 거주지(도시·비도시) 분포현황	67
<표 3-10> 충남문화예술인 예술활동경력	68
<표 3-11> 충남문화예술인 예술작품 발표횟수	68
<표 3-12> 충남문화예술인 저작권 보유현황	69
<표 3-13> 충남문화예술인 외국예술 활동현황	69
<표 3-14> 충남문화예술인 문화예술 교육활동 종사현황	70
<표 3-15> 충남문화예술인 개인창작 공간보유현황	70
<표 3-16> 충남문화예술인 개인창작 공간크기 현황	71
<표 3-17> 충남문화예술인 개인창작 공간 보유형태	71
<표 3-18> 충남문화예술인 가구 소득	71
<표 3-19> 충남문화예술인의 장르별 가구 평균소득 및 소득의 중앙값	72
<표 3-20> 충남문화예술인의 장르별 예술활동 소득 및 소득의 중앙값	73
<표 3-21> 충남문화예술인의 예술활동 종사형태_전업예술인	73
<표 3-22> 충남문화예술인의 분야별 예술활동 종사형태_전업예술인	74
<표 3-23> 충남문화예술인의 예술활동 직업 고용형태_겸업예술인	75
<표 3-24> 충남문화예술인의 예술활동 외 고용형태_겸업예술인	75
<표 3-25> 문화예술인 클러스터별 예술인 거주지 현황	81
<표 3-26> 예술인의 현거주지 거주기간 현황	82
<표 3-27> 예술인 클러스터 연령	82
<표 3-28> 예술인 경력	82
<표 3-29> 클러스터별 예술인들이 종사하고 있는 장르	83
<표 3-30> 현 거주지에서 활동하게 된 동기	84

<표 3-31> 현 거주공간의 용도	85
<표 3-32> 현 거주지에서 활동의 장점	86
<표 3-33> 주변지역에서 알고 교류하는 예술가 수	87
<표 3-34> 주변지역에서 알고 교류하는 주민 수	88
<표 3-35> 거주하는 주변지역에서 예술가와의 교류 빈도	88
<표 3-36> 거주하는 주변지역에서 주민들과의 교류 빈도	89
<표 3-37> 거주환경의 창작 및 활동에 도움 정도	90
<표 3-38> 거주환경과 거주지에 대한 자부심의 정도	91
<표 3-39> 지난 1년 동안 창작활동에 도움을 받은 예술가 혹은 단체	92
<표 3-40> 예술가와의 협업 예술가 집중도 분석 결과	93
<표 3-41> 국지적 중심성이 높은 지역예술인(연결정도중심성지수)	93
<표 3-42> 전역적 중심성이 높은 지역예술인(근접중심성지수)	95
<표 3-43> 매개중심성이 높은 지역예술인(매개중심성지수)	97
<표 3-44> 지역문화기관과의 교류	98
<표 3-45> 예술가와의 협력 기관 및 단체 집중도 분석 결과	99
<표 3-46> 국지적 중심성이 높은 지역예술인 및 기관·단체(연결정도중심성지수)	99
<표3-47> 지역 사회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봉사활동	102
<표 3-48> 예술가와의 활동장소 집중도 분석 결과(2-mode)	103
<표3-49> 국지적 중심성이 높은 지역예술인(연결정도중심성지수)	103
<표 4-1> 생활환경에 예술가들과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활성화 사례	120
<표 4-2> 충남 문화예술인 집적공간 조성	123

그림 목 차

<그림 1-1> 전국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분포현황	3
<그림 2-1> 작은 규모의 건물용도 전환 사례 - 셰필드의 쇼룸	16
<그림 2-2>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의 개념도	19
<그림 2-3> 문전성시 프로젝트 사업유형	21
<그림 2-4> 경기창작센터 시설	29
<그림 2-5> 대인예술시장 내에 주요 창작문화공간 현황	47
<그림 2-6> 부산 또따또가 공간별 입주현황도	49
<그림 2-7> Acme's studios 건물 위치도	53
<그림 3-1> 충남 문화예술인 시군별·장르별 분포현황	63
<그림 3-2> 충남문화예술인 거주지(도시·비도시) 분포현황	66
<그림 3-3> 외향 연결정도중심성 관계망 그래프(협력예술가)	94
<그림 3-4> 외향 근접중심성 관계망 그래프(협력예술인)	96
<그림 3-5> 연결정도중심성이 가장 높은 지역예술인의 관계망 그래프	100
<그림 3-6> 연결정도중심성이 가장 높은 기관·단체의 관계망 그래프	100
<그림 3-7> 국지적 중심성(연결정도중심성) 관계망 그래프	101
<그림 3-8> 국지적 중심성(연결정도중심성) 관계망 그래프(예술인과 지역장소와의 네트워크) ..	104
<그림 4-1>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에 정책대상	118
<그림 4-2> 충남 문화예술인 등록제 도입 및 실태조사 정책화 과정	121
<그림 4-3> 예술인들의 지역사회의 참여와 역할 사례	126
<그림 4-4> 예술인 참여에 의한 빈집활용 사업 프로세스 - 일본 에치고 쓰마리	126
<그림 4-5> 예술가와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을 변화시킨 사례 - 브라질 리오의 파벨라 (빈민가) ..	127
<그림 4-6>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	129
<부록 그림 2-1> 국지적 내향 중심성이 높은 지역 예술가 소속 관계도	147
<부록 그림 2-2> 국지적 외향 중심성이 높은 지역 예술가 소속 관계도	148
<부록 그림 2-3> 외향 연결정도중심성 관계망 그래프(협력예술가)	149

<부록 그림 2-4> 외향 근접중심성 관계망 그래프(협력예술인)	151
<부록 그림 2-5> 매개중심성이 높은 지역 예술가 소속 관계도	153
<부록 그림 2-6> 매개중심성 관계망 그래프(협력예술가)	154
<부록 그림 2-7> 기관 및 단체와 교류경험이 있는 예술가의 국지적 중심성 분포도	156
<부록 그림 2-8> 예술가와 교류경험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국지적 중심성 분포도	156
<부록 그림 2-9> 연결정도중심성이 가장 높은 지역예술인의 관계망 그래프	157
<부록 그림 2-10> 연결정도중심성이 가장 높은 기관·단체의 관계망 그래프	157
<부록 그림 2-11> 홍성 및 공주권역의 지역예술인+기관·단체의 관계망 그래프	158
<부록 그림 2-12> 국지적 중심성(연결정도중심성) 관계망 그래프(예술인+협력기관 및 단체)	159
<부록 그림 2-13> 전역적 중심성(근접 중심성) 관계망 그래프(예술인+협력기관 및 단체)	162
<부록 그림 2-14> 가교역할로써의 전역중심성이 높은 예술인 및 기관·단체의 중요성	163
<부록 그림 2-15> 기관 및 단체와 교류 관계가 있는 예술가의 매개중심성 분포도	165
<부록 그림 2-16> 예술가와 교류 관계가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매개중심성 분포도	165
<부록 그림 2-17> 매개중심성 관계망 그래프(예술인+협력기관 및 단체)	165
<부록 그림 2-18> 지역장소와 교류 관계가 있는 국지적 중심성 분포도	167
<부록 그림 2-19> 예술가와 교류 관계가 있는 지역장소의 국지적 중심성 분포도	167
<부록 그림 2-20> 국지적 중심성(연결정도중심성) 관계망 그래프(예술인+지역장소)	168
<부록 그림 2-21> 전역적 중심성(근접중심성) 관계망 그래프(예술인+지역장소)	170
<부록 그림 2-22> 지역장소와 교류 관계가 있는 예술가의 매개중심성 분포도	172
<부록 그림 2-23> 예술가와 교류 관계가 있는 지역장소의 매개중심성 분포도	172
<부록 그림 2-24> 매개중심성 관계망 그래프(예술인+지역장소)	173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산업사회에서 창조사회¹⁾로 전환됨에 따라 소프트 파워(Soft power)²⁾를 형성하는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의 역할이 중요시됨

서비스에 기반한 문화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문화와 창조는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수단이 되었다. 특히, 창조사회에서 문화예술인 간의 연계,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와 지역 사회의 연계는 창조사회의 소프트 파워 형성에 근간이 되며, 지역 경쟁력 확보에 핵심이다.

예술의 창작이 대상에 대해 예술인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과정이라면, 문화 예술인 클러스터 활동 속에는 기존에 지역 문화자원을 재해석하고 가치화하여 매력적인 것으로 재창조하는 과정이 있다.

예술인들의 유치와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활성화는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형성정책의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

1) 창조사회란 지역사회의 자원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여 개발하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곳¹⁾으로서, 핵심은 연결, 연계, 네트워크와 협업이다(홍종열, 창조경제란무엇인가, 2014.4., 커뮤니케이션북스).

2) 소프트 파워란 인구크기, 국토면적, 군사력, GNP 등으로 표현되는 하드 파워(hard power)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써 매력적인 문화, 이념 및 제도와 같은 무형적인 힘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을 말한다(Joseph S. Nye, 2004).

〈표 1-1〉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와 관련 개념과의 비교

영역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문화지구	문화산업클러스터
특징	예술가의 인적 네트워크와 지역사회 연계	상업적 문화기능의 집적	문화산업기업의 기업연계
핵심 기능	시각예술, 공연예술, 예술기획, 예술교육	박물관, 갤러리, 쇼핑몰 등	영화, 게임, 방송, 콘텐츠, 패션 등
관련 이론	클러스터 이론, 예술세계론(Becker)	장소마케팅 이론	클러스터 이론
관련 기존 연구	Becker(2008), Stern and Seifert(2007), Markusen and Gadwa(2010)	Le Blanc(2010), Mommaas(2004), Montgomery(2003)	Scott(2000), Power and Scott(2004)

자료: 박세훈 외3명, 2011,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p30를 재정리.

주: Becker(2008), Stern and Seifert(2007), Markusen and Gadwa(2010)는 ‘문화클러스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타 분야에서는 클러스터라는 용어를 매우 다의적으로 쓰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문화클러스터’를 ‘문화예술인 클러스터’로 구체화하여 사용함

(2) 문화예술인들의 지역 사회 참여를 통해 공동체 정체성 강화, 사회문제 해결 등에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문화예술은 문화와 예술 본연의 발전을 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문화예술과 공동체에 연계는 문화예술인들의 인적 네트워크와 지역사회의 교류를 통해 구현되는데 문화예술인 클러스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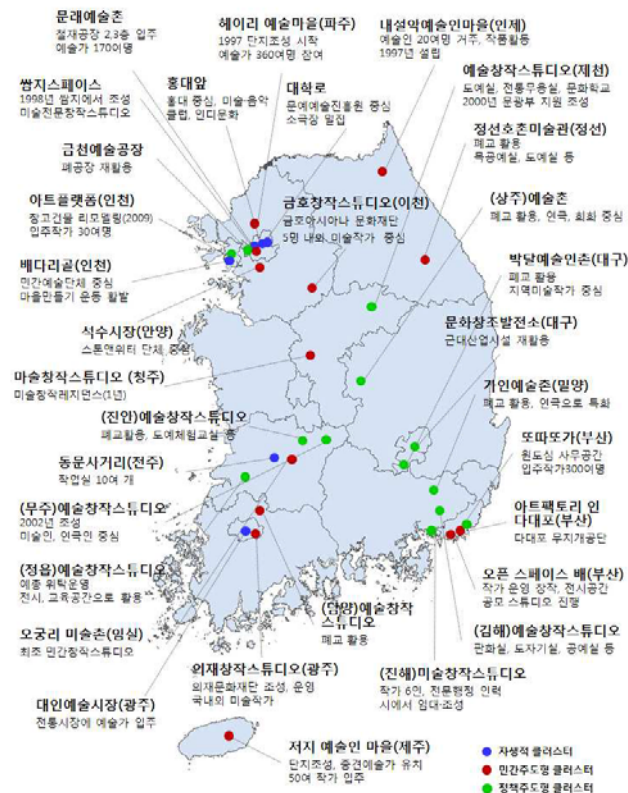
문화예술인 클러스터가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문화예술을 매개로 예술가와 주민들이 교류를 함으로써 예술가들에게는 창작, 사회공동체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며, 주민들을 예술창작에 직접적인 참여와 창작을 통해 지역을 새롭게 알고 자긍심과 자존감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든다.

그러나 지역에 자생적으로 형성되었거나 민간 또는 공공이 주체가 되어 형성된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에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 정책지원을 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3)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실태조사와 정책의 필요성 대두

전국적으로 보면,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목적이 아닐지라도,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술인촌, 예술인마을, 스튜디오, (구)발전소 또는 공장을 활용한 재생사업, 시장 활성화 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사례는 많지 않다. 충남도 및 시·군의 경우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전무한 상태로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부재, 형성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과 활성화가 쉽지 않다.

〈그림 1-1〉 전국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분포현황



자료: 박세훈 외3명(2011),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p61.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충남지역에 형성된 문화예술인 협력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클러스터의 형성배경, 활동상황, 시사점과 한계 등을 살펴보고,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충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분포, 경제적 상황, 예술활동, 예술정책 및 만족도를 살펴보고, 둘째 문화예술인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지역을 찾아서 활동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며, 셋째 형성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3) 기대효과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대효과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에 기초가 되는 충남 문화예술인에 대한 현황과 실태 파악을 통해 예술 공급 기반이 되는 인력 부분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충남은 아직까지 예술인의 활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본 연구 결과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둘째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고 막연하게 인식되어온 충남지역에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에 대한 활동상황과 실태 파악을 통해 충남 예술인 활동 기록과 보존에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며, 가치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예술인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초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예술인 협력네트워크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충청남도, 시·군, 재단 등에 정책, 추진시책, 사업에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예술인 협력네트워크를 공동체화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주체들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 매개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은 정책입안에 자료가 될 것이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간적으로는 2016년 현재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기준년도 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내용적 범위는 관련이론 및 정책동향에 대한 조사, 국내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 정책 및 사업추진 실태 및 사례조사, 충남 문화예술인 일반적인 실태와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현황 및 실태분석, 정책방향 등이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①관련이론·정책동향 및 국내외 사례 조사 ②충남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공간적인 분포 현황 및 생활여건에 대한 비교 분석 ③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현황 및 실태분석 ④정책연구자문회의 등의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였다.

(1) 국내·외 정책동향 조사

문화예술인 클러스터는 기존의 산업·도시적 측면에서 접근되었던 공간과 기능 중심의 클러스터 보다는 인적인 네트워크의 특성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예술인 협력네트워크 형성과 지역사회와 연계와 관련된 정책동향을 살펴보았다. 사례조사는 국내외 사례를 선정하여 문헌·자료를 통해 형성배경, 활동현황, 정책적 지원 현황 등을 살펴보고,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에 방향을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2) 충남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공간적인 분포 현황 및 생활여건에 대한 비교 분석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로 충남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들에 대한

현황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충남에서는 아직까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일부 조사가 되었을 지라도 표본수가 작아서 실태를 대표하기에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충남 문화예술인 데이터를 추출하여 실태조사를 하였다. 조사는 충남 문화예술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적 분포 특성을 GIS를 통해 구현하였고, 일반 실태는 활동, 수입, 만족도 측면에서 빈도분석, T-test를 통한 전국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3)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현황 및 실태분석

문화예술인 클러스터는 초기에는 비공식적인 관계로 형성되어, 기존을 상태를 유지하며 활성화하거나 또는 공식적인 형태로 발전되어 활동하는 2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비공식적인 형태의 클러스터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에서는 지역 문화예술 담당공무원, 문화예술단체 등에 전화인터뷰를 통해 존재 유무를 확인하였고, 공식적인 형태로 발전된 클러스터는 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동호회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 후에 본 연구에 부합되는 클러스터 성격의 단체를 추출하였다.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의 성격을 가진 대상을 1차적으로 추출한 후에, 활동하는 예술가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문화예술인 클러스터로서의 검증과정을 거치며 최종 실태조사 대상을 선정하였다.

현황 및 실태분석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대표예술인에 대한 인터뷰 조사, 현장답사 및 사진촬영을 실시하였다. 이후 예술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도분석, 사회네트워크망 분석 등을 통해 특성분석을 하였다.

(4) 정책자문위원회

협력적(collaborative) 연구수행을 위하여 예술인,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한 자문진을 구성하여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에 대한 정책자문의견을 수렴하여 실천적인 정책제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3. 연구의 흐름과 보고서 구성

본 연구는 다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방법과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차별성이 무엇인가를 제시하였다.

제2장 관련이론 및 정책동향 검토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검토를 통해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고, 문화예술인 클러스터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연구의 방향을 정립하였다. 정책추진사례로는 국내에서 추진된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과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문화예술인 단체 및 기업 형성정책, 창작레지던시, 문화예술인 마을 및 창작촌 조성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사례조사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형성된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에 기반이 되는 문화예술인 분포 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해 충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들의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보았고,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실태를 분석하였다. 조사·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가 의미하는 시사점, 과제 등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장 관련이론 및 정책동향 검토와 제3장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실태분석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책방향은 형성을 위한 기본방향 정립하고, 정책과제로서 접근방향과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제안하였다.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한 후, 연구가 갖는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를 밝혔다.

<p>관련이론 · 정책 동향 및 사업추진 실태 (2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개념 및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의 개념 •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의 역할과 기능 <input type="checkbox"/> 국내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 관련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의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관련 정책 •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관련 정책 <input type="checkbox"/>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관련 현황 및 실태 <input type="checkbox"/> 국내 · 외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및 형성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 광주, 부산 • 국외 - 영국, 일본 • 시사점
<p>충청남도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실태조사 · 분석 (3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조사 · 분석의 개요(틀) <input type="checkbox"/> 충남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input type="checkbox"/>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현황 및 실태 <input type="checkbox"/> 분석 종합
<p>충청남도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4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인 간 협력 네트워크 형성 측면 • 문화예술인과 기관·단체의 네트워크 형성 측면 • 문화예술인 주민공동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측면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제도 개선 •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및 지구 형성을 위한 시범사업 마련
<p>결론 및 정책제언 (5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결론 및 요약 <input type="checkbox"/> 향후 연구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①문화클러스터와 관련된 연구와 ②문화지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문화클러스터는 주로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며, 문화지구는 공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공간은 예술인 뿐 아니라 문화소비, 유통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존 문화지구 제도와 연구는 주로 문화소비, 유통과 관계가 높다.

문화클러스터와 관련된 연구는 박세훈(2014)이 문화클러스터를 예술가의 창작네트워크로 정의하고 문화생산 기능의 관점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활용방안 연구가 있었으며, 김연진(2013)은 유희공간의 문화적 활용과 도시재생의 촉매로서 창작스튜디오 조성과 관련된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연구를 하였고, 장혜영(2008)이 지역의 혁신측면에서 연구하였다.

클러스터와 관련된 문화지구에 대해서는 황금연(2014)이 문화소비의 관점에서 대학로를 대상으로 활성화를 위한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해 연구하였고, 정영도·이정형(2014)은 문화지구의 관리·계획적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본 연구는 연구맥락 측면에서 박세훈(2014)이 연구한 문화클러스터 연구와 연계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충남지역에 대한 충분한 현황조사와 특성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아, 충남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차별성은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충남 문화예술인 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충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의 실태분석을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는 잠재자원(지역 예술인)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와,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 지역 예술인 협력네트워크(창작과 생산, 교류)를 어떻게 촉진하고 지역사회공동체와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방향 제안을 하였다.

〈표 1-2〉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구분	연구명 - 연구자	목적, 범위 및 방법	주요내용
문화 클러스터 관련 연구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방안 연구 - 박세훈 외3명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클러스터의 사회네트워크 분석 및 도시재생 활용방안 제시 면접·설문조사, 해외정책사례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문화클러스터 현황 문화클러스터 사회네트워크 분석 -부산 또따또가, 광주 대인시장 국내외 문화클러스터 정책사례 및 형성방안 제시
	창작스튜디오 현황 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김연진(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작스튜디오 운영현황분석을 통한 정책지원방안 모색 설문조사, 현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 창작촌에 대한 개념적 연구 문래동 예술창작촌의 형성과 변화, 장소성 및 도시재생
문화 지구 관련 연구	서울시 문화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례연구 - 송병하 외(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동 대상 문헌 및 자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 적용사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사동 지구관리에 개선방향을 제시
	문화지구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김연진(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문화지구 대상 사례와 법제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에 지정된 문화지구의 한계점 및 가능성을 도출
	문화지구 관리운영에 대한 인식평가 연구 - 황금연(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와 결합된 공간에 활성화 요소분석 운영사례조사,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로를 대상으로 활성화 메카니즘 분석 방문객, 주민, 상인 입장에서 활성화 요소 도출
	미국 문화지구의 문화특성 보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 정영도 외(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의 지정 문화지구를 대상 사례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지구의 공간적 특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연구
본 연구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에 대한 실태파악 현장조사, 설문조사, 정책 사례조사 및 전문가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 문화예술인 들에 대한 실태파악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실태파악을 통한 잠재력과 분석을 과제도출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5. 용어의 정의

1) 문화예술과 범위

문화예술(文化藝術, Cultural art)은 문화와 예술의 복합어로서, 문화라고만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고, 예술이라고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문화와 예술을 합성하여 만든 단어로서 문화적인 예술 활동을 말한다.

문화예술의 범위로는 법상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만 교육, 연구조사에서는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다.

법상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1)에는 ①문학 ②미술(응용미술을 포함) ③음악 ④무용 ⑤연극 ⑥영화 ⑦연예 ⑧국악 ⑨사진 ⑩건축 ⑪어문(語文) ⑫출판 및 ⑬만화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예술인 복지법(제2조 1)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교육, 연구조사 분야에서, 문화예술교육사제도 상의 문화예술 범위는 ①미술 ②음악 ③무용 ④연극 ⑤영화 ⑥사진 ⑦만화 ⑧애니메이션 ⑨디자인 ⑩공예 ⑪중요무형문화재 등 11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예술인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범위는 ①문학 ②미술 ③공예 ④사진 ⑤건축 ⑥음악 ⑦대중음악 ⑧국악 ⑨무용 ⑩연극 ⑪영화 ⑫방송 ⑬만화 ⑭기타 등 14개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³⁾.

〈표 1-3〉 문화예술의 범위

구분	문화예술 진흥법	예술인 복지법	문화예술 교육사	예술인 실태조사		본 연구 문화예술 범위	비고
				(15년)	(88~12년)		
문학	●	●		●	○	◎	
미술	●	●	●	●	○	◎	
음악	●	●	●	●	○	◎	대중음악포함
무용	●	●	●	●	○	◎	
연극	●	●	●	●	○	◎	
영화	●	●	●	●	○	◎	
연예/방송	●	●		●	○	◎	
국악	●	●		●	○	◎	

사진	●	●	●	●	○	◎	
건축	●	●		●	○	◎	
어문	●	●					
출판	●	●					
만화	●	●	●	●		◎	
애니메이션			●				
디자인			●				
공예				●		◎	

본 연구에서는 법과 조사사례 범위 등을 종합하여 문화예술의 범위를 ①문학 ②미술 ③공예 ④사진 ⑤건축 ⑥음악(대중음악) ⑦국악 ⑧무용 ⑨연극 ⑩영화 ⑪방송 ⑫만화 등으로 한다.

2) 문화예술인

사전적으로 문화예술인은 ‘문화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예술인과 예술가를 같은 말로 보고 있다.

예술인 복지법 제2조 2에서는 예술인의 정의를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있다.

예술 활동의 증명(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은 ①「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②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③ 그 밖에 ①, ②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한편, ‘2015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는 예술인의 모집단을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신청자,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지원시스템 등록자, 문화예술관련협회·단체 회원 등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인 조사의 객관적 확보와 기간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조사의 집단을 충남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신청자,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지원시스템 등록자(사업수혜 예술인), 문화예술관련협회·단체 회원 등을 충남 문화예술인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1988~2012에는 조사명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로 하여 10개 분야를 조사하였으나, 2015년에는 조사명을 ‘예술인 실태조사’ 바꾸고 14개 분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대상 모집단(2015년)도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신청자,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지원시스템 등록자, 문화예술관련협회·단체 회원으로 확대하였다.

제2장 관련 이론·정책추진 및 사례

1.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개념 및 의의

1)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의 개념

클러스터 이론은 경영,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기업의 기술경영, 산업의 경쟁력 관점에서 논의되고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는 경영전략을 연구한 마이클 포터(Michael E. Porter)가 있으며, 경제지리학 및 도시계획을 연구한 색스니언⁴⁾, 스토퍼⁵⁾ 등이 국가경쟁력이나 지역의 과학기술차원에서 클러스터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클러스터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기업, 지방정부, 연구기관 및 관련 기능을 가진 기관들이 교류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집단이다(Michael E. Porter, 2001)⁶⁾. 클러스터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혁신을 통하여 내생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지역 내에서 자생적 혁신이 일어나고, 이러한 혁신을 통해 지역 발전과 경쟁력이 창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지역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클러스터 접근을 취하였다.

4) Saxenian, A., 1994, "Regional Advantage : Culture and a Competition in Silicon Valley and Route 128", Cambridge:Harvard University Press

5) Storper, M., 1995, 「Regional technology Coalition : An essential dimensions of national technology policy」, 「Research Policy」 Vol. 24, pp.895-911.

6) 한편 라젠다이크(Lagendijk)는 신산업공간론(new industrial spaces), 산업지구론(industrial district theory), 혁신환경론(milieux innovateurs), 지역혁신체제론(regional innovation system), 클러스터 접근(clustering)으로 나누어 클러스터를 설명하였다(Lagendijk, A., 1997, 「From New Industrial Space to Regional Innovation Systems and a Beyond : How and from whom should industrial geography learn?」, 「CURDS」,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U.K.).

한편, 문화클러스터 연구자들은 경제 클러스터 이론이 예술분야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Becker, 2008; Markusen and Gadwa, 2010). 스텐과 세이퍼트의 문화클러스터 정의(Stern and Seifert, 2007)는 “서로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자기 조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문화예술의 생산 및 관련 기능의 지리적 집합체”이다. 이 정의에 의하면 문화클러스터는 문화예술이 산업화되기 이전의 창작기능을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자생성, 역동성, 풍부한 네트워크를 특징으로 한다(박세훈 외, 2013).

예술인 집단은 개인적 창작활동에 전념한다는 고정관념과 달리, 다른 집단보다도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공동체적 속성을 지니며, 대부분 긴밀한 공동체적 네트워크 속에서 작업을 한다(Becker, 2008). 예술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동료예술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예술분야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성격은 다르다. 예를 들어, 공연이나 전시 등과 같이 공동작업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예술활동에 네트워크가 필수적인 반면, 문학창작 등과 같은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네트워크가 느슨하고, 창작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술인은 서로 협업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영감을 얻으며, 작업을 위해 교류하고 집적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예술창작을 위한 교류와 협력활동을 예술인 협력 네트워크라 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의 기초라 할 수 있다. 예술인 협력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면 예술인의 작품 창작 활동이 활발해지며,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예술 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예술인들의 협력 네트워크가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와 더욱 밀접하게 연계되고 발전하게 된다⁷⁾. 이렇게 지역에 기반한 문화예술인의 협력 네트워크가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인 클러스터라고 정의한다.

2)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의 역할과 기능

본 연구에서 문화예술인 클러스터를 주목하는 것은 문화예술인 클러스터가 첫째 예술가들의 협력 네트워크가 창작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과 둘째 이를 통해 지역사회

7) 이러한 형태의 문화클러스터를 다른 말로 지역중심형 문화클러스터(place-based cultural cluster)라고 할 수 있다(Stern and Seifert, 2007; Lazzeretti, 2008).

에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동시에 기존의 지역문화전략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이 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예술가들이 클러스터⁸⁾를 형성하는 이유⁹⁾는 예술가들이 고독한 개인적 창작활동에 매진하는 사람들이라는 고정관념과는 달리, 대부분 긴밀한 공동체적 네트워크 속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Becker, 2008). 작품기획, 전시·판매, 공동창작 등 직접적인 협동작업 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정체성을 획득하고 예술가로서 인정을 받는 것도 모두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¹⁰⁾. 공연예술, 설치미술과 같은 공동작업이 필수적인 예술 활동은 네트워크 자체가 작품생산 활동에 필수적으로, 공동으로 기획하고 생산하며 전시하는 등 모두 집단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회화와 사진과 같은 시각예술은 창작활동 자체는 개인적인 작업이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기획, 전시, 판매 등은 관련 네트워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학창작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러한 네트워크가 느슨하고 창작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다른 분야에 비해 적은 편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예술가들은 서로 배우고, 경쟁하고, 자신의 생각을 점점받으며, 실질적인 작업을 함께 하기 위해 가까운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을 가진다.

두 번째, 문화예술인 클러스터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확산효과(spill over effect)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예술인 개개인은 창조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나 더욱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은 예술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창작활동을 할 때이다. 예술가들에게 지역의 현실과 문제점, 지역의 역사와 미래가 예술작업의 주제가 되며 지역사회로의 개입과 참여는 그 자체가 예술적 작업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을 매개로 쇠퇴한 지역사회 및 공동체와 교류를 통해 환경, 경제, 사회·문화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8) 우선 클러스터는 문화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술가 집단은 다른 어느 직업군보다도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 받는 공동체적 속성을 지닌다.

9) 일반적으로 기업의 클러스터 형성 원인과 다르지 않다. 예술가들은 서로 모여 정보를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는다. 또한 작품 활동의 기획, 생산, 전시, 판매 등의 제반 활동에 걸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예술가들의 공동체가 활성화 되면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단체 -교육기관, 갤러리, 공연장, 지원기관 등-등이 함께 입주하면서 보다 넓은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여기에 예술가의 지역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지역주민의 예술 활동과의 연계가 활발해지면 지역사회 중심형 문화클러스터가 활성화된다.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역사회 효과’는 모두 관련 기능의 클러스터링에 기인한다.

10) 물론 종사하는 예술장르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성격은 달리진다.

(1) 환경(물리)적 측면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으로 건물과 오픈 스페이스(공공공간)의 활용성이 증대될 수 있다. 예술과 도시재생의 초기 사례들은 장소·공간 중심의 접근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산업 용지 또는 건물(Tate Liverpool, Dean Clough, Halifax), 구도심 지역(Centenary Square, Birmingham), 수변지역(Swansea, Cardiff, Hull), 그리고 미국에서는 도시 전체(Lowell, Massachusetts)를 개선시켰다.

기존 산업 또는 상업건물의 문화적 이용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영국의 아트 센터 운동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변화를 이끌었는데, 기존 타운 홀(Town halls), 퍼브(Pubs), 공장(Factories), 학교(Schools), 대학(Colleges)과 우체국(Post office)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며 환경(물리)적 개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큰 규모의 사례들로서는, 런던의 테이트 모던(Tate Modern)(예전에 발전소), 다이어베트(Digbeth)의 커스타드 공장(Custard Factory)(예전에 버드 커스타드의 본부), 셉프레이(Shipley)의 쉘트공장(Salt's mill)(예전에 빅토리아 면직공장), 게이트헤드(Gateshead)의 발틱(Baltic)(예전에 밀가루 공장) 그리고 런던 싸우드웁(Southwark)의 저우드 센터(Jerwood Centre)(예전에 학교)가 있다. 작은 규모의 변환 사례에는 셰필드의 쇼룸(Showroom)(전에 자동차 전시장에서 영화관으로)이 있다.

〈그림 2-1〉 작은 규모의 건물용도 전환 사례 - 셰필드의 쇼룸



자료: 1. <http://www.showroomworkstation.org.uk/info/history>
 2. http://en.wikipedia.org/wiki/Cultural_Industries_Quarter#/media/

(2) 경제적 측면

문화예술을 통한 경제 효과는 예술을 통한 어메니티의 확보와 관광 활성화, 예술과 문화산업의 연계를 통한 고용의 증대와 재배치가 대표적이다. 이 부분에 있어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의 역할과 기능은 사업 효과의 지속성을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

문화예술 축제와 이벤트들은 초기 단계에 경제 효과를 생산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작은 규모 축제들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커뮤니티 내부와 외부에 장소¹¹⁾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관련된다.

창조적인 일을 위해 잉여건물들이 갤러리, 박물관, 행위예술 공간, 극장 및 작업공간들로 재탄생되는 것은 카페, 새로운 거리 조명, 포장 예술의 지원에 의한 작업 들과 같은 부수적인 일들과 함께 재생에서 시도하는 가시적인 표시 중의 하나이다.

영국의 경우 문화생산기관들은 산업 클러스터와 공유 작업공간을 통해 근접한 지역 내에서, 정보와 지식의 공유, 협력 마케팅과 건물의 재이용, 낮은 지가와 노동임금, 수준 높은 개인 능력과 낮은 밀도의 입지에 대한 장점을 가지며, 경제적 뿐 아니라 물리(환경)적 개선을 이끌었다. 클러스터들은 높은 실업과 산업적으로 쇠퇴한 지역에 재생을 위한 기술들과 소기업의 기회를 가져옴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귀중한 자원과 고용 성장을 제공하였다.

(3) 사회적 측면

문화 영역에서, 사회 효과로는 근린지구 또는 커뮤니티 재건, 커뮤니티 재생, 결속 또는 자긍심 고취 등 다양하다. 또한, 최근에는 문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효과로서, 지속가능성, 문화적 보존, 문화적 다양성, 자율, 창조, 연대 등에 있어서의 문화의 역할이 중요함이 이야기되고 있다.

사회적 재생에 있어 문화적 활동의 역할에는 많은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활동의 많은 부분은 사회적인 배제에 대한 문제, 커뮤니티의 단결을 촉진하고 근린지구를 재생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프랑수아 마타라소(François Matarasso)는 커뮤니티들과 실제 연구를 디자인하기도 하고 착수하거나 또는 그들의 근린에서 문화적 활동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한 예로 그녀는 10년간

11) McManus K. & Moriarty G.(2003) Releasing potential: creativity and change(Arts and regeneration in England's North West). Art Council England North West.

예술 전략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볼튼(Bolton)의 브레이트머트(Brightmet) 개발지역 거주 자들에 대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 어린이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더 큰 신분감
- 창조적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획필요성의 중요성 인식
- 다른 세대들이 있는 참여자들과 함께 작업하는 것에 대한 기회들
-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무엇’, 그리고
- 브레이트머트(Brightmet)에 대한 개선된 이미지

또한 커뮤니티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문화적 활동의 잠재적 기여가 발견되었는데, 호주에서 연구된, ‘사회적 자본의 창조, 예술 자금을 기반한 커뮤니티의 장기간 이익에 관한 연구¹²⁾’는 예술과 관련한 사회적 자본 단어를 이용한 첫 번째 중의 하나이다. 예술적, 경제적, 교육적 혜택에 따른, 사회적 혜택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음을 밝혔다:

1. 진행 중인 가치에 대한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
2. 하나의 사회적 또는 커뮤니티 관심에 대한 공공 인식의 증대
3. 인간 권리 또는 사회적 정의 문제에 대한 행동의 고취
4. 여가 또는 위락 선택의 개선
5. 다른 문화 또는 생활양식의 이해에 대한 개선
6. 개인적 또는 집단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교훈
7. 커뮤니티 정체성 또는 그 자체의 의식에 대한 개발
8. 커뮤니티 예술 프로젝트의 가치에 대한 공감의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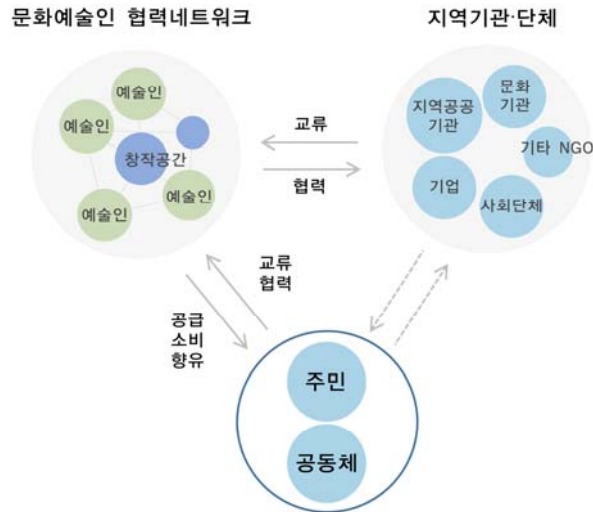
3) 시사점

본 연구에서 문화예술인 클러스터는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한 인적 협력네트워크로서 창작·생산의 기능을 하며, 지역사회(기관·단체)와 주민·공동체의 교류·협력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12) 그 저자인, 다야드레 윌리엄스, 1994년에서 1995년 사이에 호주 위원회로부터 커뮤니티 예술 네트워크에 의해 착수된 커뮤니티 기반의 예술 활동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와 관찰자 ‘포커스’ 그룹들은 참여하거나 또는 커뮤니티-기반의 예술 프로젝트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유형에 따라, 무엇이 그들을 동기화하였고 그리고 장기 간의 혜택으로 얻어진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도록 계획되었다.

이러한 문화예술인 클러스터는 환경(물리),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를 내며 지역의 내생적인 발전과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한다.

〈그림 2-2〉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의 개념도



〈표 2-2〉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와 연계된 문화의 환경·경제·사회적 효과

환경적(물리적) 효과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희 건축물들과 오염된 토지의 재이용 ▶ 환경적인 개선 ▶ 복합 용도의 개발 ▶ 공간에 대한 공공 용도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투자 ▶ 체류증가와 방문객 소비 ▶ 일자리 창출 ▶ 고용주 입지/증대 ▶ 노동력의 다양화 ▶ 새로운 비즈니스, 소매 및 레저 개발의 추진 ▶ 부동산 가치 증대 ▶ 공공-민간의 자발적 협력 증대 ▶ 지역의 문화영역에 협력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사람들의 이미지 또는 평판의 변화 ▶ 사회적 결속의 증대 ▶ 증대된 자신감과 영감 ▶ 거주자들이 사는 장소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사회적 자본의 증대 ▶ 건강과 웰빙의 개선

2. 국내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 관련 정책

1) 중앙정부의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관련 정책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직접적인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정책은 없지만 클러스터에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문전성시 프로젝트)’,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지구 조성사업’, 창고 및 공장 등 지역근대 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사업 및 창작스튜디오 조성 사업’을 다룬다.

(1) 문전성시 프로젝트

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시장과 문화컨설팅단’을 구성하여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문전성시 프로젝트는 전통시장¹³⁾을 지역문화공간이자 일상의 관광지로 조성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사업규모는 시장 당 연간 1.5~3억원 으로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통시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형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인정시장)을 지원 대상으로 하였다. 문전성시 프로젝트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및 컨설팅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중앙과 지방이 50대 50으로 분담한다. 사업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주관 단체(PM:Project Manager)가 사업을 주관하게 하였다.

나. 현황

문전성시 프로젝트는 2008년 10월 시범사업으로 수원 못골시장과 강릉 주문진시장 등 2개 시장에서 시작하였다. 2009년에는 서울 강북 수유마을시장, 전남 목포 자유시장, 충남 서천 한산재래시장, 대구 중구 방천시장 등 4개 시장을 신규로 선정하였으며, 2010년에는 광주 무등시장,

13) 전통시장은 예로부터 유통과 구매의 공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교류와 소통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달과 대규모 유통시설의 입점으로 전통시장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서울 우림시장, 경북 봉화상설시장, 청주 가경터미널시장, 부산 부전시장, 경남 화개장터, 전북 진안시장, 전남 순천옷장, 강원 중앙시장, 전남 여수 교동시장 등이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충남의 경우 홍성전통시장이 선정되었다.

〈표 2-3〉 문전성시 프로젝트 지원시장

(단위 : 명,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지원 시장 (개)	신규	2	4	10	9	2		27
	계속		2	6	13	12	5	38
	소계	2	6	16	22	14	5	65
지원예산 (백만원)		1,160	1,200	3,800	3,585	1,772	250	11,76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사업유형은 문화예술형, 문화복지형, 주민공동체형, 지역관광형 등 4가지이며, 유형별 목표와 대표 사례시장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3〉 문전성시 프로젝트 사업유형



다. 추진주체별 역할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추진주체는 크게 다섯으로 나누며 각 주체별 역할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4〉 문전성시 프로젝트 사업 주체 및 역할

사업 주체	역할	비고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지원 및 각 주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 - 이 과정에서 컨설팅단의 자문을 토대로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역할을 담당 	
컨설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자문을 하고, 시범사업 선정기준 마련, 시장실사 등 시범사업 심사를 담당 • 사업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의 자문(시장별 책임 컨설턴트 지정, 실행계획 수립 집중자문)역할과 함께 사업모니터링, 성과평가,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검토와 자문을 수행 	
사업 대상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 대상(전통시장, PM등)을 추천하고, 상인회, 지역주민, 관련단체 등 지역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 교부 및 관리, 행정 지원을 담당 	
주관단체/P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단 자문을 통해 사업실행계획을 수립 • 지자체로부터 사업비를 보조받아 사업추진 및 정산을 담당 	
시장상인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단 및 사업시행주체(PM)와의 협력관계를 구축 - 시장상인회를 중심으로 사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를 협조하고 사업진행에 동참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4

(2) 문화지구 제도

가. 개요

문화지구 제도는 지역 내 문화자원을 보호·형성하여 문화자원이 지역 내에서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화된 지역 환경을 만들어 지역을 문화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문화지구 개념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사용되었으며, 당초 문화지

구관 문화예술자원이 밀집되어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과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을 의미하였으나, 이후 문화예술자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예술자원이 집적된 지역으로 개념이 확장되었다.

문화예술자원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문화지구는 문화예술인들이 일정한 지역에 집적되어 활동하는 지역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문화지구 제도는 지역문화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당해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표 2-5〉 문화지구 관련법규

관련법률	법률 내용	
지역문화진흥법	-	문화지구의 지정 문화지구의 관리 문화지구 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 지정보고 및 평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문화지구 지정
도시계획조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문화지구의 지정(용도지구지정)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문화지구의 지정(용도지구지정)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문화지구의 지정(용도지구지정)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문화지구의 관리, 육성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문화지구의 관리, 육성

나. 문화지구 지정 및 특성

국내에서 현재 문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인사동¹⁴⁾과 대학로, 경기도 헤이리, 인천 개항장¹⁵⁾이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14) 인사동의 문화지구 지정은 개발의 압력으로부터 전통가로를 보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고미술을 중심으로 인사동의 전통네트워크를 보존하기 위하여 골동품, 화랑, 표구점, 필방 및 지업사, 공예품점을 권장시설로 한정식, 전통찻집 등은 준권장시설로 지정하였다. 도예인들이나, 미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위해 지정된 것이 아닌, 전통가로의 보존과 문화 유통시설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15) 인천 개항장은 인천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대표하는 지역이다. 개항장의 독특한 다국적 도시경관과 근대건축물을 보호하고, 이를 지역특화자산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문화지구로 지정하였다. 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 북성동, 동인천동 일원 537,114㎡이며, 권장시설은 문화관련 업종, 전통상·역사성, 차별성을 보유한 업종 등이다.

이 중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위한 문화공간을 보존·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곳은 대학로 문화지구와 헤이리 문화지구이다.

대학로는 공연장 및 관련 시설이 밀집하여 공연문화공간이라는 뚜렷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 많은 연극인들과 음악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대학로 일대는 2004년 대학로의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공간의 기반이 되는 공연장 및 문화시설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되었다¹⁶⁾.

헤이리 문화지구는 문화예술의 육성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정되었다¹⁷⁾. 헤이리 문화지구 조성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다양한 전시, 창작, 예술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있다¹⁸⁾.

〈표 2-6〉 문화지구 지정현황

구분	인사동 문화지구	대학로 문화지구	헤이리 문화지구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지정일	2002.4.24.	2004.5.8.	2009.2	2010.2.1.
지정 목적	· 고미술 중심의 인사동 전통 네트워크 보존 · 역사문화자원 관리 및 보호	· 대학로의 문화 활동 촉진 · 공연장 및 문화시설 보호·육성 · 공연 활동에 위해가 되는 지역 환경 개선	· 다양한 문화·예술의 육성 및 활성화 · 지역 문화발전 · 시민문화공간으로 정체성 유지	· 독특한 다국적 도시경관과 근대건축물 보호 · 지역특화산업의 지원·육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및 문화특화지역으로 발전
특징	· 전통문화 거리의 분위기 보호 · 전통문화예술의 역사성 체현 지역 조성 · 문화업종 보호 및 지원, 지역 정비	· 공연중심의 문화공간 조성 · 권장 용도 및 시설의 육성	· 마을회원들의 자발적 참여 · 문화지구의 정체성을 보호·육성·활성화하기 위한 권장시설 도입	· 문화 관련업종, 전통성·역사성·차별성 있는 업종과 기존 지구단위계획 권장 용도를 고려하여 문화지구 권장업종 및 시설 지정
권장 시설	· 표구점, 골동품점, 필방·지업사, 공예품점, 화랑 등	· 민간 (소)공연장, 민간 건축물 · 미술 박물관 등 전시시설, 쌈지형 공지	· 전시, 영업(민속, 골동품 등), 문화 시설 · 정체성 보존 및 보호 관련 시설 -문화예술분야 학교, 학원, 창작시설 등	· 박물관, 미술관, 전문도서관, 공연장, 조각공원, 전시시설 등

주 : 김연진, 2011, 문화지구제도 개선 방안 연구, pp79-124의 내용을 재정리

16) 지정범위는 주간선도로인 대학로를 중심으로 동숭동과 혜화동, 이화동, 명륜 2가와 4가동, 연건동 등 6개 동으로 면적은 446,569㎡이다. 공연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연장 및 관련 문화예술시설, 기타 문화지구의 보전과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권장시설로 지정하였다.

17) 이 부분이 보전을 중점으로 하는 인사동 및 대학로 문화지구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18) 지정범위는 전체 통일동산 지역 내 헤이리 아트밸리 조성사업 지역으로, 파주시 탄현면 범흥리 1652번지 일원 505,891㎡이다. 헤이리 문화지구의 정체성을 보호·육성·활성화하기 위한 전시관련 업종 및 시설, 영업시설, 문화시설 등을 권장시설로 선정하였다.

(3) 레지던시 - (구)국립창작스튜디오

국립현대미술관이 운영하는 레지던시(국립창작스튜디오)¹⁹⁾는 한국의 여건에 맞는 미술레지던시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미술레지던시 문화를 만드는 것을 초기 목표로 시작하였다²⁰⁾.

〈표 2-7〉 국립현대미술관의 레지던시 사업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운영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작가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된 작업공간과 편리한 작업여건 제공 · 국내외 미술작가 및 미술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창작의 계기를 모색하고 서로 연계될 수 있는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 및 지원 · 일반 대중과 현대미술이 함께할 수 있는 미술문화공간으로서의 입지 구축 	
입주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스튜디오 1실, 옥외 공동 작업장, 편의시설(커뮤니티룸, 샤워실 등) 제공 ※ 인터넷, 전기, 수도 사용료 무료이며, 작품 활동을 위한 재정지원은 없음 	
주요 프로그램	창작활동 지원	오픈스튜디오, 입주작가 전시회, 워크숍 등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국제교환입주, 국제일반입주, 국제교류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
	기타 프로그램	교류 및 인적 인프라 확대, 문화탐방, 프로젝트팀 지원 등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4

레지던시는 현재 창동, 고양 등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단기 6개월, 장기 12개월로 구분되어 있다²¹⁾. 입주자격은 스튜디오 입주경력이 없는 만 25세 이상의 국내의 미술작가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 스튜디오 입주경력이 없고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미술 작가로 추천을 통해 선정된 자 등이 해당된다²²⁾.

한편, 국립현대미술관은 창동과 고양 레지던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입주 작가들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작가들에게 새로운 작업동기를 부여하고자 2005년부터 ‘국제교환입주

19) 사업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있다.

20)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에서 예술가를 위한 창작공간을 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기존의 문화예술정책이 문화시설 건립과 운영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 직접 예술가를 지원하는 쪽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가의 창작여건 활성화와 한국 현대미술의 국제화를 위해 2002년 창동 창작스튜디오와 2004년 고양 창작스튜디오를 설립하였다.

21) 입주기간 중의 활동성과, 프로그램 참여도, 향후 프로그램 기여 가능성 등에 따라 최대 1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22) 공모와 추천 등을 통해 입주가 확정된 작가들은 스튜디오 사용에 있어 매월 10일 이상 개인 작업실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미술관은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국내외 미술 관계 인사 등에게 스튜디오 홍보를 위해 필요시 작업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²³⁾. 또한, 창작연구 및 학술교류를 위해 국내외를 무대로 활발히 활동하는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초청하여 작가들과 작품 활동을 공유하고 그 밖에 강연, 아트포럼, 워크숍, 세미나 스튜디오 탐방 등을 진행하고 있다²⁴⁾.

〈표 2-8〉 국립현대미술관의 레지던시 시설

구 분	창동 레지던시	고양 레지던시
대지면적	1,495㎡	4,099㎡
건물면적	1,497㎡ (1층-730㎡, 2층-705㎡, 지하-60㎡)	2,400㎡ (1층-1,223㎡, 2층-1,018㎡, 지하-158㎡)
주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튜디오 9실 (2실-46㎡, 3실-55㎡, 4실-60㎡) · 옥외작업장(191㎡), 전시실 I(132㎡), 전시실 II(105㎡) · 커뮤니티룸(40㎡), 게스트룸(20㎡), 프로젝트 작업실 2실(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튜디오 21실 (10실-66㎡, 11실-61㎡) · 옥외작업장(320㎡), 공동작업장(목공/금속공 110㎡), 전시실 (132㎡), 커뮤니티룸(66㎡), 게스트룸 (66㎡)
기타시설	· 사무실, 휴게공간, 식당, 샤워실, 주차장 등	· 사무실, 휴게공간, 샤워실, 주차장 등

자료 : <http://www.mmca.go.kr/>

23) 2005년부터 시행된 ‘아시아 작가 초청 프로그램(Asia Artists Fellowship Program)’은 유럽 및 아시아 등지의 우수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스튜디오 교환입주를 지원하고, 아시아의 한류문화를 지속성장시키기 위한 문화정책의 일환이다. 이후 2008년부터는 ‘아시아퍼시픽 작가 초청지원 프로그램(Asia Pacific Artists Fellowship Program)’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하여 입주작가를 선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1994년부터 UNESCO 국제문화진흥기금을 통해 운영되어 온 ‘유네스코 아쉬버그 장학연수 프로그램(UNESCO Aschberg-Bursaries for Artists)’에 2006년 한국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 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시각예술 분야에서 외국작가 2~3명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24) 「오픈 스튜디오」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가장 중심이 되는 연례행사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작가들은 입주기간 동안의 작업성공과를 미술계 및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더불어 입주 작가들의 작업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며, 입주 작가와 전문가,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작가 프로모션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 전시 및 행사, 문화탐방, 지역연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2)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관련 정책

(1) 서울시 창작공간 조성사업²⁵⁾

이 사업은 서울시 도심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으로서, 시내의 낡고 버려진 공간을 재활용하여 예술가들에게는 창작공간을 시민에게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문화향유의 공간 제공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예술가-시민-도시를 위한 창의의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이 정책의 목표이다.

〈표 2-9〉 서울시 창작공간 운영현황

구분	시설현황	개관일	운영방향
금천 예술공장	· 위치 금천구 범안로15길57 · 연면적 3,070㎡ · 주요시설: 스튜디오, 강당, 공동작업장, 미디어랩, 식당	‘09.10	· 글로벌 미학과 로컬의 지역성을 실험하는 국제 레지던시 -국제 레지던시 스튜디오, 프로젝트 스튜디오
신당 창작 아케이드	· 위치: 중구 마장로 87 · 연면적: 5,057㎡ · 주요시설: 공방 40실, 공동작업장, 전시실, 아트마켓	‘09.10	· 재래시장 속 공방촌으로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공예창작 활성화 -저렴한 비용에 장기임대가 가능한 창작공예공방
연희문학 창작촌	· 위치: 서대문구 증가로 2길 6-7 · 연면적: 1,480㎡ · 주요시설: 집필실, 문학미디어랩, 세미나실, 야외무대	‘09.11	· 서울시 최초의 문학인 전용 집필촌으로서 문학 창작활동 집중지원 -도심 속 전원형 문학창작촌
문래 예술공장	· 위치: 영등포구 경인로 88길 5-4 · 연면적: 2,832㎡ · 주요시설: 박스씨어터, 공동작업장, 녹음실, 호텔 9실, 세미나실	‘10.01	· 자생적 예술마을인 문래창작촌 및 국내외 예술가들의 창작지원
서울무용 센터	· 위치: 서대문구 명지2길 14 · 연면적: 2,044㎡ · 주요시설: 무용연습실, 스튜디오, 커뮤니티룸, 예술가의 방, 야외마당	‘10.12	· 예술지원사업/최초지원, 유망예술지원, 작품지원,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
잠실창작	· 위치: 송파구 올림픽로 25	‘07.10	· ‘장애’가 ‘개성’이 되는 장애예

25)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추진단TFT는 2009년 ‘유휴공간을 활용한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 전략보고서’를 통해 서울시 창작공간 조성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스튜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512.6㎡ · 주요시설: 개별 작업공간, 다목적 전시장, 휴게실, 공동작업장 		술인의 창작 거점
서울연극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종로구 대명길 3 · 연면적 : 593.9㎡ · 주요시설: 공연홍보갤러리, 도서자료실, 아카데미룸, 세미나실 	'0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로 연극의 발전을 위한 지원 (연극창작지원, 관객개발, 정보서비스 제공)
서교 예술실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마포구 잔다리로 6길 33 · 연면적 : 551.5㎡ · 주요시설: 스튜디오, 전시장, 아카이브룸, 다목적 공간, 옥상 공방 	'09.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대지역의 다양한 문화생태계를 잇는 네트워크의 중심공간
성북 예술치유허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성북구 종암동 28-358번지 · 연면적: 1,997㎡ · 주요시설: 주민창작실 2실, 스튜디오 7실, 카페, 다목적실 	'1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치유와 시민창작중심의 복합문화공간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관악구 은천로 10길 3 · 연면적: 403㎡ · 주요시설: 프로젝트 놀이터, 책놀이터, 자유놀이터, 야외놀이터 	'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의 창의력 개발을 위한 예술창작공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광진구 아차산로 719 · 연면적: 1,989㎡ · 주요시설: 제작실, 연습실, 영상제작실, 야외마당 	'15.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예술 베이스캠프로서 제작, 연습, 교육, 배급지원

자료 : 서울문화재단, 2015, 서울문화재단 연차보고서, p.111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주 : 자료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분류된 시민정, 공연장인 남산예술센터, 연습공간인 대학로연습실, 남산창작센터는 분류에서 제외하였음

2009년 이후 개관된 11개의 창작공간은 각각 고유한 미션과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소재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다. 자생적 예술마을인 문래예술창작촌을 지원하고자 계획된 문래예술공장은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와 유사한 대표적 사례이며, 홍대지역의 다양한 문화생태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써 운영되고 있는 서교예술실험센터, 옛 인쇄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작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국제교류, 해외작가교환 등을 진행하는 금천예술공장이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공예창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신당 창작아케이드, 서울의 최초 문학인 전용 집필촌인 연희문학창작촌도 운영되고 있다. 성북구보건소 건물을 활용하여 예술치유와 시민창작중심의 문화공간으로 조성된 성북 예술치유허브, 은천동사무소(현 주민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어린이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난 관악어린이 창작놀이터가 그 사례들이다.

(2) 경기도 경기창작센터²⁶⁾

경기창작센터는 안산시 단원구의 옛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를 리모델링하였는데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작공간으로서 2009년 10월 개관하였다.

부지면적 54,545㎡, 건물면적 16,225㎡에 총 7개 동의 건물로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림 2-4〉 경기창작센터 시설

			
① 창작 스튜디오 I	② 창작 스튜디오 II	③ 창작 스튜디오 III	④ 섬마루홀
숙박시설			편의시설
1층: 아파트형 숙박시설 2층: 커뮤니티룸, 직원숙소 3~4층: 입주 작가 스튜디오	1층: 세미나실, 전시실, 커뮤니티룸, 아카이브실 2~3층: 입주 작가 스튜디오	1층: 직원숙소 2층: 원룸형 숙박시설, 공동부엌 3층: 원룸형 숙박시설 4~5층: 입주 작가 스튜디오	1층: 식당(300명 수용) 2층: 강당(350명 수용)
			
⑤ 창의예술동	⑥ 공방동	⑦ 전시사무동	⑧ 야외
교육시설		전시사무	부대시설
1층: 창의예술 체험전시장 2층: 교육실, 열린 아틀리에 3층: 교육실, 재료실	1층: 소목공, 대목공, 재료실 2층: 이론교육실, 다목적교육실, 기자재실 3층: 미디어공방, 판화공방, 재료실	1층: 상설전시장, 기획전시장, 대부역사관, 아트키예 2층: 사무실	전디운동장, 야외공연장

자료: <http://gcc.ggcf.kr/information/facilities>

2009년 1단계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중앙동, 숙소동, 작품창고동이 완비되었으며 총 28개의 스튜디오를 갖추게 되었다. 2차 리모델링(2012년 완공)을 통해 36개의 협력스튜디오 및 공방, 전시실, 교육공간, 다목적 홀을 갖추고 있다.

경기창작센터의 대표적인 사업은 예술가 창작레지던시로서 시각예술, 공연예술, 창작활동

26) 경기창작센터 홈페이지(<http://gcc.ggcf.kr/>)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을 영위하는 국내외 작가와 관련 연구자들을 위한 창작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입주기간 동안 예술가들의 창작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 강연, 워크숍 등 다양한 창작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입주 예술가 선발은 공개모집, 초청, 기관 협력, 교류 등에 의해 이루어지며, 입주 기간 또한 3개월부터 2년까지 다양하다.

(3) 인천시 인천아트플랫폼²⁷⁾

인천아트플랫폼은 舊일본우선주식회사(등록문화재 제248호)를 비롯한 근대 개항기 건물 및 1930~40년대에 건설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창작스튜디오, 공방, 자료관, 교육관, 전시장, 공연장 등 총 13개 동의 규모로 조성되었다.

플랫폼 내에는 창작스튜디오와 전시, 교육 등 여러 문화예술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예술가들은 시각, 설치, 영상, 공연, 이론, 비평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예술가들을 정기공모로 선정한다.

〈표 2-10〉 인천아트플랫폼의 역할과 기능

구분	사업 내용	비고
예술 창작 발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장르에 예술 창작 환경 및 프로그램 지원 · 국제 예술가 프로모션 역할 담당 및 신진 예술가 발굴 지원 	
국제 네트워크 형성의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예술 전문인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창조적 예술 교류 촉진 · 해외 유관 기관과의 문화예술교류 및 국제 협력 관계 구축 	
시민문화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 프로그램(시민참여형 전시, 공연, 대안 예술) 강화를 통한 대안적인 문화공간 구축 · 시민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화 및 문화매개자 양성 	
지역문화 활성화에 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의 도시 특수성을 부각시키는 기획행사 발굴 및 개최 · 문화와 예술창작활동을 통해 인천의 구도심 재활성화 	

27) 인천아트플랫폼 홈페이지(<http://www.inartplatform.kr/>)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입주 작가들에게는 창작공간과 같은 물리적인 지원과 함께 창작 및 홍보지원이 이루어진다. 창작공간으로는 스튜디오 또는 게스트 룸 1실, 공동 작업 공간, 미디어랩실, 아카이브 공간 등이 제공되며, 창작과 관련된 지원으로서 프리뷰전, 오픈스튜디오, 공연, 협업 프로젝트(입주 작가 2팀 이상이 협업하는 프로젝트), 플랫폼 살롱²⁸⁾, 지역 연구 리서치(강연, 투어), 이론가 매칭 프로그램(타 장르) 등 입주 작가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입주 작가가 강사가 되어 학생들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자원봉사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28) 인천 아트플랫폼은 레지던시 프로그램 외에도 지역주민들의 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인천 아트플랫폼은 입주 작가들 간의 교류, 작가와 관람객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하여 ‘플랫폼 살롱’이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매주 한두 명의 작가가 자신의 스튜디오 및 인천아트플랫폼의 공간에 손님을 초대하여 작품을 소개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자리이다. ‘플랫폼 살롱’은 인천 시민들을 만나고 인천의 지역성을 연계하고 싶다는 입주 작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세계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지역주민들은 예술가와의 친근한 만남을 통해 지역과 예술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4) 대구예술발전소²⁹⁾

대구예술발전소는 원래 KT&G³⁰⁾ 별관 창고 건물이었다. 별관창고의 규모는 지상 5층, 지하 1층로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부지면적 4,613㎡(1,395평), 연면적 12,150㎡(3,675평)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였다.

그러나, 산업 쇠퇴로 주변지역이 침체됨에 따라 도시성장의 선진적 사례를 만들고자 하는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2008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공모사업’의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2012년 8월 준공 후 201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1~2층에는 회화, 조각, 뉴미디어, 건축 등 다양한 전시가 가능한 전시공간과 카페테리아가 마련되었고, 3층에는 영상, 음향, 무대조명 시스템을 갖춘 약 120석 규모의 공연장,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 스페이스, 예술정보실 등이 있고, 옥상에는 실외전시 및 리셉션 등 다목적 공간이 조성되었다.

4~5층에는 19개의 창작스튜디오가 있는데 이곳에 지역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입주해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는 음악·퍼포먼스 등 설치예술을 하는 다원예술교류연구회 ONENESS, 대구현대무용단, 어린이 마술을 연구하는 매직메이커, 퓨전 국악그룹 이어랑, 프로젝트 무용그룹 WE DANCE, 드로잉팀, 보루스팀과 김민수·김영규·김재욱·김지구·류현정·안한들·이선규·장재철·전우익 미술작가 등이 입주해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스튜디오의 특징은 작업실을 개방해 일반시민들이 언제나 구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작품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대구에서 유일한 장소다.

대구예술발전소에 입주해 있는 작가들은 매주 토~일요일에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주일 단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드로잉, 국악기 체험, 카바레티스트, 즐거운 책만들기,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미술치료, 즉흥무용놀이, K-POP 댄스, 설치미술 워크숍, 캐리커처 등 다양하게 운영된다.

29) 박종문, 대구예술발전소, 대경포럼 통권 제87호 (2014년 여름) pp.40-43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30) 대구 KT&G 연초제조창은 일제 강점기에 건립된 국내 최초의 연초 제조공장으로, 1996년 공장이 폐쇄될 때까지 담배 산업의 중추적인 시설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전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신산업 육성이 실패하면서 침체를 겪게 되었다. 특히 구도심지역인 KT&G 시설 주변은 도심공동화가 심화되어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침체지역이 되었다.

(5) 밀양연극촌³¹⁾

밀양연극촌을 운영하는 연희단거리패는 1986년 부산에서 창설된 후, 이운택 예술감독을 주축으로 한국적 연극과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는 극단으로 알려져 있다. 극단의 명성과 더불어 작품의 규모 및 인력규모가 커지자 작업공간을 확대하고자 했는데, 밀양시가 폐교된 밀양 월산초등학교 부지의 무상 임대를 제안하였다. 교사와 부지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공과금과 기본 운영 경비는 연희단 패거리패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1999년 9월 1일, (구)월산초등학교의 약 5천평 부지는 밀양연극촌으로 재생되었다. 연극촌은 야외공연장, 공장형 실내극장, 사설구조의 극장, 단원들의 합숙시설, 연극제작을 위한 기반시설, 방문객 편의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밀양연극촌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지원을 통한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 초기 정착 당시 무상임대로 지원을 시작하여, 연극촌이 성장하면서 2003년 이후에는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즉, 공연예술분야의 공동거주 창작작업실 운영,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주말극장 운영, 공연예술유통의 확대 및 지역 브랜드 강화를 위한 밀양 여름예술공연축제 등의 프로그램 운영 등이 그것이다.

밀양예술촌의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공연예술 분야에서 보기 드문 공동 거주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공연예술분야의 기획, 연습, 제작, 발표, 재교육의 시스템이 동일한 공간에서 진행된다는 점은 공연예술계의 새로운 제작시스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둘째, 축제의 양적 확장을 통해 지역경쟁력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했다. 축제의 언론노출은 밀양시의 홍보효과로 연결되어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이 확장되고 축제의 질이 향상되었다. 밀양연극제가 3회부터 국제 연극팀들이 참가함으로써 국제연극제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 역시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셋째, 공연예술의 새로운 유통망으로서 아트마켓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밀양연극촌은 지자체의 지원과 실험적인 축제의 성향에 맞물려 젊고 유능한 예술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호평을 받는 사례가 등장했다. 이중 몇 작품은 밀양에서 배출되기도 하였다. 넷째, 민·관의 효율적인 업무분담의 선례를 보여주며 밀양이 지역브랜드로서 ‘한국의 아비뇽’이라는

31) 연희단거리패(www.stt1986.com) 홈페이지 및 남희주, 2009, 「폐공간 활용 예술공간 연구: 창작-향유-유통-재생산의 선순환 구조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평판을 획득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밀양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의 역할과 지역 커뮤니티와의 모범적 관계를 설정하였다. 문화예술소비자로서 거리가 멀었던 밀양지역민을 관객이자 다양한 문화행동의 주체로 이끌어 내었다. 주말극장을 찾는 관객들 중 상당수는 처음 예술을 접해 보는 지역민이 차지하는 등 지역민에게 새로운 여가활용지로 정착되었다.

(6) 제주 가시리 창작지원센터³²⁾

제주도 서귀포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가시리 창작지원센터를 2010년 8월에 개관했다. 창작지원센터에서는 예술인들에게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입주 예술인에게는 월 80만원의 생활 지원비와 창작활동비를 지급하는 대신 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혹은 마을 내에서의 커뮤니티 아트 활동을 의무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다.

가시리 창작지원센터는 입주작가 공모 시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자연생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작가, 둘째, 지역과 마을이 가지고 있는 역사, 신화, 심리구조 등 제주의 역사 및 가시리 마을의 현재에 대해 인문학적 예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작가, 셋째, 마을의 공간적 문제, 교육적 고민, 공공적 이슈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예술적 방법론이 있고, 이를 통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작가이다.

이 센터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개인 작업이나 협업 작업을 통해 작품을 생산하는 창작기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마을의 문화지형도를 만들고, 주민들의 문화적 삶을 고양시키는 문화발전소의 역할을 겸비하고 있다. 가시리 창작지원센터가 추구하는 마을레지던시는 예술인이 마을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가시리 창작지원센터는 공공재원으로 예술인의 입주공간과 체재비, 지역과 마을에 대한 탐구작업을 지원한다. 예술가는 경관 예술, 예술 치유, 마을 프로젝트, 커뮤니티 프로그램, 예술 교육을 기획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주민은 문화와 예술을, 예술가는 식량과 창작환경을 얻게 되어 문화적인 귀촌(歸村)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32) 김은아, 2011, 유희공간 활용 창작공간의 프로그램 연구, pp36-37 및 이지원, 2016, 제주 가시리 마을의 문화교육을 통한 농촌지역활성화 연구, pp49-54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

현재까지 레지던시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인들이 거주하며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가시리 창작지원센터는 ‘어린이 영화교실’, ‘등공예교실’, ‘어린이 방송교실’, ‘가시리, 말그림 그리기 대회’, ‘벽타기 프로젝트’, ‘어린이 자연스케치 탐험대’의 문화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가시리 목공방에서 진행된 문화교육으로는 ‘목공교실’이 있다.

3.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관련 현황 및 실태

1) 문화예술인, 단체 및 기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1) 충남 문화예술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5 예술인 실태조사’에 보면 현재 충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은 2,934명(전국 131,332명 중 2.2%를 차지)으로 파악되고 있다³³⁾.

분야별 예술인을 분포를 보면 미술과 국악분야가 가장 많고, 국악, 연극, 음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1〉 충남 문화예술인 분야별 활동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국		충남		비고
	예술인수	분야별 비율	예술인수	분야별 비율	
합계	131,332	100.0%	2,934	100.0%	
문학	19,381	14.8%	495	16.9%	
미술	39,393	30.0%	1,052	35.9%	
공예	1,582	1.2%	48	1.6%	
사진	1,200	0.9%	29	1.0%	
건축	2,853	2.2%	39	1.3%	
음악	5,970	4.5%	135	4.6%	
대중음악	11,578	8.8%	98	3.3%	
국악	5,870	4.5%	286	9.7%	
무용	6,364	4.8%	62	2.1%	
연극	15,744	12.0%	255	8.7%	
영화	3,548	2.7%	19	0.6%	
방송	5,840	4.4%	41	1.4%	
만화	1,488	1.1%	32	1.1%	
기타	10,521	8.0%	343	11.7%	

33)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49,317명(37.6%), 경기 25,014명(19.0%)로 전국 문화예술인의 56.6%가 서울, 경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민간 전문예술법인·단체

충남 문화예술 민간단체에는 대표적으로 (사)한국예총, 문화원, 전문예술법인·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있고 그 외 일반 문화예술 단체가 있는데 전체를 통계적으로 파악한 자료는 없다. 다만, 2014년 출범한 충남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가한 단체 현황을 보면, 충남에는 약 402개의 단체가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천안 95개, 공주 36개, 아산 35개, 서산 34개, 홍성 28개, 예산 23개, 당진 21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규모에 비교하여 공주, 홍성, 예산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분야별로는 전통예술 103개, 시각예술 108개, 음악 58개, 문학 58개, 연극 3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2〉 충남 문화예술 활동에 근거한 민간예술단체 현황

(단위 : 개)

구분	충남합계	전통예술	문학	시각예술	무용	연극	음악	다원예술
충남합계	402	103	58	108	13	34	58	28
천안시	95	19	13	21	3	6	27	6
공주시	36	7	6	14	1	4	2	2
보령시	34	2	7	20		3	2	
아산시	35	12		9	1	5	3	5
서산시	34	13	6	6	1	5	1	2
논산시	19	8	2	3	1	2	1	2
계룡시	14	3	4	4	2		1	
당진시	21	2	5	10		2		2
금산군	12	5		4			3	
부여군	21	11		3	4		3	
서천군	14	5	4	1			2	2
청양군	8	1		4		3		
홍성군	28	4	5	5		1	8	5
예산군	23	6	5	2		3	5	2
태안군	8	5	1	2				

자료 : 충남문화재단에서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표 2-13〉 (사) 한국예총 충남도 연합회 지역별 장르별 활동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악	문인	미술	무용	연극	음악	연예	사진
합계	4,505	1,689	543	677	85	183	492	551	285
천안지부	558	50	110	140	21	30	76	101	30
공주지부	364	61	56	109	-	30	28	50	30
보령지부	714	480	30	53	15	18	47	50	21
아산지부	301	59	30	43	33	20	39	50	27
서산지부	304	87	35	48	-	20	40	50	24
논산지부	212	41	28	36	-	-	26	50	31
계룡지부	238	50	35	29	16	-	44	50	14
당진지부	474	350	30	32	-	15	30	-	17
금산지부	136	50	33	20	-	-	17	-	16
부여지부	279	120	22	45	-	-	16	50	26
서천지부	165	70	31	34	-	-	15	-	15
청양지부	0	-	-	-	-	-	-	-	-
홍성지부	225	56	26	33	-	20	21	50	19
예산지부	301	130	32	25	-	30	69	-	15
태안지부	234	85	45	30	-	-	24	50	-

(3)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으로 분류되며, 예술과 관련된 업종으로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이 관련된다.

충남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는 예술서비스업 2개, 교육서비스업 2개, 일반협동조합으로는 예술서비스업 23개, 교육서비스업 4개 등 총31개의 협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비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공헌, 지역주민권 증진 등의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하게 되어있는 비영리적인 성격의 단체로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단체로 충남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보부상난전놀이’, ‘자연의소리’가 있었다.

〈표 2-14〉 문화예술 관련 협동조합 현황

협동조합명	인가일	소재지	업종	조합유형
보부상난전놀이사회적협동조합	15.07.22	예산	예술 관련 서비스업	사회적
자연의소리 사회적협동조합	15.06.10	공주	예술 관련 서비스업	사회적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	16.07.13	아산	교육 서비스업	사회적
사회적협동조합다물	15.05.26	보령	교육 서비스업	사회적
한국전통악기제작공연기획협동조합	16.04.19	공주	예술 관련 서비스업	일반
금산농촌관광협동조합	16.03.21	금산	예술 관련 서비스업	일반
안단테음악협동조합	16.03.09	서천	예술 관련 서비스업	일반
대한숲해설가협동조합	15.12.31	서산	예술 관련 서비스업	일반
국선교육 협동조합	15.12.31	공주	예술 관련 서비스업	일반
태원협동조합	15.12.21	태안	예술 관련 서비스업	일반
문화공감협동조합	15.12.21	논산	예술 관련 서비스업	일반
행복여행디자인협동조합	15.10.12	공주	예술 관련 서비스업	일반
충남전통예술협동조합	15.10.12	예산	예술 관련 서비스업	일반
공예협동조합 해울	15.09.30	서산	예술 관련 서비스업	일반
적정문화공작소협동조합	15.07.26	서천	예술 관련 서비스업	일반
금산시티투어협동조합	15.07.09	금산	예술 관련 서비스업	일반
폰테뮤직협동조합	15.06.30	천안	예술 관련 서비스업	일반
충남문화콘텐츠협동조합	15.05.01	천안	예술 관련 서비스업	일반
지역문화예술위산천비협동조합	15.04.14	아산	예술 관련 서비스업	일반
추사문화협동조합	15.03.02	예산	예술 관련 서비스업	일반
아산문화관광진흥협동조합	15.03.02	아산	예술 관련 서비스업	일반
충남문화예술협동조합	15.02.13	천안	예술 관련 서비스업	일반

논산공예협동조합	13.12.10	논산	예술 관련 서비스업	일반
지역문화예술협동조합	13.09.05	아산	예술 관련 서비스업	일반
충남다원예술협동조합	13.08.28	천안	예술 관련 서비스업	일반
우리역사문화협동조합	13.08.22	천안	예술 관련 서비스업	일반
협동조합 금산민속예술보존회	13.07.26	금산	예술 관련 서비스업	일반
초록별교실협동조합	15.03.06	당진	교육 서비스업	일반
미디어교육 협동조합 미디그램	14.12.16	서산	교육 서비스업	일반
협동조합 충남농어촌학생문화예술교육센터	14.10.10	홍성	교육 서비스업	일반
글과나무 협동조합	14.10.07	보령	교육 서비스업	일반
충남전통예술강사협동조합	14.04.29	예산	교육 서비스업	일반
우리놀이협동조합	13.08.22	공주	교육 서비스업	일반
예술마당협동조합	13.03.18	아산	교육 서비스업	일반

자료 : 협동조합(<http://www.coop.go.kr/COOP/state/guildEstablish.do>) 홈페이지 자료 분석

(4) 사회적기업

충남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과 관련된 인증 사회적기업은 총1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예술과 관련된 사회적기업으로는 전통예술단 “흔”, 자연의소리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다. ㈜드림엔젤린지의 경우에는 사내에 다양한 봉사팀이 있는데 이중 뮤직팀이 구성되어 뮤직코칭, 기획·공연, 음반 및 영상제작, 공연지원, 소년소녀합창단/오케스트라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역사유산을 배경으로 한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해미읍성역사보존회, (사)한옥체험업협회가 있다. 관광에 문화와 예술을 접목하여 운영하고 있는 알프스마을영농조합법인의 경우는 겨울철 눈과 얼음을 소재로 한 조형물을 만들어 성과를 얻고 있다.

〈표 2-15〉 문화예술 관련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

기관명	시군	주요 사업내용	주력사업		업종분류
			대분류	중분류	
㈜드림엔젤린지	천안	뮤직카페, 그린이벤트, 여행 등	문화	문화, 예술	문화
전통예술단“흔”	서천	공연, 문화예술교육, 해외문화 교류	문화	문화, 예술	문화, 예술
(사)해미읍성역사보존회	서산	전통난장 공연, 전통혼례, 궁도 체험	문화	문화, 예술	문화재
한산모시조합	서천	한산모시생산, 가공	생활용품	인테리어 용품	기타

(사)한옥체험업협회	논산	전통문화 체험, 공연, 기획	문화	관광, 체험	문화, 예술
알프스마을영농조합 법인	청양	알프스마을축제	문화	관광, 체험	문화, 예술
(주)한길코리아	천안	이벤트행사 기획, 진행	문화	문화, 예술	기타
(주)주얼테크	공주	백제문화상품, 액세서리	생활용품	패션잡화	기타
충남공예협동조합	공주	공예품 전시판매	생활용품	인테리어 용품	기타
(주)닝쿨	서산	공예재료 판매 및 공예교육	생활용품	가정용품	기타
(주)열린문디자인	아산	광고디자인서비스 및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기업용품	출판, 인쇄	기타
자연의소리사회적협 동조합	공주	자연미술 국제교류, 자연미술 교육, 문화예술 기획	문화	문화, 예술	문화, 예술
풀담문화공동체협동 조합	아산	카페운영, 음식판매, 공예품제 조, 강사양성	교육	전문교육	교육

2) 문화예술인 마을 및 창작촌

충남지역에 문화예술인 마을이 구성되어 있는 곳은 공주시 반포면의 계룡산도예촌이 있다. 계룡산도예촌은 5,400여평 규모에 대학에서 도예를 전공한 30대에서 40대 초반의 젊은 도예인 15명이 뜻을 모아 형성한 공동체 마을이다³⁴⁾. 1993년 입촌한 이후 꾸준한 작품 활동과 도자기 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12가구에 도예가들이 활동하고 있다³⁵⁾.

계룡산도예촌 이 외에는 충남지역에 예술인 마을이 아직 없으나 내포신도시 내에 다큐멘터리 영화감독들이 거주하는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3) 창작스튜디오 및 레지던시 사업

창작스튜디오 조성을 통한 창작공간 지원정책은 경기침체로 창작환경이 열악해진 시각예술가들에게 작업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1997년부터 시작되었고, 이후에는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³⁶⁾한 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이 추진되었다.

34) 송희정, 2001, 도시근교 전원주택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p27.

35) 김서령, 2007, 도자기를 사랑한 이들 계룡산 자락에 생을 풀다 : 충남공주 계룡산도예촌, 한국농어촌공사, p34.

전국적인 대표 사례로서는 원주 문막의 후용공연예술센터, 화성의 창문아트센터, 오궁리 예술촌 등의 공간은 주민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운영되고 있다³⁷⁾.

한편, 2007년에는 공간의 지원보다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프로젝트형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2008년 이후 창작스튜디오 관련정책은 예술가들의 창작여건 조성 뿐 아니라, 지역 및 도시재생, 창조도시, 지역주민에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참여라는 기대 하에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표 2-16〉 폐교 활용 국내 초기 창작스튜디오 운영 주요 사례(2011년 이전)

지역	명칭	주체	내용
경기	창문아트센터레지던시	사립 자생적	구 창문초교 폐교활용
충남	논산예술창작스튜디오	국공립/논산시청	구 양촌초교 폐교활용
충북	자계예술촌	사립/극단 터	용화면 소재 폐교 활용
강원	쌈지노우 아트레지던시	사립/쌈지농부	구 와야분교 폐교활용
	시골마을예술터밭	국공립/극단 뛰다	구 화천폐교 활용
	후용공연예술센터	사립/극단노들	구 후용초교 폐교활용
경북	가창창작스튜디오레지던시	국공립/대구문화재단	구 다초초교 폐교활용
	금수문화예술마을	사립/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회	구 금수초교 폐교활용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국공립/구미시청·문체부	구 대방초교 폐교활용
경남	남해 국제 탈 공연예술촌	공립남해군청	구 다초초교 폐교활용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레지던시	공립/김해시청	구 이작초교 폐교활용
	밀양연극촌	공립사립/연희단거리패·밀양시청	구 월산초교 폐교활용

주: 본 자료는 2012년 기준으로서 여건에 따라 2015년 현재 사업이 중단된 곳이 있음

참조: 김연진, 2013, 창작스튜디오 현황 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p32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하여 재정리함

36) 팔각정 스튜디오(광주)를 시작으로 창동스튜디오(국립현대미술관), 고양창작스튜디오,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서울시립미술관) 등이 대표적이다.

37) 하지만, 폐교를 활용한 창작스튜디오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면서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속출했다. 첫째, 도심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입지적 조건으로 인해서 예술가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둘째,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이지 않아 교육부와의 임대료 등을 내지 못해 운영을 포기하기도 했으며, 셋째, 지역적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예술가들이 주민들과 마찰로 인해 공간을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농어촌 지역의 폐교창작스튜디오들은 지역주민들의 오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외롭게 싸워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넷째로는 시설이 노후 되어 수리와 보수에 따르는 경비, 절차 등의 문제로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했다.(자료: 백기영, 복합문화공간형 2세대 창작 스튜디오로, [특집]공공기관 창작공간의 현황과 운영 ①창작공간의 전개와 흐름)

최근 충남지역에서 운영된 창작스튜디오와 레지던시 운영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7〉 충남 창작스튜디오 운영 현황

명칭	위치	운영주체	분야	프로그램
야투 자연미술의 집 창작공간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산26-3	사단법인	자연미술	-야투 국제 레지던시 -한해 평균 15명의 외국인이 방문체류하며 작품창작 등의 교 류를 함
서해미술관 (폐교 부남분교)	서산시 부석면 무학로152-13	개인	다원예술	-정태궁 화가의 개인작업실 및 동료 예술인들의 창작공간
서산창작예술촌 (폐교중앙분교) -구안견창작 스튜디오	서산시 지곡면 중앙리 244	서산시 문화관광과	생활문화 예술	-작가 전시 -창작스튜디오는 없고 지역주민 들을 위한 서예수업, 도자기, 전각체험 프로그램 운영
모산조형미술관 WCAS레지던시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673-24	모산조형 미술관	현대미술	-보령의 오석을 이용한 작가작품 창작지원 및 전시 -숙소/주방, 전시실, 공용작업 실, 휴게공간 제공

〈표 2-18〉 15~16년 충남문화재단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사업 현황

년도	단체명	프로그램	지원액(천원)
2016	4개 단체 합계		180,000
	모산조형미술관	WCAS 레지던시 프로그램	50,000
	홍성문화관	무한천과 플라타나스가 있는 문학	20,000
	(사)한국자연자술가협회	야투자연 미술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	50,000
	에콜 드 아미	에콜드아미 레지던시 프로그램	60,000
2015	4개 단체 합계		240,000
	에코 아트 인큐베이팅 자람	2015년 파트너를 만나다	55,000
	문화연구소 길	홍성창조시장 입주예술가 프로그램	60,000
	(사)한국자연미술가협회	2015 충청남도 레지던시 프로그램	65,000
	에콜 드 아미	야투 자연미술 국제 레지던시	60,000

자료 : 충남문화재단 제공

4) 소결

충남의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와 관련된 현황으로서 충남도 차원의 충남 문화예술인이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보면, 충남에는 약 2,934명의 예술가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의 활동상태나 관계에 대해 조사된 것은 없었다.

예술인 클러스터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기본조사와 동시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 대해 함께 조사한 결과 협동조합은 총31개(사회적 협동조합³⁸⁾ 4개, 협동조합 29개)가 있었으며, 조사결과 자연의소리, 보부상난전놀이 등은 문화예술인 클러스터가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다.

사회적기업은 총14개가 활동 중에 있는데 이 중 자연의소리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같이 영위하였고, 전통예술단혼이 서천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과 관련된 정책에는 문화예술인 마을 및 창작촌, 창작스튜디오 및 레지던시 사업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 추진된 정책은 없었다.

문화예술인 마을이 정책적으로 조성된 사례는 없고, 자생적으로 형성된 계룡산도예촌이 도예인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고, 최근 내포신도시 내에 조성 예정인 다큐멘터리 영화감독들이 거주하는 독스빌리지의 조성은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창작스튜디오나 레지던시 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술인 클러스터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이모작 사업과 연계하여 홍성전통재래시장에서 추진된 레지던시 사업이 홍성에 문화예술인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한국자연미술가협회’, ‘에폴 드 아미’는 15-16년에 지속적으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금강비엔날레 개최, 자연의소리협동조합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내부에 예술인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38)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문화예술인 클러스터가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4.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사례조사

1) 개요

문화예술은 문화와 예술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를 넘어 지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사례조사 대상은 문화예술인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고 소개된 곳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과 공동체의 연계, 문화예술인들의 인적 네트워크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구현되는 곳으로 선정하였다.

조사 목적은 문화예술인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성과를 살펴보고 정책 방향에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따라서 목적에 부합하는 사례대상을 문헌고찰, 선행연구자료 검토를 통해 선정하였다.

사례대상 선정기준은 첫 번째 문화예술인 클러스터가 존재하며 관련된 성과를 보기에 용이한 지역이다. 두 번째 기준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예술가인 집적되어 있어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존재가 검증된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에 중요한 요소인 교류와 활동이 명확히 나타나는 지역이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국내사례로는 광주 대인예술시장, 부산 또따또가, 국외사례로는 영국 이스트엔드(East End)와 Acme 스튜디오, 일본 요코하마(横浜) 문화예술창조도시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국내사례의 경우 기존 연구자료 검토, 현장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하여 하였고, 국외사례는 연구의 한계 상 문헌자료, 관련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2) 국내사례 - 광주, 부산

(1) 광주 대인예술시장

가. 개요

대인예술시장³⁹⁾은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에 위치한 대인시장이 고속버스터미널과 도청이 전으로 쇠퇴하면서 시장의 상권 회복을 위해 예술가들이 뜻을 모아 2008년 대인시장 살리기 사업부터 시작되었다. 광주비엔날레에서는 ‘복덕방 프로젝트⁴⁰⁾’라는 이름으로 시장의 빈 가게들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재래시장 안에 예술품 전시공간이 마련되는 특이한 결과를 낳았다. 그 후 일부 작가들이 비엔날레가 끝난 뒤에도 점포를 계속 임대하면서 ‘대인예술시장’은 시작되었다. 2010년의 ‘느티나무 숲 프로젝트’는 35명의 상주작가와 상인이 주축이 되어 문화를 통해 시장활성화와 문화공간 만들기가 추진되었고, 이후 예술가들이 점차 집적되어 현재 약 50여명의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대인예술시장은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사업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대인시장의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 광주광역시와 문화관광부, 민간단체의 지원사업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2009년에는 ‘예술거리’ 조성을 목표로 예술가 위주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2010~2014년에는 ‘문화시장’을 목표로 예술과 아트상품의 결합과 메이커스와 셀러 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15~2018년은 ‘창조거리’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19〉 대인예술시장 사업추진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감독자
‘대인시장 예술인 공방거리 조성사업’	2009.2	박성현
아시아 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운영 대인예술시장 프로젝트 ‘느티나무 숲’	2010~12	전고필, 정민룡, 정민룡
아시아 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운영 ‘무들마루 사업단’	2013	신호윤
아시아 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대인예술시장 ‘별장 프로젝트 사업단’	2014~15	전고필, 정삼조

자료: 박주영, 2016, 광주 대인예술시장의 사회적관계망 특성 및 예술인의 지속적 활동의사에 관한 연구, p32.

39) 대인예술시장은 전남도청부지의 아시아문화의 전당과 화랑거리, 충장로, 금남로를 잇는 상업지역과 도보권내(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40) ‘복과 덕이 넘치는 방’이라는 의미의 복덕방 프로젝트는 빈 점포에 예술가의 작품을 설치하고 일상공간에 예술을 접목 시키는 프로젝트였다(전북일보, 2015.09.23. ‘지역미술, 교류가 답이다’ 기사 내용 참조).

사업의 목표는 대인예술시장에 문화예술의 창작, 비평, 소비, 유통 기능의 순환을 만들고,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체험하는 매력 있는 문화예술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의 주안점은 예술가가 상인들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에 두고 있다. 현재 상주하는 작가들은 모두 자비로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 초기에는 미술작가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공예, 출판, 음식,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입주하며 구성이 다변화되고, 연령대도 20대에서 50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화 되었다.

대인시장의 임대료는 시장이 침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이 대인시장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시장이 주는 특유의 활기와 예술가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2-5〉 대인예술시장 내에 주요 창작문화공간 현황



자료: 박주영, 2016, 광주 대인예술시장의 사회적경제망 특성 및 예술인의 지속적 활동의사에 관한 연구, p31.

나. 성과

대인예술시장이 지역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대인시장에 예술가들을 모이게 하였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는데 있다.

대인예술시장 내에 예술가들은 강력하고 활성화된 예술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친목과 같은 사적인 네트워크가 발달되어 있다. 예술가들이 대인시장으로 입주를 선호함에 따라 빈 점포가 거의 사라졌다. 이는 대인시장이 재래시장으로서는 침체되어 있지만 문화적 용도로서는 매우 매력적인 공간임을 의미한다.

시장상인들과의 교류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많은 시장상인들이 예술가들에 대해 초기 경계하는 분위기에서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으며,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도 높아졌다. 공방 레지던시, 다다익선, 문화예술야시장, 문화교육 등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예술가들의 존재가 아직까지 상인들의 매출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지는 못하고 있다. 예술가들로 인해 방문객들이 늘었지만 시장의 매출로 직접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 식당 등 일부점포를 제외한다면 대다수의 점포는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⁴¹⁾. 또한 예술가들의 활동들이 주변 도시지역에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대인시장의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가들과 프로젝트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대인시장은 예술가들의 활동과 프로젝트 팀의 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두 집단 사이의 협력이 활발하지 않다. 바람직한 문화클러스터는 예술가들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연계로 나타나고 그것이 지역사회효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대인시장의 경우 지역사회연계를 위한 별도의 프로젝트팀이 꾸려져 운영되고 있다. 사안에 따라 이러한 활동에 예술가들이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대인시장 문화클러스터는 시장 내에서는 일정 정도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시장 밖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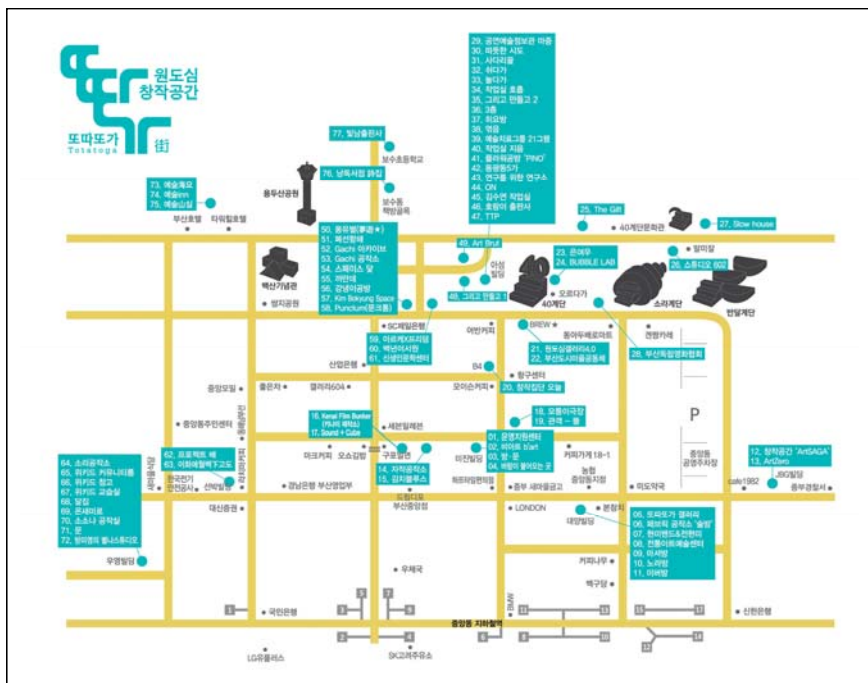
41) 기본적으로 예술가와 상인은 뚜렷하게 이질적인 집단이다. 상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매출증대 없이는 예술가의 작업이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한편, 만약 상가매출이 증대하여 임대료가 상승할 경우 예술가들이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예술가와 상인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박세훈 외3인, 2011,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방안 연구, p117.).

(2) 부산 또따또가

가. 개요

또따또가는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의 지하철 중앙역 주변의 반경 200m 정도의 공간적 범위를 가진 지역으로, 남포동, 광복동과 함께 부산의 중심 기능을 담당하였던 곳이다. 중단동이 쇠퇴함에 따라 부산시는 원도심 지역의 재생을 위해 2009년부터 20여개의 사무실을 임대⁴²⁾하여 300명 이상의 예술가들을 입주시키면서 사업은 시작되었다. 또따또가 사업의 목표는 입주 예술가들의 역량을 키워 3년 후 예술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입주 예술가들의 정착 후 새로운 예술가들을 입주시키면서 원도심을 예술의 거리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림 2-6〉 부산 또따또가 공간별 입주현황도



자료: <http://www.tttg.kr/xe/tttgMap>

42) 타 지역의 많은 정책들이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을 택한 반면 부산의 또따또가는 임대방식을 취한 것이 특징이다.

또따또가 사업은 기존의 예술가 레지던시 사업이 지역공동체와의 소통을 고려하지 않아 효과가 파급되지 않은 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가와 지역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입주예술가 선정과정에서부터 조건을 명시하였다.

예술가들은 작업공간을 얻는 대가로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교육 및 출제참여 등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조건으로 입주하게 된다. 따라서 또따또가 예술가들은 원도심 지역에 애착을 갖고 커뮤니티를 중시하는 성향을 가진다.

〈표 2-20〉 또따또가 사업개요

사업명칭	원도심 창작공간(또따또가) 운영지원 사업
위치	부산시 중구 일원
사업기간	2010년-12년(1차사업), 2013년-15년(2차사업), 2016-18(3차사업)
입주현황	개인작가 38명, 단체 31개(198명) / 총 236명 활동 중
사업주체/주관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운영지원센터	부산시 중구 40계단길 10 3층(중앙동 3가)

자료: <http://www.tttg.kr/>

〈표 2-21〉 또따또가 인쇄1길 프로젝트

- 부산 원도심의 후미진 인쇄상가 지역에서 설치미술작가 김경화 작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주도한 마을가꾸기 프로젝트
- 우연히 골목길에서 놀고 있는 아이(경민이)가 계기가 되어 골목길에 벽화를 그리고 환경을 개선하는 주민활동으로 발전됨(일명 '경민이의 사과나무')
- 추후 또따또가 사무국 및 주변 예술가들의 도움으로 골목길 콘서트 개최, 주민참여형 문화 활동의 발전



자료: 국토연구원, 2011,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방안 연구, p93 자료인용

나. 성과

또따또가 사업은 정책적으로 세밀한 접근이 이루어져, 입주 예술가들 간의 교류 및 지역사회의 연계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었다. 또한 지역사회활동을 위한 지원기구의 구성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10년 초 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역이 전체적으로 활성화 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효과는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다. 또따또가 입주 예술가들과 지역주민이 주도한 「인쇄길 프로젝트」 등 지역사회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가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자부심도 고양되었으며, 원도심이 문화예술의 거리로 이름을 얻게 되면서 음식점, 다방 등과 차별화된 카페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것을 중요한 변화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입주예술가 사이에서는 대상지역에 예술가들이 늘어나고 주민들의 문화예술향유 기회가 확대된 것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고양된 것도 중요한 성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 또한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공간이 창작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판매·공연 등 예술작품의 유통·소비 기능이 취약하여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창작공간이 산재하여 가시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여 예술가들에게 ‘멋진’ 환경을 제공하기 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빈 사무실을 임대하여 예술가들이 원도심을 직접 체험하면서 작업하도록 하는 전략은 지역에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 일방적으로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들로 하여금 자신의 공간에 투자하여 공간에 애착을 가지도록 유도한 점도 중요하다.

3) 국외사례 - 영국, 일본

(1) 런던 이스트엔드(East End)와 Acme 스튜디오⁴³⁾ - 영국

가. 개요

런던의 문화예술인 클러스터는 자생적으로 형성된 이스트엔드(East End)와 영국 Art Council의 후원을 받아 추진되고 있는 Acme 스튜디오가 있다.

이스트엔드(East End)는 역사적으로 빈곤한 이민자들의 지역으로 가내수공업 형식의 의류 및 섬유제조업, 식료품 거래 등이 이루어졌던 곳이었다. 이러한 곳이 전통적인 런던예술시장의 중심지였던 런던 서부(West End)의 라드브록 그로브(Ladbroke Grove)와 노팅힐(Notting Hill)이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이 지역의 예술계가 쇠퇴하기 시작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1980년대에 시작된 Young British Art(YBA)⁴⁴⁾ 운동에 의해 주목받게 되었다.

현재 이스트엔드(East End)는 실험적인 예술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마켓과 갤러리, 작업 공간 및 박물관이 모여 있는 독특한 문화지구로 발전하였다. 12개 이상의 갤러리와 2개의 박물관 등의 문화예술관련 시설이 있으며, 이곳에서 다양한 워크숍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예술인 클러스터가 런던의 이스트엔드(East End)라면,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에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레지던시 형태의 사업은 Acme 스튜디오이다. 1972년 런던에서 설립된 Acme 스튜디오는 전문 및 ‘신진’ 시각 예술가들에게 저렴한 요금의 스튜디오와 거주 시설을 제공하며 파인 아트 작업의 발전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⁴⁵⁾. 바우(Bow)의 두 개의 비어있는 상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의 예술가를 지원하였다. Acme의 살아있는/작업 프로그램들과, 예술가들의 주거, 국제적인 기관 프로그램과 조언/컨설턴트 작업, 그리고 16개의 건물(런던에 15곳, 콘월에 1곳)들을 관리하고 있

43) 이스트엔드(East End)는 런던의 동쪽지역인 서더크(Southwark), 햄프 타워(Tower Hamlets), 뉴햄(Newham), 해크니(Hackney) 등의 자치구를 포함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44) 영국의 미술은 이전에는 매우 보수적이어서, 현대미술을 수입하는 수집가는 거의 없었다. 일명, ‘Young British art’, ‘the new British art’, ‘Brit Art’ 등으로 일컬어지는 예술운동은 현대미술의 중심을 런던 서부에서 동부로 옮기며, 핵심적인 문화지구로 부상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45) ‘1972년 이래 Acme는 런던 산업에서 생존한 부분들의 한 대명사이며, 한 기관이 예술가 스튜디오에 대한 단기간 부동산 이용의 운영을 하고 있다’ (Thorne, R. Architecture Today AT118:58)

으며, 동부 및 남동부 런던의 옛 고기 파이, 화장품과 담배공장을 포함하며, 573개의 비주거용 스튜디오들, 5년 동안(2010-15) 주거/작업을 할 수 있는 12개의 공간들을 제공하고 있다⁴⁶⁾.



〈그림 2-7〉 Acme's studios 건물 위치도

자료: <http://www.acme.org.uk/studios>

나. 성과

도시경제적인 요인과 문화예술운동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이스트엔드(East End)에는 1980년대 이후 산업기능을 상실한 Hoxton 광장을 중심으로 상업 갤러리들은 물론 다수의 문화 관련 단체들과 예술가들의 스튜디오가 입주하고 있다. 예술가들은 여기서 작품의 영감을 얻고, 활용 가능한 자원, 네트워킹, 관객 등을 공유할 수 있어, 작품의 질은 향상되고, 지역은 문화적 에너지를 얻고 있다.

Acme는 쇠퇴지역을 재생하기 위하여 쇠퇴한 지역에 비어있는 건물들을 이용하고 있다⁴⁷⁾. 런던에서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거주지로서 높은 잠재력이 있는 산업용 부동산에 대해, Acme는 저렴한 작업공간의 공급을 지속하고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개발하여 예술가들이 런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46) <http://www.acme.org.uk/aboutacme/history>

47) ‘관광에 대해 말하면, 예술가들은 도시 재생의 과정에서 리더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에는, 유행과 돈과 상업적인 개발이 따른다’ (Kit Wedd 창조 지구 1700-2000, 런던박물관 2001, p153/4)

(2) 요코하마(横浜) 문화예술창조도시⁴⁸⁾ - 일본

가. 개요

요코하마시는 1953년 개항 이후 일본 제1의 항만도시로 성장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 세계적인 제조업 분야의 쇠퇴로 공동화가 일어났다. 또한 버블경제의 붕괴와 도쿄 도심의 사무실 용 빌딩 건설의 증가는 시에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요코하마는, 나카타 히로시(中田宏)가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2004년 1월 ‘문화예술창조도시-Creative City 요코하마’라는 혁신적인 도시비전을 만들고 추진하게 된다.

요코하마의 도시 활성화 전략은 예술가의 활동공간 확대와 기존 문화예술자원의 활동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표 2-22〉 요코하마 ‘문화예술창조도시’정책의 정책 기본방향과 목표

기본방향	목표
예술가, 창작활동가가 거주하고 싶은 창조환경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까지 예술가·창작가를 3,071명→5,000명으로 늘림 - 도심부에 예술가의 활동거점이 될 스튜디오와 연습장을 확보 - 빈 사무실, 창고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발표·전시장 지원 및 지원 제도 소개 등의 예술가들을 상담·지원 - 신진예술가 육성을 위한 레지던시 사업 실시
창조적 문화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경제를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영화·영상·음악·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을 기반으로 한 창조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 - 동경예술대학대학원의 유치를 통해 창조인재 육성 - 창조문화산업클러스터 창업자를 15,730명→30,000명으로 증대
매력 있는 지역자원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 유치자원을 85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 - 도심부에 있는 근대건축물을 문화예술분야에 공간으로 활용 - 워터프론트 정비 추진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예술 창조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이 문화예술과 사회를 연계하는 활동을 주체적으로 담당 - 시민·NPO 등이 문화예술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젊은 예술가 등 창조성이 풍부한 인재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추진 - 문화향유자를 248만 명→350만 명으로 확대

예술가와 창작활동가들이 생산·전시·거주하는 ‘창조구역’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으로서 2003년 「뱅크아트 1929」이 시작되었다. 2005년에는 구 후지은행(富士銀行) 지점에 동경예술대

48) 국토연구원, 2011,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방안 연구, pp162-169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학대학원 영상연구과가 유치되어 ‘영상문화도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다. 또한 철거 예정이었던 (주)모리빌딩 소유의 건물을 일정 기간(2005년 6월 ~ 2006년 10월) 동안 창조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인 「기타나카BRICK & 기타나카WHITE」 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뱅크아트와 요코하마시 주관으로 대규모 예술축제인 ‘요코하마 트리엔날레’가 2005년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외에 2006년부터는 저렴한 임대료에 젊은 예술가나 기획자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자임」(ZAIM, 2006년 5월부터 2010년 3월말까지 시설 이용)사업이 추진되었고, 스튜디오로 옛 창고를 아틀리에로 개조한 「창조공간 반코쿠바시(万國橋SOKO)」, 시가 운영하던 결혼식장을 연극과 댄스연습실로 단장한 「규나사카(急な坂)스튜디오」가 문을 열었다.

나. 성과

「기타나카BRICK & 기타나카WHITE」, 「자임(ZAIM)」, 「규나사카(急な坂)스튜디오」 등의 사업을 통해 미술 30명, 건축 21명, 그림 7명, 기획 7명, 디자인 6명, 마을 만들기 4명, 사진 3명, 음악 2명, 연극 2명, 기타 6명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창작가들이 활동하며 요코하마시에는 문화예술창작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예술축제인 ‘요코하마 트리엔날레’는 요코하마를 창조도시로서 장소 마케팅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전시장을 부두의 오래된 건물들을 고쳐서 활용함으로써 도시 재생의 효과를 기하였다.

2007년에는 재계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의 ‘창조도시 요코하마 추진협의회’가 설립되어 새로운 단계로 진행하고 있으며, 개항 50주년인 2009년도에는 세계창조도시회의를 개최하면서 아시아의 창조도시네트워크 구축을 전개하고 있다.

2004년 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3년간 이 시설들을 중심으로 한 창조지구 형성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120억 엔에 달한다. 시설정비에 의한 파급효과가 약 39억 엔, 입주기업 및 단체의 사업활동, 창작활동에 의한 효과가 약 65억 엔, 이벤트 참가작의 소비활동에 따른 효과가 약 16억 엔으로 나타났다.

4) 시사점

사례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가 있었다.

첫 번째,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곳일지라도 정책적 지원은 중요하였다. 사례조사에서 영국 런던의 이스트엔드(East End)는 도시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이다. 반면, 일본 요코하마, 광주 대인예술시장, 부산 또따또가 등은 정책적인 지원에 의해 형성된 곳이었다. 영국 런던은 수도로서 문화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 이스트엔드(East End)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예술인들이 런던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Acme 스튜디오와 같은 사업이 Art Council의 후원하에 비영리단체가 주관이 되어 추진되고 있었다. 이는 예술가들이 그 지역에서 안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인 클러스터가 형성된 곳은 정책적 지원이 끝났을 때 지속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광주 대인예술시장의 경우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는 예술인의 유입이 증가하였지만, 지원이 종료되었을 때 일부 예술인들의 이탈과 함께 시장지역을 넘어 주변지역으로 효과를 확산시키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 여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은 형성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수립이 요구되었다.

두 번째, 예술가들의 협력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광주 대인시장의 경우 예술가의 공동체성이 부산 또따또가 보다 강했지만,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가 협력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지역사회와 연계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연계를 위해서는 예술가 협력네트워크 내·외에서 의식적인 노력 또는 외부에서 제도적 요인이 작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물리 공간적인 문화예술인단지(촌)의 형성이 예술인 협력네트워크와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기반을 제공할 수 있지만 담보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 예술가들의 협력네트워크가 지역사회와 연계될 수 있는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창작스튜디오와 레지던시 사업은 예술인들을 모아 일정기간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 이 사업자체가 예술인들 간의 협력을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역에 정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산 또따또가의 경우는 입주예술가 선정시 지역사회의 참여를 의무규정으로 두어, 그러한 활동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예술가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구성하였다. 결과적으로 부산 또따또가의 예술가들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반면, 광주 대인시장 예술가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는 정책지원형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지역사회 활동에 가치를 두는 예술가를 중심으로 유지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작품의 주제를 찾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단순한 문화예술지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3장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실태조사

1. 조사·분석의 개요

1) 조사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지역에서 문화예술인 간의 협력 속에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에 대한 형성배경, 활동상황, 시사점과 한계 등을 살펴보고,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장에서는 첫째 충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분포, 예술활동 경력, 경제적 상황, 종사형태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예술인들의 실태를 살펴보는 것은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에 형성의 구성인자로서 클러스터 형성 정책에 기반적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조사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5 예술인 실태조사’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충남 문화예술인 조사 내용을 별도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문화예술인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활동하고 있는 지역을 찾아서 활동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였다. 충남의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에 대한 조사는 아직까지 통계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2장에서 조사된 충남 문화예술인 관련 단체, 정책사업 추진현황 등을 바탕으로 15개 시·군 문화예술담당자, 문화단체, 충남문화재단 및 시·군 문화재단 예술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였다. 문화예술인 클러스터를 추천받은 후 이 클러스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클러스터의 성격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5개의 문화예술인 클러스터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현장조사(field study), 예술인 관계자 인터뷰(in-depth interview), 설문조사(survey) 등을 활용하였다.

2) 분석의 틀

충남 문화예술인 분석은 분포현황 2,364명을 대상으로 하되, 실태조사는 2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근거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1〉 충남 문화예술인 분석의 틀

분석항목	분석내용	분석방법
분포현황 (2,364명)	1.문화예술인 시군별·장르별 분포현황	GIS/SPSS를 활용한 통계분석
	2.거주지 분포현황 ①도시지역, ②비도시 지역	
실태조사 (243명)	1.예술활동 경력 / 2.예술작품발표 횟수	SPSS를 활용한 통계분석
	3.저작권 보유현황 / 4.외국예술활동현황	
	5.문화예술교육활동 종사현황	
	6.창작공간 보유현황 : ①보유유무, ②공간크기, ③보유형태	
	7.예술인 수입 : ①가구, ②예술활동	
	8.예술활동 종사형태 : ①전업, ②겸업	

〈표 3-2〉 실태조사 관련 전국 및 충남표본 현황

(단위 : 명, %)

구분		합계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
전국	예술인수	5,008	514	1,162	246	189	237	443	340	443	335	488	192	182	127	110
	비율	100.0	10.3	23.2	4.9	3.8	4.7	8.9	6.8	8.8	6.7	9.7	3.8	3.6	2.5	2.2
충남	예술인수	243	29	55	14	7	6	27	13	28	17	22	8	4	12	1
	비율	100.0	11.8	22.6	5.6	2.8	2.6	11.0	5.5	11.7	6.8	9.2	3.2	1.8	5.0	0.4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조사 설문은 총 97부로 홍주문화연구회 30부, 야투 14부, 전통예술 단촌 10부, 계룡산도예촌 13부를 실시하였다. 조사·분석내용은 일반사항, 거주동기, 예술가·

지역 문화기관·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현황,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안으로 구성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3〉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조사·분석의 틀

항목	조사·분석 내용	방법
일반사항	1.성명 및 소속, 거주지, 거주기간	SPSS를 활용한 통계분석
	2.연력 및 예술가로서의 경력, 예술분야	
거주동기	3.거주지 활동 동기, 거주공간 용도	SPSS를 활용한 통계분석
	4.거주지 활동의 장점	
	5.교류하는 예술가, 주민의 수/교류빈도	
	6.거주환경이 창작활동에 도움 정도/거주지에 대한 자부심	
활동현황	7.창작활동에 도움을 받은 예술가 또는 단체	사회네트워크 분석
	8.예술가와 창작활동 협력 내용 및 횟수 : ①구상, ②창작, ③발표, ④교육, ⑤홍보, ⑥기타	
	9.지역 문화기관과의 협력 내용 및 횟수 : ①발표, ②교육, ③행사, ④재능기부, ⑤친분, ⑥기타	
	10.지역사회와의 협력 내용 및 횟수 : ①발표, ②교육, ③환경개선, ④재능기부, ⑤친분, ⑥기타	
활성화를 위한 제안	11.협력·교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안 : ①문화예술인 간, ②문화예술인과 지역기관 간, ③문화예술인 과 지역주민 간	SPSS를 활용한 통계분석

2.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조사

1) 충남 문화예술인 분포 및 활동실태

(1) 분포현황

가. 시군별·장르별 분포현황

충남의 문화예술인이 시군별로는 천안에 26.2%가 집중 분포하고, 공주(9.8%), 아산(9.1%), 서산(7.7%), 보령(7.4%)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장르별로는 미술이 42.1%로 가장 많고, 연극(10.4%), 문학(8.1%), 국악(5.7%), 음악(5.6%) 순이다. 분포지역은 인구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미술을 제외하고는 무형예술분야가 많다

〈표 3-4〉 충남문화예술인 시군별·장르별 분포현황

(단위 : 명, %)

구분	총합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세종	대전
	합계	비율																	
총합계	2,364	100.0	620	231	174	214	183	96	78	138	87	88	61	43	123	118	64	33	13
			26.2	9.8	7.4	9.1	7.7	4.1	3.3	5.8	3.7	3.7	2.6	1.8	5.2	5.0	2.7	1.4	0.5
문학	191	8.1	52	13	28	9	12	6	5	9	3	7	7	3	9	17	4	7	
미술	996	42.1	273	84	85	82	73	41	41	70	44	38	26	20	40	38	28	13	
공예	47	2.0	15	12	1	2	2	2	1	2	1	2	1		1	2	1	2	
사진	29	1.2	6	3	3	3	2	2	1	3		1	1	2	2				
건축	34	1.4	9	1	1	7	3	4		1	3				2			3	
음악	133	5.6	46	16	4	3	10	8	3	11	3	2	10	1	8	6	1	1	
대중음악	94	4.0	40	9	3	15	7	1	1	4	1	2		2	1	4	3	1	
국악	135	5.7	26	9	5	10	22	10	3	5	6	9	3	2	6	10	7	2	
무용	61	2.6	24	12	3	12	2		5					1	1			1	
연극	245	10.4	50	28	16	38	24	5	4	9	4	6	5	2	25	23	4	1	1
영화	16	0.7	6			4		1	1		1		1			1	1		
방송	19	0.8	8	2	1	3	1	1							2			1	
만화	32	1.4	8	3	2	3	1		2			1							12
기타	332	14.0	57	39	22	23	24	15	11	24	21	20	7	10	26	17	15	1	

주: 시군 전체에서 차지하는 예술인 인구비율을 보면 천안 0.10%, 공주 0.21%, 보령 0.17%, 아산 0.07%, 서산 0.11%, 논산 0.08%, 계룡 0.18%, 당진 0.08%, 금산 0.16%, 부여 0.12%, 서천 0.11%, 청양 0.13%, 홍성 0.13%, 예산 0.14%, 태안 0.10% 로 나타남

나. 시군별·장르별 입지강도⁴⁹⁾

충남의 문화예술인 입지강도를 살펴보면, 공주는 무용, 아산은 건축, 무용, 영화, 서산은 국악, 논산은 건축, 계룡은 무용, 금산은 건축, 서천은 음악, 영화, 청양은 사진, 홍성은 방송, 태안은 영화, 세종은 문학, 공예, 건축, 방송 그리고 대전은 만화의 문화예술인이 강한 입지를 보였다. 지역적으로 세종에 특정 문화예술인이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었으며, 분야로는 건축, 무용, 영화 분야의 문화예술인이 특정 시군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고, 미술, 대중음악, 연극분야는 특정한 시군에 집중되어 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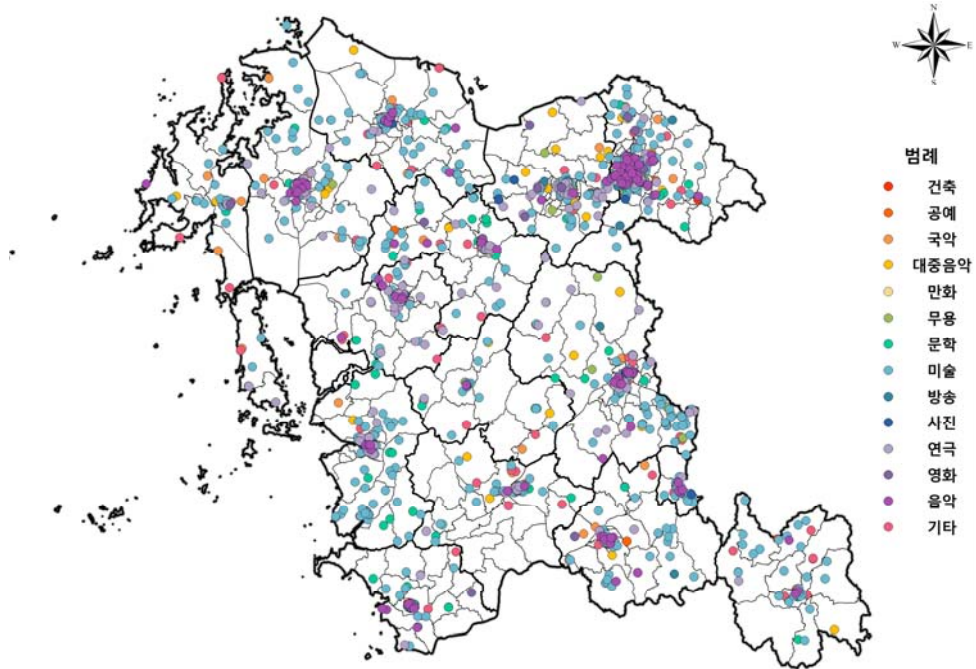
〈표 3-5〉 충남문화예술인 시군별·장르별 입지강도

구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세종	대전
문학	1.04	0.70	1.99	0.52	0.81	0.77	0.79	0.81	0.43	0.98	1.42	0.86	0.91	1.78	0.77	2.63	-
미술	1.05	0.86	1.16	0.91	0.95	1.01	1.25	1.20	1.20	1.02	1.01	1.10	0.77	0.76	1.04	0.94	-
공예	1.22	2.61	0.29	0.47	0.55	1.05	0.64	0.73	0.58	1.14	0.82	-	0.41	0.85	0.79	3.05	-
사진	0.79	1.06	1.41	1.14	0.89	1.70	1.05	1.77	-	0.93	1.34	3.79	1.33	-	-	-	-
건축	1.01	0.30	0.40	2.27	1.14	2.90	-	0.50	2.40	-	-	-	1.13	-	-	6.32	-
음악	1.32	1.23	0.41	0.25	0.97	1.48	0.68	1.42	0.61	0.40	2.91	0.41	1.16	0.90	0.28	0.54	-
대중음악	1.62	0.98	0.43	1.76	0.96	0.26	0.32	0.73	0.29	0.57	-	1.17	0.20	0.85	1.18	0.76	-
국악	0.73	0.68	0.50	0.82	2.11	1.82	0.67	0.63	1.21	1.79	0.86	0.81	0.85	1.48	1.92	1.06	-
무용	1.50	2.01	0.67	2.17	0.42	-	2.48	-	-	-	-	0.90	0.32	-	-	1.17	-
연극	0.78	1.17	0.89	1.71	1.27	0.50	0.49	0.63	0.44	0.66	0.79	0.45	1.96	1.88	0.60	0.29	0.74
영화	1.43	-	-	2.76	-	1.54	1.89	-	1.70	-	2.42	-	-	1.25	2.31	-	-
방송	1.61	1.08	0.72	1.74	0.68	1.30	-	-	-	-	-	-	2.02	-	-	3.77	-
만화	0.95	0.96	0.85	1.04	0.40	-	1.89	-	-	0.84	-	-	-	-	-	-	68.19
기타	0.65	1.20	0.90	0.77	0.93	1.11	1.00	1.24	1.72	1.62	0.82	1.66	1.51	1.03	1.67	0.22	-

49) 장소와 장르를 동시에 고려하여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입지강도는 1을 기준으로 클수록 강하고, 0에 가까울수록 약하다고 해석한다. 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문화예술인의 입지강도} = \frac{(\text{i지역 j분야 예술인수} / \text{i지역 전분야 예술인수})}{(\text{전지역 j분야 예술인수} / \text{전지역 전분야 예술인수})}$$

〈그림 3-1〉 충남 문화예술인 시군별·장르별 분포현황



다. 거주지 분포현황 _ 도시·비도시지역

충남의 문화예술인은 3/4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계룡(98.7%), 천안(93.5%), 홍성(80.5%), 논산(79.2%), 아산(75.7%) 지역은 충남평균에 비해 높은 도시지역 분포를 보이고 있다. 반면 비도시지역 거주분포가 많은 곳은 예산 43.2%, 태안 40.6% 순이었다.

〈표 3-6〉 지역별 충남문화예술인 거주지(도시·비도시) 분포현황

(단위 : 명, %)

구분	총합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세종	대전
	합계	비율																	
총합계	2,364	100.0	620	231	174	214	183	96	78	138	87	88	61	43	123	118	64	33	13
도시	1,780	75.3	580	143	126	162	131	76	77	91	62	62	39	26	99	67	38	1	-
			93.5	61.9	72.4	75.7	71.6	79.2	98.7	65.9	71.3	70.5	63.9	60.5	80.5	56.8	59.4	3.0	-
비도시	584	24.7	40	88	48	52	52	20	1	47	25	26	22	17	24	51	26	32	13
			6.5	38.1	27.6	24.3	28.4	20.8	1.3	34.1	28.7	29.5	36.1	39.5	19.5	43.2	40.6	97.0	100.0

분야별로 보면, 사진이 93.1%로 도시지역에 절대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음악(86.5%), 무용(83.6%), 문학(77.5%), 미술(75.3%) 등은 충남 평균에 비해 도시지역에 보다 집중하여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3-7〉 분야별 충남문화예술인 거주지(도시·비도시) 분포현황

(단위 : 명, %)

구분	문화예술인수	비율	구분	문화예술인수	비율
문학	191	100.0	국악	135	100.0
도시	148	77.5	도시	95	70.4
비도시	43	22.5	비도시	40	29.6
미술	996	100.0	무용	61	100.0
도시	750	75.3	도시	51	83.6
비도시	246	24.7	비도시	10	16.4
공예	47	100.0	연극	245	100.0
도시	32	68.1	도시	181	73.9
비도시	15	31.9	비도시	64	26.1
사진	29	100.0	영화	16	100.0
도시	27	93.1	도시	10	62.5
비도시	2	6.9	비도시	6	37.5
건축	34	100.0	방송	19	100.0
도시	20	58.8	도시	13	68.4
비도시	14	41.2	비도시	6	31.6
음악	133	100.0	만화	32	100.0
도시	115	86.5	도시	20	62.5
비도시	18	13.5	비도시	12	37.5
대중음악	94	100.0	기타	332	100.0
도시	70	74.5	도시	248	74.7
비도시	24	25.5	비도시	84	25.3

각각의 지역별로 살펴보면, 천안은 건축, 만화, 무용, 음악, 대중음악, 연극, 기타분야가, 공주는 사진, 건축, 만화, 음악, 문학, 공예, 미술분야가, 보령은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무용, 방송, 만화, 연극, 국악, 기타분야가, 아산은 방송, 만화, 문학, 무용, 국악, 미술, 연극, 기타분야가, 서산은 사진, 음악, 방송, 만화, 문학, 국악분야가, 논산은 사진, 건축, 대중음악, 기타, 문학, 연극분야가, 계룡은 문학, 공예, 사진, 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분야가, 당진은 사진, 건축, 대중음악, 음악, 문학, 연극분야가, 금산은 공예, 음악, 영화, 기타, 국악, 연극분야가, 부여는 사진, 음악, 만화, 연극, 국악, 미술, 문학분야가, 서천은 공예, 사진, 국악, 음악분야가, 청양은 사진, 음악, 무용, 문학, 미술분야가, 홍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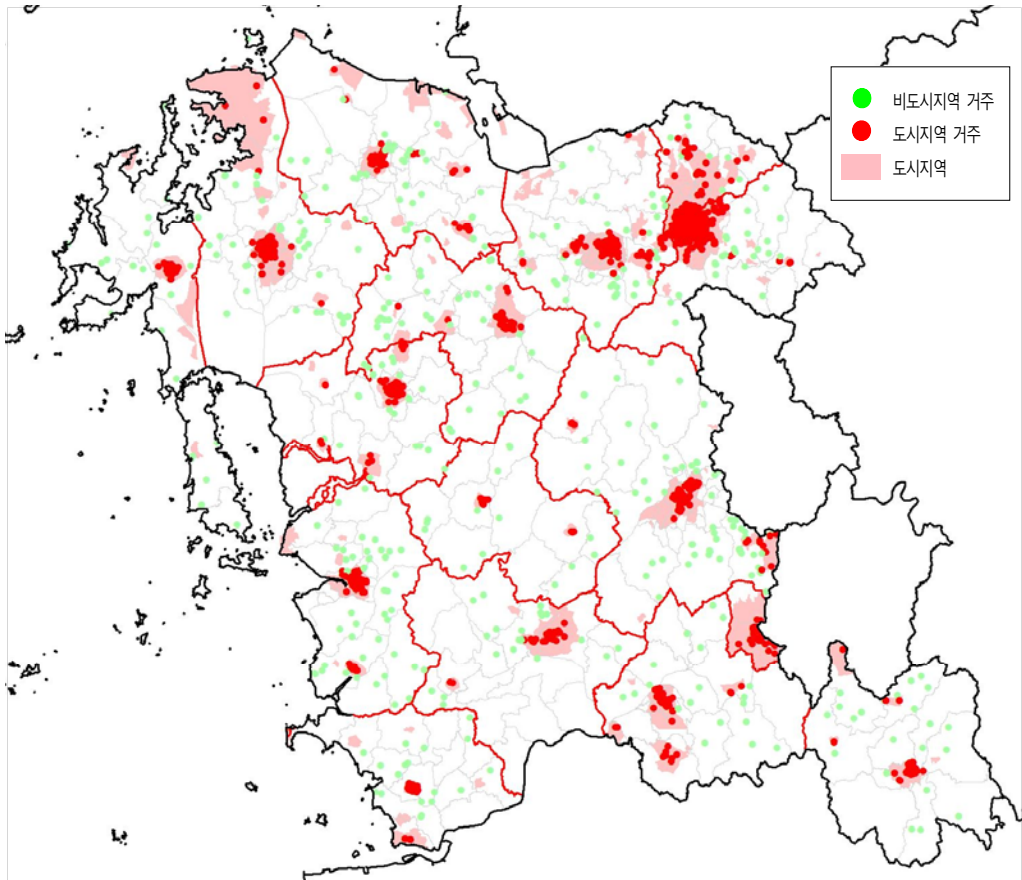
공예, 사진, 건축, 대중음악, 무용, 방송, 문학, 미술분야가, 예산은 문학과 연극분야가, 태안은 영화, 문학, 대중음악, 기타, 미술분야가 지역평균보다 많은 비중으로 도시지역에 집중하여 분포하고 있었다.

〈표 3-8〉 분야별, 거주지(도시·비도시)별 분포비율

(단위 : 명, %)

구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세종	대전
문화	도시	92.3	69.2	71.4	88.9	91.7	83.3	100.0	66.7	66.7	71.4	57.1	66.7	88.9	70.6	75.0	0.0	-
	비도시	7.7	30.8	28.6	11.1	8.3	16.7	0.0	33.3	33.3	28.6	42.9	33.3	11.1	29.4	25.0	100.0	-
미술	도시	93.4	61.9	64.7	79.3	68.5	78.0	97.6	61.4	63.6	73.7	61.5	65.0	85.0	55.3	60.7	7.7	-
	비도시	6.6	38.1	35.3	20.7	31.5	22.0	2.4	38.6	36.4	26.3	38.5	35.0	15.0	44.7	39.3	92.3	-
공연	도시	93.3	66.7	100.0	50.0	0.0	50.0	100.0	50.0	100.0	50.0	100.0	-	100.0	50.0	0.0	0.0	-
	비도시	6.7	33.3	0.0	50.0	100.0	50.0	0.0	50.0	0.0	50.0	0.0	-	0.0	50.0	100.0	100.0	-
사진	도시	83.3	100.0	100.0	66.7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	-	-
	비도시	16.7	0.0	0.0	33.3	0.0	0.0	0.0	0.0	-	0.0	0.0	0.0	0.0	-	-	-	-
건축	도시	100.0	100.0	100.0	14.3	0.0	100.0	-	100.0	33.3	-	-	-	100.0	-	-	0.0	-
	비도시	0.0	0.0	0.0	85.7	100.0	0.0	-	0.0	66.7	-	-	-	0.0	-	-	100.0	-
야외	도시	95.7	87.5	100.0	66.7	100.0	87.5	100.0	90.9	100.0	100.0	70.0	100.0	62.5	50.0	0.0	0.0	-
	비도시	4.3	12.5	0.0	33.3	0.0	12.5	0.0	9.1	0.0	0.0	30.0	0.0	37.5	50.0	100.0	100.0	-
정원	도시	95.0	55.6	66.7	60.0	71.4	100.0	100.0	100.0	0.0	0.0	-	0.0	100.0	50.0	66.7	0.0	-
	비도시	5.0	44.4	33.3	40.0	28.6	0.0	0.0	0.0	100.0	100.0	-	100.0	0.0	50.0	33.3	100.0	-
국악	도시	92.3	44.4	80.0	80.0	77.3	60.0	100.0	40.0	83.3	77.8	100.0	50.0	83.3	30.0	42.9	0.0	-
	비도시	7.7	55.6	20.0	20.0	22.7	40.0	0.0	60.0	16.7	22.2	0.0	50.0	16.7	70.0	57.1	100.0	-
야구	도시	95.8	58.3	100.0	83.3	50.0	-	100.0	-	-	-	-	100.0	100.0	-	-	0.0	-
	비도시	4.2	41.7	0.0	16.7	50.0	-	0.0	-	-	-	-	0.0	0.0	-	-	100.0	-
정리	도시	94.0	53.6	81.3	78.9	70.8	80.0	100.0	66.7	75.0	83.3	60.0	0.0	64.0	69.6	50.0	0.0	0.0
	비도시	6.0	46.4	18.8	21.1	29.2	20.0	0.0	33.3	25.0	16.7	40.0	100.0	36.0	30.4	50.0	100.0	100.0
환경	도시	83.3	-	-	50.0	-	0.0	100.0	-	100.0	-	0.0	-	-	0.0	100.0	-	-
	비도시	16.7	-	-	50.0	-	100.0	0.0	-	0.0	-	100.0	-	-	100.0	0.0	-	-
야외	도시	75.0	0.0	100.0	100.0	100.0	0.0	-	-	-	-	-	-	100.0	-	-	0.0	-
	비도시	25.0	100.0	0.0	0.0	0.0	100.0	-	-	-	-	-	-	0.0	-	-	100.0	-
만화	도시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	100.0	-	-	-	-	-	-	0.0
	비도시	0.0	0.0	0.0	0.0	0.0	-	0.0	-	-	0.0	-	-	-	-	-	-	100.0
기타	도시	94.7	56.4	77.3	78.3	66.7	93.3	100.0	62.5	85.7	60.0	57.1	60.0	84.6	52.9	66.7	0.0	-
	비도시	5.3	43.6	22.7	21.7	33.3	6.7	0.0	37.5	14.3	40.0	42.9	40.0	15.4	47.1	33.3	100.0	-

〈그림 3-2〉 충남문화예술인 거주지(도시·비도시) 분포현황



〈표 3-9〉 충남문화예술인 거주지(도시·비도시) 분포현황

(단위 : 명, %)

구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세종	대전
문학	52	13	28	9	12	6	5	9	3	7	7	3	9	17	4	7	
도시	48	9	20	8	11	5	5	6	2	5	4	2	8	12	3		
비도시	4	4	8	1	1	1		3	1	2	3	1	1	5	1	7	
미술	273	84	85	82	73	41	41	70	44	38	26	20	40	38	28	13	
도시	255	52	55	65	50	32	40	43	28	28	16	13	34	21	17	1	
비도시	18	32	30	17	23	9	1	27	16	10	10	7	6	17	11	12	
공예	15	12	1	2	2	2	1	2	1	2	1		1	2	1	2	
도시	14	8	1	1		1	1	1	1	1	1		1	1			
비도시	1	4		1	2	1		1		1				1	1	2	
사진	6	3	3	3	2	2	1	3		1	1	2	2				
도시	5	3	3	2	2	2	1	3		1	1	2	2				
비도시	1			1													
건축	9	1	1	7	3	4		1	3				2			3	
도시	9	1	1	1		4		1	1				2				
비도시				6	3				2							3	
음악	46	16	4	3	10	8	3	11	3	2	10	1	8	6	1	1	
도시	44	14	4	2	10	7	3	10	3	2	7	1	5	3			
비도시	2	2		1		1		1			3		3	3	1	1	
대중음악	40	9	3	15	7	1	1	4	1	2		2	1	4	3	1	
도시	38	5	2	9	5	1	1	4					1	2	2		
비도시	2	4	1	6	2				1	2		2		2	1	1	
국악	26	9	5	10	22	10	3	5	6	9	3	2	6	10	7	2	
도시	24	4	4	8	17	6	3	2	5	7	3	1	5	3	3		
비도시	2	5	1	2	5	4		3	1	2		1	1	7	4	2	
무용	24	12	3	12	2		5					1	1			1	
도시	23	7	3	10	1		5					1	1				
비도시	1	5		2	1											1	
연극	50	28	16	38	24	5	4	9	4	6	5	2	25	23	4	1	1
도시	47	15	13	30	17	4	4	6	3	5	3		16	16	2		
비도시	3	13	3	8	7	1		3	1	1	2	2	9	7	2	1	1
영화	6			4		1	1		1		1			1	1		
도시	5			2			1		1						1		
비도시	1			2		1					1			1			
방송	8	2	1	3	1	1							2			1	
도시	6		1	3	1								2				
비도시	2	2				1										1	
만화	8	3	2	3	1		2			1							12
도시	8	3	2	3	1		2			1							
비도시																	12
기타	57	39	22	23	24	15	11	24	21	20	7	10	26	17	15	1	
도시	54	22	17	18	16	14	11	15	18	12	4	6	22	9	10		
비도시	3	17	5	5	8	1		9	3	8	3	4	4	8	5	1	

(2) 활동실태

가. 예술활동 경력

충남의 문화예술인의 예술활동 경력은 전국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①10~20년이 27.7%가 가장 많고, ②10년 미만, ③20~30년, ④30~40년 순이다. 전국평균과 비교하면 경력이 20년 이상인 비율이 높아 오랜 경력을 갖춘 문화예술이 약간 많은 수준이다.

〈표 3-10〉 충남문화예술인 예술활동경력

(단위 : 명, %)

구분		10년 미만	10-20년	20-30년	30-40년	40년 이상	합계
전국	예술인수	1,300	1,566	1,066	705	371	5,008
	비율	26.0	31.3%	21.3%	14.1%	7.4%	100.0%
충남	예술인수	61	67	60	37	18	243
	비율	25.0%	27.7%	24.6%	15.3%	7.4%	100.0%

나. 예술작품 발표횟수

충남의 문화예술인의 예술작품 발표 횟수는 전국적인 수준과 비슷한데, 6~10회가 43.3%로 가장 많고, 1~2회가 35.6% 순이다. 발표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문화예술인이 전국은 2.9%인 반면, 충남은 2.1%로 전국평균에 비해 약간 많은 발표의 기회를 갖고 있다.

〈표 3-11〉 충남문화예술인 예술작품 발표 횟수

(단위 : 명, %)

구분		없음	1-2회	3-5회	6-10회	11-15회	15회이상	무응답	합계
전국	예술인수	144	1,659	854	1,816	371	146	17	5,008
	비율	2.9%	33.1%	17.1%	36.3%	7.4%	2.9%	0.3%	100.0%
충남	예술인수	5	87	27	105	16		2	243
	비율	2.1%	35.6%	11.3%	43.3%	6.7%		0.9%	100.0%

다. 저작권 보유현황

저작권을 갖고 있는 충남 문화예술인수는 총 52명으로 비율은 21.4%로 전국의 17.8%보다 높아 제도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판단된다. 분야별로는 문학에 11명, 대중음악과 만화에 각각 10명씩이며, 그 외 분야는 1~4명 정도 수준이다. 특히, 방송, 만화, 문학, 공예, 국악분야에서 저작권 보유 비중이 더 높다.

〈표 3-12〉 충남문화예술인 저작권 보유현황

(단위 : 명, %)

구분		합계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
전국	예술인수	893	129	70	23	25	40	71	243	19	14	52	46	41	69	50
	비율	17.8	26.1	7.3	11.8	14.7	17.3	18.3	68.7	5.0	4.6	10.2	25.2	22.4	55.7	9.4
충남	예술인수	52	11	2	3	-	-	3	10	2	1	3	2	4	10	1
	비율	21.4	47.0	5.0	32.3	0.0	0.0	11.7	62.0	16.7	6.6	12.4	20.5	100.0	86.0	2.1

라. 외국예술 활동현황

국제적인 예술활동의 경험은 전국이 20.1%인데 반해, 충남은 17.7%로 약간 저조하나, 분야별로 보면, 방송, 연극, 무용, 미술분야는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분야 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3〉 충남문화예술인 외국예술 활동현황

(단위 : 명, %)

구분		합계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
전국	예술인수	1,005	28	284	48	36	22	81	78	83	86	61	13	15	25	145
	비율	20.1	5.7	29.6	24.7	21.3	9.3	20.7	21.9	22.4	27.6	11.9	7.3	8.1	19.8	27.5
충남	예술인수	43	-	16	1	2	-	4	3	2	5	5	-	1	2	4
	비율	17.7	0.0	32.3	6.3	22.2	0.0	15.5	18.6	14.6	32.8	18.3	0.0	23.6	19.3	12.2

마. 문화예술 교육활동 종사현황

문화예술 교육활동은 전국이 33.1%인 반면, 충남은 42.5%로 교육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보면, 공예, 건축, 음악, 국악, 연극 등에서 전국보다 높은 비중의 교육활동 종사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4〉 충남문화예술인 문화예술 교육활동 종사현황

(단위 : 명, %)

구분		합계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
전국	예술인수	1,655	110	297	72	62	45	169	148	158	163	143	30	47	25	186
	비율	33.1	22.3	30.9	36.7	36.3	19.4	43.2	41.8	42.5	52.2	28.0	16.7	26.0	20.3	35.3
충남	예술인수	103	5	15	5	2	3	18	4	10	5	16	1	-	1	19
	비율	42.5	21.2	30.4	55.0	22.2	45.3	77.8	27.9	72.7	32.8	59.9	12.8	0.0	9.1	61.2

바. 예술인의 개인창작 공간보유현황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개인적인 공간 보유 현황을 보면, 전국은 54.3%만이 보유하고 있으나, 충남은 68.2%가 개인창작공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보유 유형은 집 밖 : 집 안으로 나눌 때, 전국은 34.9% : 19.4%로 집 밖에 보유가 월등히 많은 반면, 충남은 36.4% : 31.8%로 큰 차이가 없었다.

〈표 3-15〉 충남문화예술인 개인창작 공간보유현황

(단위 : 명, %)

개인창작공간 보유현황		합계	집 안에 보유	집 밖에 보유	미보유
전국	예술인수	5,008	973	1,747	2,288
	비율	100.0%	19.4%	34.9%	45.7%
충남	예술인수	243	77	88	77
	비율	100.0%	31.8%	36.4%	31.8%

충남의 문화예술인이 갖추고 있는 개인창작공간의 규모는 6~10평이 26.8%로 가장 많았고, 11~20평 규모가 그 뒤를 이었다. 개인의 창작공간의 규모에 있어서는 전국과 충남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충남의 문화예술인이 6~10평, 31평 이상의 공간을 갖추고

있는 비중이 더 높아 보다 더 넓은 창작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표 3-16〉 충남문화예술인 개인창작 공간크기 현황

(단위 : 명, %)

개인창작 공간 크기		합계	1-3평	4-5평	6-10평	11-20평	21-30평	31-50평	51평이상	무응답
전국	예술인수	2,685	402	401	613	538	350	240	106	35
	비율	100.0	15.0	15.0	22.8	20.0	13.0	8.9	4.0	1.3
충남	예술인수	163	12	26	44	30	17	22	8	6
	비율	100.0	7.3	15.7	26.8	18.4	10.5	13.3	4.7	3.4

개인의 창작공간 보유형태에 있어서, 자가의 비중이 47.4%로 가장 높았으며, 전세(18.6%)보다는 월세(25.4%)의 비중이 더 높았다. 즉 전국에 비해 충남은 자가의 비중이 더 높았다.

〈표 3-17〉 충남문화예술인 개인창작 공간 보유형태

(단위 : 명, %)

개인창작공간 보유형태		전체	자가	임대전세	임대월세	무상임대
전국	예술인수	2,720	1,107	466	940	207
	비율	100.0	40.7	17.1	34.6	7.6
충남	예술인수	166	79	31	42	14
	비율	100.0	47.4	18.6	25.4	8.6

사. 예술인의 가구 총수입

충남의 문화예술인의 가구소득 수준은 3~4천만원이 2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집중되어 있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화되어 있는 편으로,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구가 전국에 비해 적다.

〈표 3-18〉 충남문화예술인 가구 소득

(단위 : 명, %)

예술인의 가구 총수입		합계	1천만원 미만	1-2천만원	2-3천만원	3-4천만원	4-5천만원	5-6천만원	6-7천만원	7-8천만원	8천만원 이상
전국	예술인수	4,615	271	439	677	884	673	529	364	239	538
	비율	100.0	5.9	9.5	14.7	19.2	14.6	11.5	7.9	5.2	11.7
충남	예술인수	237	11	17	39	63	36	15	22	8	24
	비율	100.0	4.7	7.3	16.4	26.8	15.2	6.5	9.3	3.5	10.3

문화예술인의 가구소득 수준을 분야별로 보면, 전국은 4,683만원인데 비해 충남은 5,460만원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중앙값은 전국이 4,000만원, 충남이 3,600만원으로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장르별로 보면, 미술, 공예, 건축, 국악, 무용, 만화 등에서 평균값이 전국에 비해 충남이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공예, 건축분야는 2배 정도로 높은 가구소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9〉 충남문화예술인의 장르별 가구 평균소득 및 소득의 중앙값

(단위 : 만원, %)

예술장르	전국		충남	
	평균값	중앙값	평균값	중앙값
문학	4,254	3,501	3,823	3,600
미술	4,399	4,000	7,695	4,800
공예	5,294	4,000	11,533	7,900
사진	4,338	3,589	4,093	4,108
건축	9,628	8,000	20,287	10,705
음악	5,005	4,380	4,483	3,600
대중음악	3,786	3,030	3,665	3,241
국악	4,391	3,600	5,936	3,575
무용	4,676	4,500	4,905	4,800
연극	4,382	3,500	3,565	3,300
영화	4,003	3,000	2,313	2,400
방송	6,526	4,500	2,858	3,160
만화	3,340	3,000	4,017	3,500
기타	4,048	3,500	3,999	3,000
합계	4,683	4,000	5,460	3,600

아. 예술인의 예술활동 수입

문화예술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전국이 1,255만원인데, 충남은 1,191만원으로 적은 수준이었으며, 평균값이 높은 건축분야는 전국이 4,832만원이나 충남은 13,748만원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전국보다 높은 소득을 얻는 분야는 건축, 국악, 만화로 그 외 분야에서는 적은 수준으로 분야별 편차가 컸다.

〈표 3-20〉 충남문화예술인의 장르별 예술활동 소득 및 소득의 중앙값

(단위 : 만원, %)

구분	전국		충남	
	평균값	중앙값	평균값	중앙값
문학	214	10	73	-
미술	614	-	610	-
공예	1,175	166	279	-
사진	817	-	532	263
건축	4,832	3,000	13,748	705
음악	1,337	500	1,007	401
대중음악	1,184	600	688	361
국악	1,163	500	4,060	598
무용	861	300	432	-
연극	1,285	500	565	53
영화	1,876	800	1,372	1,200
방송	3,957	1,000	786	350
만화	2,002	1,200	3,003	2,000
기타	1,040	300	795	-
합계	1,255	300	1,191	18

자. 예술활동 종사형태_전업예술인

충남의 문화예술인의 예술활동 종사형태는 36.1%가 전업, 63.9%가 겸업으로 하고 있어 전국(50:50)과 비교하면, 겸업비율이 높다.

〈표 3-21〉 충남문화예술인의 예술활동 종사형태_전업예술인

(단위 : 명, %)

예술활동 종사형태		합계	전업	겸업
전국	예술인수	5,008	2,505	2,503
	비율	100.0	50.0	50.0
충남	예술인수	243	88	155
	비율	100.0	36.1	63.9

차. 전업예술인 분야별 종사형태

충남의 문화예술인 중 전업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 프리랜서가 78.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주 11.1%, 정규직 5.1%, 기간제 등 3.8%, 시간제 1.4%로 조사되었다. 그중 고용주로 종사하는 분야는 건축, 음악, 국악, 연극, 기타분야이고, 정규직은

음악, 국악, 연극, 영화분야이며, 기간제 등은 대중음악, 무용, 연극, 기타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었다.

〈표 3-22〉 충남문화예술인의 분야별 예술활동 종사형태_전업예술인

(단위 : 명, %)

전업예술인 종사형태		고용주	정규직	기간제/계약직 /임시직/촉탁직	파트타임 /시간제	프리랜서	합계
합계	예술인수	10	4	3	1	69	88
	비율	11.1	5.1	3.8	1.4	78.6	100.0
문학	예술인수	-	-	-	-	6	6
	비율					100.0	100.0
미술	예술인수	-	-	-	-	11	11
	비율					100.0	100.0
공예	예술인수	-	-	-	-	1	1
	비율					100.0	100.0
사진	예술인수	-	-	-	-	1	1
	비율					100.0	100.0
건축	예술인수	1	-	-	-	-	1
	비율	100.0					100.0
음악	예술인수	1	2	-	-	6	9
	비율	10.0	20.5			69.4	100.0
대중 음악	예술인수	-	-	1	-	5	6
	비율			15.4		84.6	100.0
국악	예술인수	2	1	-	-	4	7
	비율	36.4	7.0			56.7	100.0
무용	예술인수	-	-	1	-	4	5
	비율			20.0		80.0	100.0
연극	예술인수	3	1	1	-	10	14
	비율	21.4	4.9	4.9		68.7	100.0
영화	예술인수	-	2	-	-	5	7
	비율		22.1			77.9	100.0
방송	예술인수	-	-	-	-	2	2
	비율					100.0	100.0
만화	예술인수	-	-	-	-	9	9
	비율					100.0	100.0
기타	예술인수	2	-	1	1	4	8
	비율	23.0		8.1	14.9	54.0	100.0

차. 겸업예술인 분야별 종사형태

① 겸업예술인 예술활동 직업고용형태

충남의 겸업예술인의 예술활동에 있어 직업고용형태는 프리랜서가 94.1%로 가장 많았으며, 시간제 2.4%, 기간제 1.5%, 고용주 1.1%, 정규직 0.9%였다. 전국에 비해 프리랜서 및 시간제 고용형태가 많았으며, 일용직이나 파견 등의 형태는 없었다.

〈표 3-23〉 충남문화예술인의 예술활동 직업 고용형태_겸업예술인

(단위 : 명, %)

겸업예술인 예술활동 고용형태		합계	고용주	정규직	기간제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파트타임 /시간제	파견 /용역	프리랜서	기타
전국	예술 인수	2,503	48	45	56	13	40	4	2,190	106
	비율	100.0	1.9	1.8	2.3	0.5	1.6	0.2	87.5	4.2
충남	예술 인수	155	2	1	2		4		146	
	비율	100.0	1.1	0.9	1.5		2.4		94.1	

② 겸업예술인 예술활동 외 직업고용형태

충남의 겸업예술인의 예술활동 외에 있어 직업고용형태는 정규직이 32.9%로 가장 많았으며, 기간제 29.0%, 고용주 13.4%, 프리랜서 11.0%, 시간제 9.4%, 파견 등이 0.6%로 조사되었다. 전국과 비교해서, 정규직과 기간제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형태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

〈표 3-24〉 충남문화예술인의 예술활동 외 고용형태_겸업예술인

(단위 : 명, %)

겸업예술인 예술활동 외 고용형태		합계	고용주	정규직	기간제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파트타임 /시간제	파견 /용역	프리랜서	기타
전국	예술 인수	2,503	359	629	678	46	323	9	309	151
	비율	100.0	14.3	25.1	27.1	1.8	12.9	0.3	12.3	6.0
충남	예술 인수	155	21	51	45		15	1	17	6
	비율	100.0	13.4	32.9	29.0		9.4	0.6	11.0	3.7

2)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조사·분석

(1)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조사 개요

5개의 문화예술인 클러스터는 ①홍주문화연구회, ②야투, ③전통예술단 혼, ④계룡산도예촌, ⑤보부상 난전놀이 등이며, 각 클러스터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홍주문화연구회⁵⁰⁾

‘홍주문화연구회⁵¹⁾(이하 단체)’는 홍성지역에 거주하며 홍성의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만들어낸 단체이다. 설립의 계기는 홍성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기획자, 문화예술 발전을 기대하는 행정공무원, 지역신문의 문화예술 분야 취재기자 등이 홍성의 문화예술 전반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만들어졌다.

2012년 3월께 당시 지역신문사인 홍성신문 취재부장 전상진(현 연구회장)과 2011년 11월 개관한 고암이용노생가기념관(이용노의 집) 학예연구사 윤후영(현 연구회 부회장), 문화재청 ‘살아 숨 쉬는 서원·향교-결성향교 사업’을 진행한 문화 in 기획자 이현조(현 연구회 운영위원) 등 세 사람이 지역 문화예술과 역사, 문화유산 전반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단체 결성’을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아⁵²⁾형성되었고, 현재 총 17명의 회원들이 홍성지역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술창작 및 활동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

시각예술(고암 이용노 화백 사업)·문학예술(만해 한용운 선생 사업)·공연예술(명고명무 한성준 선생 사업)을 연결하는 홍성의 문화지도(지형도) 구축과 홍성역사인물축제 등 축제 활성화를 비롯한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예술 인재 양성 연구를 추진하며, 2년여 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사업 수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5년 4월 비영리단체 등록을 마쳤다.

2015년 11월 연구팀과 사업팀을 분리, 올해 ‘중고제 전통문화 육성사업-한성준과 중고제, 그 소리와 가락을 찾아서’를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다. 회원들의 연계 속에 각각의 축제 활성화와 예술마을 구축사업, 문화재청 사업, 관광두레사업, 영상미디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50) 본 내용은 홍주문화연구회 단체 소개서 및 회장 전상진의 자문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51) 창립 당시 ‘홍주문화연대’라는 명칭이었지만, 아직 ‘연대’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시기상 역부족이라는 회원 전체의 의견에 따라 ‘홍주문화연구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52) 그동안 지역의 홍성문화원, 홍성예총, 그리고 그 밖의 문화예술 단체의 구태의연한 행태에 대한 반성으로 인해 모임 결성에 대한 필요성은 더 부각된 상황이었다.

회원 상호간 연구 성과를 각 사업마다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홍주문화연구회는 홍성 문화예술 단체를 연결하는 ‘문화연대’ 적 토대를 구축하며, ‘홍성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계획이다.

나. 야투(野投)⁵³⁾

야투(野投)⁵⁴⁾는 공주 금강백사장(현재 금강둔치공원)을 배경으로 자연미술 활동을 위해 공주를 연고로 한 20~30대의 젊은 청년작가들이 1981년 8월 15일에 창립하였다. 자연미술 사계절 연구 활동이 중심이었으며, 창립당시 대학에서의 식상한 미술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순수 본래의 미술 즉 미술이라는 원초적 행위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0년이 지난 1990년대에는 국제교류 및 전시활동을 하며 성장하였고, 2000년대에는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개최와 야투자연미술국제레지던시프로그램⁵⁵⁾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지역주민(원골마을)과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미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하며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공주금강과 연미산, 제민천 등에 100여점의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들을 상설·기획 전시하게 되었고, 시민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예술문화공간과 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13년 국제자연미술기획자 회의를 계기로 2014년부터 출범한 글로벌노마딕아트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을 비롯한 인도에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해 오고 있고 지금은 남아프리카에서 한 달간 진행 중이며 12월에는 이란에서, 2017년에는 유럽 7개국, 2018년에는 영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사회적협동조합 ‘자연의소리’⁵⁶⁾는 모법인이었던 사단법인 한국자연미술가협회-야투로부터 분리 독립⁵⁷⁾하여 전문예술기획활동과 자연미술교육프로그램을 상설화하고 경제적 기반

53) 본 내용은 야투(野投)의 대표인 고승현의 자문 의견과 야투소개서인 ‘YATOO 1981-’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54) 야투(野投)는 한국자연미술가협회의 명칭으로 “들에서 던지다.”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다. ‘들=자연’, ‘던지다=표현하다.’를 의미한다고 하며 “인간이 자연을 향해 자신의 표현의지를 던질 때 자연도 인간에게 자연의 메시지를 던져와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중복된 이미지”라고 설명하고 있다.(자료: 진선희, 2016, 한국 자연미술가 협회 야투 연구, 홍익대, p13)

55) 야투자연미술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야투 자연미술의 집에서 진행되는데 매년 15여명의 작가가 다녀가고 있다.

56) 2014년에 충남예비사회적기업으로 출발하여 2016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연의소리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증받음과 동시에 4월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57) 모법인과 분리 독립한 이유는 야투는 자연미술을 전공하는 예술가들의 모임으로 예술가들끼리의 활동은 어느새 35년의 고령화가 되었고, 시대의 변화와 다양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글로벌한 시대에 다음 세대로의 전환이 필요한 데다가 지역 네트워크, 공공적인 나눔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을 다지기 위해 시작하였다. 사업으로 아트마케팅, 자연친화적 인테리어, 건축, 조경디자인 등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모법인인 야투가 주최, 주관하는 비엔날레나 레지던시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35년에 이르는 동안 야투의 자연미술은 한국은 물론 동서양의 많은 작가들과 예술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야투자연미술국제레지던시프로그램, 야투인터내셔널프로젝트, 글로벌노마드아트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의 자연미술가들과 함께 만나 작업하고 있고⁵⁸⁾, 사회적협동조합자연의소리를 통해 활동의 지속성 확보와 지역사회와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다. 전통예술단 혼⁵⁹⁾

전통예술단 혼의 시작은 서천이 고향인 두 명의 예술가가 서로 교류를 하면서 부터이다. 서천이 고향인 현 대표와 예술 감독이 졸업 후 익산에서 활동하다 서천으로 들어와 처음 단체를 만들었고, 이후 알고 있는 선후배 혹은 지인들을 서천지역에 거주하게 하며 단체를 형성하였다. 초기 활동은 서천읍 내에서 하였으나 연습으로 인한 소음문제로 인해 마산면에 현재의 약 1,500여평의 부지와 건물을 인수하여 문화예술촌으로서 활용하고 있다.

이후 보다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 ‘사회적 기업’ 설립을 통한 본격적인 예술단체로서 규모를 다지게 되었다⁶⁰⁾. 2014년 부터는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이 합류하여 예술기획과 경영의 이원화된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단체조직은 사무국과 공연팀, 문화예술교육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15명에 1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활동 내용으로는 서천지역의 문화자원인 한산모시, 성경전래지 등을 소재로 한 문화예술 창작과 콘텐츠 개발, 지역과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지역 내 복지시설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월 1회 이상의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공연을 하고 있다.

또한 취약한 문화예술 단체들이 협력하여 더 잘 살 수 있는 활동의 일환으로서 서천지역을

58) 이러한 자연미술은 공주에서 자생하여 35년 동안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미술운동으로서 2014년에는 국가기록원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등재되었다.

59) 본 내용은 전통예술단 혼에서 제공한 안내서, 류승민 사무국장의 자문의견서, 국가문화예술시스템에서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60) 2011년 6월 충남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고, 2013년 9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

넘어 충남권 내에 문화·예술 사회적기업들이 연계된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 판’이라는 조합의 창립총회를 마쳤고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인들 간에 상생구조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

라. 계룡산도예촌⁶¹⁾

조선시대(14C 후기~16C 전기) 계룡산 동학동은 철화분청사기를 생산하는 중심지로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1991년 9월경 대전도예가협회 창립 전시회에 참가한 작가군과 도예전공자들은 계룡산 철화분청사기를 복원하고 전통을 계승하자는 의지를 갖고 도예촌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개인적으로 자금을 모아 공주시 상신리에 5,200평의 부지를 매입한 후에 개인 공방과 주택을 건축하였다. 1992년 11월에 도예촌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구상을 하였으며 1993년 4월부터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그 해, 첫 공방을 시작으로 개인공방이 지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초기부터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현재의 종합 전시장과 전통오름가마는 1995년 공주시의 농·어촌 특산 단지 자금(3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만들어졌다.

계룡산도예촌은 당시에 전국 최초로 사업계획을 구상하여 일괄적으로 조성된 최초의 도예마을이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철화분청사기 복원을 내세운 젊은 도예가들에게 이목이 집중되었다.

2004년 공주시 「국제 도자문화 교류축전에 관한 연구」를 자료로 도자기 축제를 개최하였고, 2007년에는 상신야영장과 도예촌 운동장을 보완하고 도로를 확·포장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였다. 현재, 계룡산분청사기 축제를 8회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한·중·일 국제도자 교류전 등을 유치하여 전시를 하는 등 작품 전시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철화분청사기의 대표적 장소로 자리매김하며 전공자와 그 외, 도자 애호가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도 철화분청사기의 분야별 관심에 따라 조형, 문양, 재료 등에 관심을 갖고 각 개인의 작업과 논문을 작성하여 발표하는 등, 복원에 관한 많은 실질적인 내용물을 발표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예촌에 관심을 가졌던 시민들의 호감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는 점, 개인공방 위주의 운영으로 인한 문제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61) 본 내용은 한남대학교 디자인학과 이재황 교수의 자문, 김서령(2007), 도자기를 사랑한 이들 계룡산 자락에 생을 풀다 : 충남공주 계룡산도예촌, 한국농어촌공사, pp34-37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마. 보부상 난전놀이

보부상 난전놀이가 만들어진 계기는 1974년도에서 1975년까지 예덕상무사 두령을 지낸 윤규상(2015년 작고)씨가 보부상들의 삶과 애환이 깃든 생활상을 풍자와 익살 그리고 해학이 넘치는 놀이로 재현하여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출발은 2000년 초에 8명의 회원으로 ‘예덕상무사 재현놀이 보존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으나, 예산군 덕산면 일원에 보부상촌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세워지면서 내부의 갈등으로 2013년 2개의 단체로 분리된 상태이다⁶²⁾. 2개의 단체로 분리되면서 응집력은 약해졌지만 지역의 전통을 소재로 하여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생활 예술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난전놀이 공연 내용으로는 조선시대에 예산과 덕산 장날을 오가며 물건을 파는 약장수, 옹기장수, 엿장수, 떡장수, 비단장수, 짚신장수 그리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지게에 지고 파는 나무꾼 보부상인들이 있고, 장터의 보부상들은 봇짐과 등짐을 지고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난전 상인들로 장터에서 손님을 끌어 모으기 위한 죽방울 놀이, 각설이와 각설이타령 등이 있다. 공연을 위한 연습활동으로 일주일에 2회 정도 모임을 가지며, 전문가의 지도교육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받고 있다. 지역기관 및 주민과의 교류로서 직거래 장터, 사회복지시설 등의 방문 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실태 분석

가. 일반사항 - 거주지, 거주기간, 예술인 경력 및 종사장르

① 거주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거주지’를 보면, 대상지역에 거주분포 비율이 90% 이상으로 나타나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야투’의 경우는 예술인 14명 중 5명이 공주에서 거주하고 다른 예술인 들은 대전 3, 세종 1, 안성 2, 서울 인천, 광주에 각 1명씩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투’ 예술인들은 초기에 공주지역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거주지를 공주 외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야투’라는 단체를 매개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2) 두 단체 회원 56명(예덕상무사 34명, 난전놀이 22명)으로 되어 있다(무한정보신문, 2016.08.08.(월), 보부상놀이패 통합 성공, 기사 내용을 참조).

〈표 3-25〉 문화예술인 클러스터별 예술인 거주지 현황

거주지	구분	홍주문화 연구회	야투	전통예술단 혼	계룡산 도예촌	보부상 난전놀이	전체
합 계	빈도	30	14	10	13	30	97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공주시	빈도	-	5	-	13	-	18
	비율(%)	-	35.7	-	100.0	-	18.6
보령시	빈도	1	-	-	-	-	1
	비율(%)	3.3	-	-	-	-	1.0
홍성군	빈도	29	-	-	-	-	29
	비율(%)	96.7	-	-	-	-	29.9
예산군	빈도	-	-	-	-	30	30
	비율(%)	-	-	-	-	100.0	30.9
서천군	빈도	-	-	9	-	-	9
	비율(%)	-	-	90.0	-	-	9.3
세종시	빈도	-	1	-	-	-	1
	비율(%)	-	7.1	-	-	-	1.0
대전시	빈도	-	3	-	-	-	3
	비율(%)	-	21.4	-	-	-	3.1
서울시	빈도	-	1	-	-	-	1
	비율(%)	-	7.1	-	-	-	1.0
수원시	빈도	-	-	1	-	-	1
	비율(%)	-	-	10.0	-	-	1.0
안성시	빈도	-	2	-	-	-	2
	비율(%)	-	14.3	-	-	-	2.1
인천시	빈도	-	1	-	-	-	1
	비율(%)	-	7.1	-	-	-	1.0
광주시	빈도	-	1	-	-	-	1
	비율(%)	-	7.1	-	-	-	1.0

② 현거주지 거주기간

거주기간은 평균 22.1년으로 조사되었는데, 거주기간이 가장 긴 클러스터는 ‘보부상난전놀이’였고, 가장 짧은 클러스터는 ‘전통예술단혼’으로 나타났다.

각각에 클러스터 마다 평균 거주 기간이 다른데 이는 클러스터의 형성 역사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거주기간이 가장 긴 집단인 ‘보부상난전놀이’의 거주기간은 31.1년으로 나타났는데, 구성원들이 예산에서 농사로 경제활동을 하며 문화활동을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가장 짧은 ‘전통예술단 혼’의 경우는 서천에 이주하여 형성된 역사가 짧기 때문이고, ‘야투’의 경우

거주기간이 다른 클러스터보다 짧은 것은 공주지역에서 외부지역으로 이주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표 3-26〉 예술인의 현거주지 거주기간 현황

구분	홍주문화 연구회	야투	전통예술단 흔	계룡산 도예촌	보부상 난전놀이	전체평균
평균거주기간	21.2년	14.9년	9.4년	20.7년	31.1년	22.1년

③ 예술인 연령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예술인들의 연령은 평균 54.5세로 클러스터의 역사에 따라 편차가 있었다. 가장 높은 연령대를 보인 것은 ‘보부상난전놀이’였으며 가장 낮은 연령대를 보인 것은 ‘전통예술단흔’이었다. ‘보부상 난전놀이’를 제외하고는 50세 내외로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비하면 예술가들의 연령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7〉 예술인 클러스터 연령

구분	홍주문화 연구회	야투	전통예술단 흔	계룡산 도예촌	보부상 난전놀이	전체평균
평균 연령	49.9세	52.8세	33.4세	50.8세	68.5세	54.5세

④ 예술인 경력

예술인으로서의 평균 경력 15.1년으로 거주기간, 연령과 상관성은 낮았다. ‘야투’는 26.8년, ‘계룡산도예촌’은 24.2년으로 예술인으로서 활동 역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통 예술단흔’의 경우 평균 경력이 12.3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예술인들의 평균연령이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표 3-28〉 예술인 경력

구분	홍주문화 연구회	야투	전통예술단 흔	계룡산 도예촌	보부상 난전놀이	전체평균
평균 경력	16.1년	26.8년	12.3년	24.2년	5.5년	15.1년

⑤ 종사하고 있는 예술 장르

클러스터별로 예술인들의 종사 장르를 보면, ‘홍주문화연구회’의 경우 미술, 국악이 많지만, 음악, 연극, 무용, 문학, 건축, 사진 등 매우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야투’의 경우는 미술(자연미술), ‘전통예술단혼’은 무용, 국악, ‘계룡산도예촌’은 미술(도예), ‘보부상난전놀이’는 연극, 국악의 비중이 높았다.

〈표 3-29〉 클러스터별 예술인들이 종사하고 있는 장르

예술 장르		홍주문화 연구회	야투	전통예술단 혼	계룡산 도예촌	보부상 난전놀이
합계	빈도(명)	36	18	12	14	42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문학	빈도(명)	2				
	비율(%)	5.6				
미술	빈도(명)	8	14		11	
	비율(%)	22.2	77.8		78.6	
음악	빈도(명)	4		1		
	비율(%)	11.1		8.3		
무용	빈도(명)	2		7		1
	비율(%)	5.6		58.3		2.4
연극	빈도(명)	3				17
	비율(%)	8.3				40.5
국악	빈도(명)	8		3		4
	비율(%)	22.2		25.0		9.5
사진	빈도(명)	1	2			
	비율(%)	2.8	11.1			
건축	빈도(명)	1				
	비율(%)	2.8				
출판	빈도(명)		1			
	비율(%)		5.6			
만화	빈도(명)		1			
	비율(%)		5.6			
기타	빈도(명)	7		1	3	20
	비율(%)	19.4		8.3	21.4	47.6

나. 거주동기 - 거주지에서 활동하게 된 동기, 거주공간의 용도 및 거주지 활동의 장점

① 현 거주지에서 활동하게 된 동기

거주지에서 활동하게 된 동기로는 ‘예술가들과의 교류 용이’, ‘지역사회에 기여’, ‘고향 및 연고지여서’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클러스터(예: 계룡산도예촌) 일수록 예술가들과의 교류 용이에 대해 높은 동기를 부여하고 있었다.

〈표 3-30〉 현 거주지에서 활동하게 된 동기

현 거주지에서 활동동기		홍주문화 연구회	야투	전통예술단 혼	계룡산 도예촌	보부상 난전놀이	전체 합계
합계	빈도	41	21	17	20	49	148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고향 및 연고지여서	빈도	10	4	3		27	44
	비율(%)	24.4	19.0	17.6		55.1	29.7
공간을 얻기가 용이해서	빈도	1	4		5		10
	비율(%)	2.4	19.0		25.0		6.8
교통이 편리해서	빈도	1	1				2
	비율(%)	2.4	4.8				1.4
예술가들과 교류의 용이	빈도	12	4	5	12	9	42
	비율(%)	29.4	19.0	29.4	60.0	18.4	28.3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빈도	14	3	8	1	12	38
	비율(%)	34.1	14.3	47.1	5.0	24.5	25.7
기타	빈도	3	5	1	2	1	12
	비율(%)	7.3	23.9	5.9	10.0	2.0	8.1

② 현 거주공간의 용도

거주공간의 용도를 보면, 거주, 창작, 교육, 전시 순으로 나타났으며, 홍보·판매공간을 거주 공간에 두고 있는 곳은 계룡산도예촌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거주공간’의 비율이 가장 높은 클러스터는 ‘보부상난전놀이’이고, 다음으로 ‘홍주분화연구회’, ‘야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부상난전놀이’의 경우 대부분 거주공간을 ‘거주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작공간’의 용도로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로는 ‘전통예술단혼’, ‘계룡산도예촌’, ‘야투’, ‘홍주문화연구회’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공간’을 가지고 있는 곳은 ‘전통예술단혼’, ‘홍주문화연구회’, ‘야투’, ‘계룡산도예촌’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1〉 현 거주공간의 용도

현 거주공간의 용도		홍주문화 연구회	야투	전통예술단 혼	계룡산 도예촌	보부상 난전놀이	전체 합계
합계	빈도(명)	48	38	20	38	32	176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거주공간	빈도(명)	21	12	5	6	30	74
	비율(%)	43.7	31.6	25.0	15.8	93.8	42.0
창작공간	빈도(명)	11	9	8	13	1	42
	비율(%)	22.9	23.7	40.0	34.2	3.1	23.9
전시공간	빈도(명)	1	6		6		13
	비율(%)	2.1	15.8		15.8		7.4
교육공간 (세미나, 학습 등)	빈도(명)	10	6	6	4	1	27
	비율(%)	20.8	15.8	30.0	10.5	3.1	15.3
홍보, 판매 공간	빈도(명)	3	4		9		16
	비율(%)	6.3	10.5		23.7		9.1
기타	빈도(명)	2	1	1			4
	비율(%)	4.2	2.6	5.0			2.3

③ 현 거주지에서 활동의 장점

현거주지에서 활동의 장점으로 ‘주변환경이 예술활동에 적합’ 항목에 높은 응답률을 보인 곳은 계룡산도예촌, 전통예술단혼, 야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들과 소통의 기회’ 항목에 높은 응답률을 보인 곳은 보부상난전놀이, 홍주문화연구회 등이었다.

‘예술가들과의 교류 용이’ 항목은 계룡산도예촌, 전통예술단혼, 야투, 홍주문화연구회, 보부상난전놀이 등 모든 클러스터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징적인 것은 ‘예술가들과의 교류 용이’ 항목은 대부분의 클러스터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의 다음 항목으로 모든 클러스터에서 나타난 것이다.

전문예술인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클러스터일수록 창작과 관련된 ‘주변환경이 예술활동에 적합’에 중요성을 부여하였고 다음으로 ‘예술가들과의 교류 용이’를 선택하고 있었다.

〈표 3-32〉 현 거주지에서 활동의 장점

현 거주지에서 활동의 장점		홍주문화 연구회	야투	전통예술단 혼	계룡산 도예촌	보부상 난전놀이	전체 합계
합계	빈도(명)	56	25	20	29	43	173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예술가들과 교류가 용이	빈도(명)	14	6	6	9	14	49
	비율(%)	25.0	24.0	30.0	31.0	32.6	28.3
주민들과 소통의 기회	빈도(명)	21	5	3		21	50
	비율(%)	37.5	20.0	15.0		48.8	28.9
주변환경이 예술 활동에 적합	빈도(명)	7	9	8	12	3	39
	비율(%)	12.5	36.0	40.0	41.4	7.0	22.5
거주지의 높은 인지도	빈도(명)	1			4	4	9
	비율(%)	1.8			13.8	9.3	5.2
편리한 교통	빈도(명)	4	3	1	2	1	11
	비율(%)	7.1	12.0	5.0	6.9	2.3	6.4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	빈도(명)	6		2	2		10
	비율(%)	10.7		10.0	6.9		5.8
기타	빈도(명)	3	2				5
	비율(%)	5.4	8.0				2.9

④ 주변지역에서 알고 교류하는 예술인 수

주변지역에서 알고 교류하는 예술가 수에 대해서는 클러스터별로 차이를 보였다. ‘홍주문화연구회’의 경우 ‘3~5명’에 34.5%, ‘31명 이상’에 31.0%를 보여 개인별로 활동에 따라 편차를 보였다. ‘야투’의 경우 ‘21~30명’에 28.6%, ‘31명 이상’에 57.2%를 보여 대부분의 구성원이 21명 이상의 예술인과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예술단혼’의 경우는 ‘11~20명’이 가장 많았으며, ‘계룡산도예촌’의 경우 ‘11~20명’에 53.8%, ‘31명 이상’에 38.5%의 응답을 보였다.

클러스터별로 알고 교류하는 예술가 수는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모집단의 예술인의 수에 영향을 받으며,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3〉 주변지역에서 알고 교류하는 예술인 수

알고 교류하는 예술가 수		홍주문화 연구회	야투	전통예술단 혼	계룡산 도예촌	보부상 난전놀이	전체 합계
합 계	빈도(명)	29	14	10	13	30	96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명	빈도(명)	1		1		1	3
	비율(%)	3.4		10.0		3.3	3.1
3~5명	빈도(명)	10	1	1		7	19
	비율(%)	34.5	7.1	10.0		23.3	19.8
6~10명	빈도(명)	5		1		7	13
	비율(%)	17.3		10.0		23.3	13.5
11~20명	빈도(명)	2	1	6	7	2	18
	비율(%)	6.9	7.1	60.0	53.8	6.7	18.8
21~30명	빈도(명)	2	4	1	1		8
	비율(%)	6.9	28.6	10.0	7.7		8.3
31명 이상	빈도(명)	9	8		5	13	35
	비율(%)	31.0	57.2		38.5	43.4	36.5

⑤ 주변지역에서 알고 교류하는 주민 수

주변지역에서 알고 교류하는 주민 수에 대한 설문에서 ‘31명 이상’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클러스터로는 ‘홍주문화연구회’ 65.5%, ‘야투’ 64.3%, ‘전통예술단혼’ 50.0%, ‘보부상난전놀이’ 43.3% 순으로 높은 응답을 하였다.

‘계룡산도예촌’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항목이 ‘6~10명’ 33.3%로서, 개인별로 편차가 있고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4〉 주변지역에서 알고 교류하는 주민 수

알고 교류하는 주민 수		홍주문화 연구회	야투	전통예술단 혼	계룡산도예촌	보부상 난전놀이	전체 합계
합 계	빈도(명)	29	14	10	12	30	95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명	빈도(명)	1					1
	비율(%)	3.4					1.1
3~5명	빈도(명)	4		1		9	14
	비율(%)	13.8		10.0		30.0	14.7
6~10명	빈도(명)	2	3	1	4	1	11
	비율(%)	6.9	21.4	10.0	33.3	3.3	11.6
11~20명	빈도(명)	1	1	1	2	7	12
	비율(%)	3.4	7.1	10.0	16.7	23.3	12.6
21~30명	빈도(명)	2	1	2	3		8
	비율(%)	6.9	7.1	20.0	25.0		8.4
31명 이상	빈도(명)	19	9	5	3	13	49
	비율(%)	65.5	64.3	50.0	25.0	43.3	51.6

⑥ 거주하는 주변지역에서 예술가와의 교류 빈도

거주하는 주변지역에서 예술가와의 교류 빈도에서 가장 높은 빈도는 보인 것은 ‘1주일에 1~2회’에 전체 50%가 응답하였다.

〈표 3-35〉 거주하는 주변지역에서 예술가와의 교류 빈도

예술가와 교류빈도		홍주문화 연구회	야투	전통예술단 혼	계룡산도예촌	보부상 난전놀이	전체 합계
합계	빈도	29	14	10	13	30	96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없 다	빈도		1				1
	비율(%)		7.1				1.0

거의 매일	빈도	10	1		1	7	19
	비율(%)	34.5	7.1		7.7	23.3	19.8
1주일에 1~2회	빈도	10	6	2	8	22	48
	비율(%)	34.5	42.9	20.0	61.5	73.3	50.0
1달에 1~2회	빈도	7	5	7	3	1	23
	비율(%)	24.1	35.7	70.0	23.1	3.3	24.0
1년에 1~2회	빈도	2	1	1	1		5
	비율(%)	6.9	7.1	10.0	7.7		5.2

⑦ 거주하는 주변지역에서 주민들과의 교류 빈도

거주하는 주변지역에서 주민들과의 교류 빈도는 ‘1주일에 1~2회’에 41.5%, ‘1달에 1~2회’에 35.1%를 보였다.

〈표 3-36〉 거주하는 주변지역에서 주민들과의 교류 빈도

주민들과의 교류빈도		홍주문화 연구회	야투	전통예술단 혼	계룡산 도예촌	보부상 난전놀이	전체 합계
합계	빈도	29	13	10	12	30	94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없 다	빈도						
	비율(%)						
거의 매일	빈도	14	1			1	16
	비율(%)	48.3	7.7			3.3	17.0
1주일에 1~2회	빈도	11	5	2	5	16	39
	비율(%)	37.9	38.5	20.0	41.7	53.3	41.5
1달에 1~2회	빈도	4	5	6	5	13	33
	비율(%)	13.8	38.5	60.0	41.7	43.3	35.1
1년에 1~2회	빈도		2	2	2		6
	비율(%)		15.4	20.0	16.7		6.4

⑧ 거주환경의 창작 및 활동에 도움 정도

거주환경이 창작 및 활동에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도움이 됨’ 이 36.5%, ‘도움됨’ 이 29.2%로서 현 거주환경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7〉 거주환경의 창작 및 활동에 도움 정도

거주환경의 창작 및 활동에 도움 정도		홍주문화 연구회	야투	전통예술단 혼	계룡산 도예촌	보부상 난전놀이	전체 합계
합계	빈도	29	14	10	13	30	96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혀도움이 되지 않음	빈도		1				1
	비율(%)		7.1				1.0
도움이 되지 않음	빈도						0
	비율(%)						0.0
약간도움이 되지 않음	빈도						0
	비율(%)						0.0
보통	빈도	5	2	1		13	21
	비율(%)	17.2	14.3	10.0		43.3	21.9
약간 도움이 됨	빈도	3	2		1	5	11
	비율(%)	10.3	14.3		7.7	16.7	11.5
도움됨	빈도	8	6	3	8	3	28
	비율(%)	27.7	42.9	30.0	61.5	10.0	29.2
매우 도움이 됨	빈도	13	3	6	4	9	35
	비율(%)	44.8	21.4	60.0	30.8	30.0	36.5

⑨ 거주환경과 거주지에 대한 자부심의 정도

거주환경과 거주지에 대해 자부심의 정도에 있어 ‘매우 자부심을 가짐’에 32.6%, ‘자부심을 가짐’에 30.5%를 보여 대체적으로 거주지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8〉 거주환경과 거주지에 대한 자부심의 정도

거주환경 및 거주지의 자부심 정도		홍주문화 연구회	야투	전통예술단 흔	계룡산 도예촌	보부상 난전놀이	전체 합계
합계	빈도	29	14	9	13	30	95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혀 자부심이 없음	빈도		1				1
	비율(%)		7.1				1.1
자부심이 없음	빈도						0
	비율(%)						0.0
약간 자부심이 없음	빈도						0
	비율(%)						0.0
보통	빈도	4	4		1	10	19
	비율(%)	13.8	28.6		7.7	33.3	20.0
약간 자부심을 가짐	빈도	4	2	2	1	6	15
	비율(%)	13.8	14.3	22.2	7.7	20.0	15.8
자부심을 가짐	빈도	10	3	5	7	4	29
	비율(%)	34.5	21.4	55.6	53.8	13.3	30.5
매우 자부심을 가짐	빈도	11	4	2	4	10	31
	비율(%)	37.9	28.6	22.2	30.8	33.3	32.6

⑩ 지난 1년 동안 창작활동에 도움을 받은 예술가 혹은 단체

지난 1년 동안 창작활동에 도움을 받은 예술가 혹은 단체에 설문에서는 항목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클러스터별로는 분포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주문화연구회’, ‘야투’는 지역예술가, 주역주민 과 민간기관, 자치단체, 충남도, 예술단체, 중앙정부, 전국규모의 민간예술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고르게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예술단흔’의 경우는 거주지역 내 동일 분야 예술가 보다는 타분야 및 타지역의 예술가, 지역주민과 기관, 충남도 및 문화재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 중앙정부, 전국 규모의 민간예술단체, 지역의 민간예술단체로 부터는 도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룡산도예촌’의 경우 거주지역 외부에 다른 분야의 예술, 전국규모의 민간예술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9〉 지난 1년 동안 창작활동에 도움을 받은 예술가 혹은 단체

예술가 혹은 단체		홍주문화 연구회	아트	전통예술단 혼	계룡산 도예촌	보부상 난전놀이	전체 합계
합계	빈도	165	73	38	31	54	361
	1인당빈도	5.5	5.2	3.8	2.4	1.8	평균3.7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거주지역 내 주변의 귀하와 동일한 분야 예술가	빈도	19	9		7		35
	비율(%)	11.5	12.3		22.6		9.7
거주지역 내 귀하와 타분야 예술가	빈도	16	5	7	2		30
	비율(%)	9.7	6.8	18.4	6.5		8.3
지역 지원기관 및 프로그램	빈도	15	6	5	5		31
	비율(%)	9.1	8.2	13.2	16.1		8.6
지역 주민 및 민간단체	빈도	23	4	3	1	15	46
	비율(%)	13.9	5.5	7.9	3.2	27.8	12.7
거주지역 외부에 동일한 분야 예술가	빈도	14	11	5	3		33
	비율(%)	8.5	15.1	13.2	9.7		9.1
거주지역 외부에 타 분야 예술가	빈도	14	8	6		1	29
	비율(%)	8.5	11.0	15.8		1.9	8.0
거주지 내 자치단체 (시청, 군청)	빈도	13	6	4	3		26
	비율(%)	7.9	8.2	10.5	9.7		7.2
충남도청 / 충남문화재단	빈도	11	5	8	2	14	40
	비율(%)	6.7	6.8	21.1	6.5	25.9	11.1
중앙정부 관련 기관(문관부 등)	빈도	8	6		4		18
	비율(%)	4.8	8.2		12.9		5.0
전국 규모의 민간예술단체	빈도	8	2			10	20
	비율(%)	4.8	2.7			18.5	5.5
지역의 민간 예술단체	빈도	18	2		1	14	35
	비율(%)	10.9	2.7		3.2	25.9	9.7
학교 (대학 및 모교)	빈도	6	8				14
	비율(%)	3.6	11.0				3.9
기타	빈도		1		3		4
	비율(%)		1.4		9.7		1.1

다. 예술인과의 네트워크에 대하여

① 설문 예술인들의 네트워크 형성의 특성

설문 예술인들이 예술인들과 형성하는 네트워크 특성을 연결정도집중도, 근접집중도, 매개 집중도로 보면 다음과 같았다.

〈표 3-40〉 예술가와의 협업 예술가 집중도 분석 결과

구분		연결정도 집중도(로컬)	근접 집중도(글로벌)	매개 집중도
협력예술가	내향(in)	11.15	15.155	0.684
	외향(out)	7.844	7.523	

② 연결정도 집중도

연결정도 집중도(중심성)를 내향과 외향으로 구분하여 보면, 내향연결정도중심성이 높다는 의미는 국지적 네트워크 범위 내에서 다른 예술인들이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명예 또는 전망이 높은 사람을 의미하며, 외향연결정도중심성이 높다는 의미는 국지적 네트워크 범위에서 일명 마당발로 통할만큼, 주변 예술인과의 인적 교류망이 두터운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설문 예술인들의 협력네트워크 특성을 보면, 외향연결정도중심성보다는 내향연결정도중심성이 높게 나와 국지적 지역을 중심으로 예술가들의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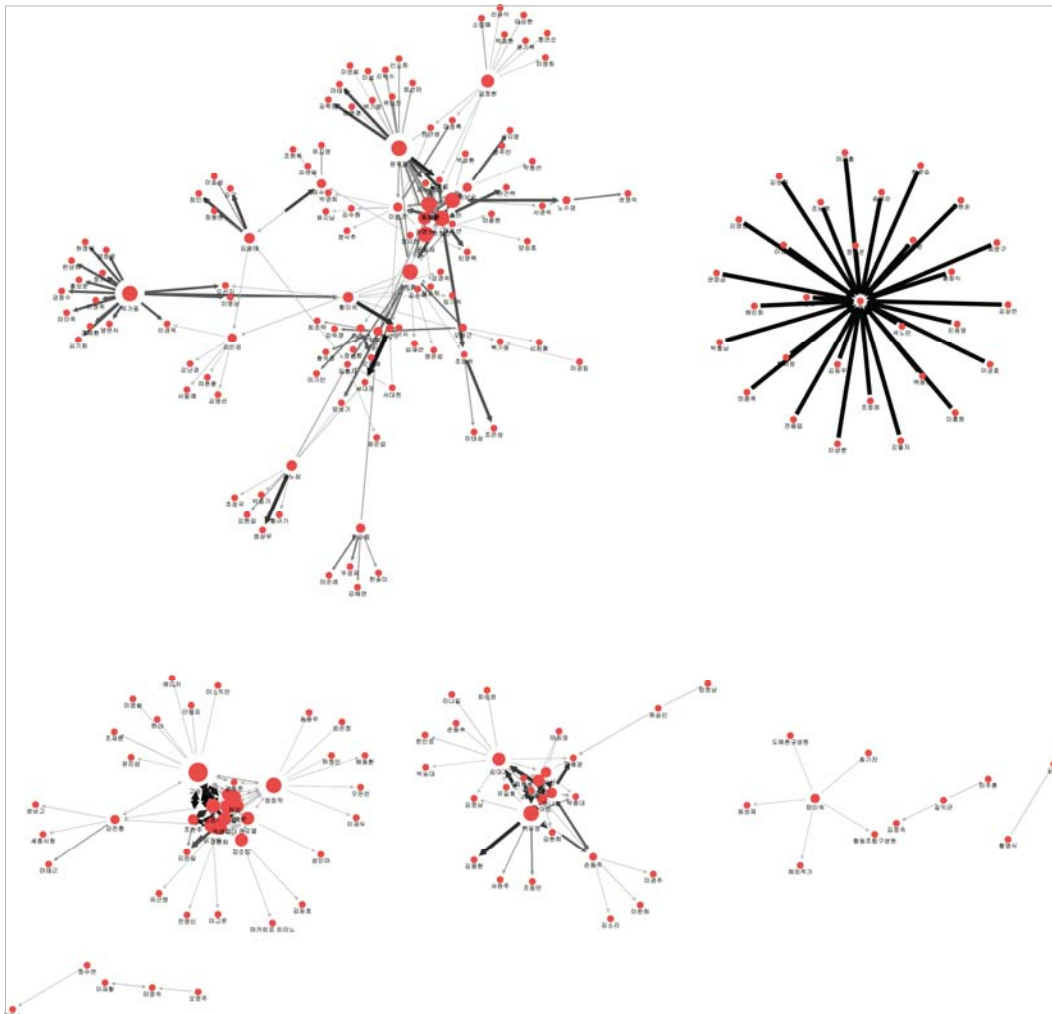
〈표 3-41〉 국지적 중심성이 높은 지역예술인(연결정도중심성지수)

순위	소속	이름	내향중심성	순위	소속	이름	외향중심성
1	보부상	이00	0.119342	1	한국자연 미술가협회	고00	0.086420
2	자연의소리	김00	0.053498	2	이응노의집	윤00	0.065844
3	한국자연 미술가협회	고00	0.049383	3	홍성문화연구소 길	최0	0.061728
4	-	전00	0.049383	4	홍주국악 관현악단	목00	0.061728
5	야투	이00	0.049383	5	한국연극협회	전00	0.061728
6	야투	고00	0.045267	6	홍성군청	공00	0.061728
7	자연의소리	허000	0.045267	7	홍성군청	손00	0.061728
8	-	권00	0.041152	8	야투	고00	0.061728
9	야투	정00	0.041152	9	야투	정00	0.061728
10	-	최00	0.041152	10	자연의소리	김00	0.061728
	중부대학교	허0	0.041152		전통예술단혼	백00	

주 : 연결정도중심성 지수가 높은 상위 10인 만 표기

〈그림 3-3〉은 외향 연결정도중심성 지수 전체를 가지고 스프링도표(소시오그램)로 시각화 한 것으로 노드의 반경이 클수록 국지적 차원(직접 연계된 예술인 수)에서 응답설문자들이 협력 예술인으로서 가장 많이 교류하는 사람임을 의미하며, 링크의 굵기는 교류의 강도(빈도)를 의미한다.

관계망도를 보면, 비교적 복잡한 3개의 다발형 네트워크망과 2개의 스타망, 그리고 4개의 1차원 망(2~3개 노드)으로 구성된 9개 하위 네트워크망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림 3-3〉 외향 연결정도중심성 관계망 그래프(협력예술가)

③ 근접 집중도(Closeness Centrality)

네트워크 내 근접 집중도가 높은 예술인일수록 정보, 권력, 영향력, 사회적 지원에 대한 확보와 접근이 쉬움을 의미하며, 이는 곧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 속에서 위세(prestige)가 높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 3-42〉 전역적 중심성이 높은 지역예술인(근접중심성지수)

순위	소속	이름	내향중심성	순위	소속	이름	외향중심성
1	보부상	이00	0.119342	1	홍성문화연구소 길	최0	0.146507
2	자연의소리	김00	0.053498	2	홍성군청	공00	0.135369
3	한국자연 미술가협회	고00	0.049677	3	홍성군청	손00	0.134582
4	-	전00	0.049677	4	홍성군	강00	0.134582
5	야투	이00	0.049677	5	한국연극협회	전00	0.133804
6	야투	고00	0.046365	6	금강일보	김00	0.133537
7	자연의소리	허000	0.046365	7	홍성군청	조00	0.13078
8	-	권00	0.043467	8	구항초등학교	김00	0.120637
9	야투	정00	0.043467	9	이응노의집	윤00	0.107167
10	-	최00	0.043467	10	홍성사회복지관	오00	0.106547
	중부대학교	허0	0.043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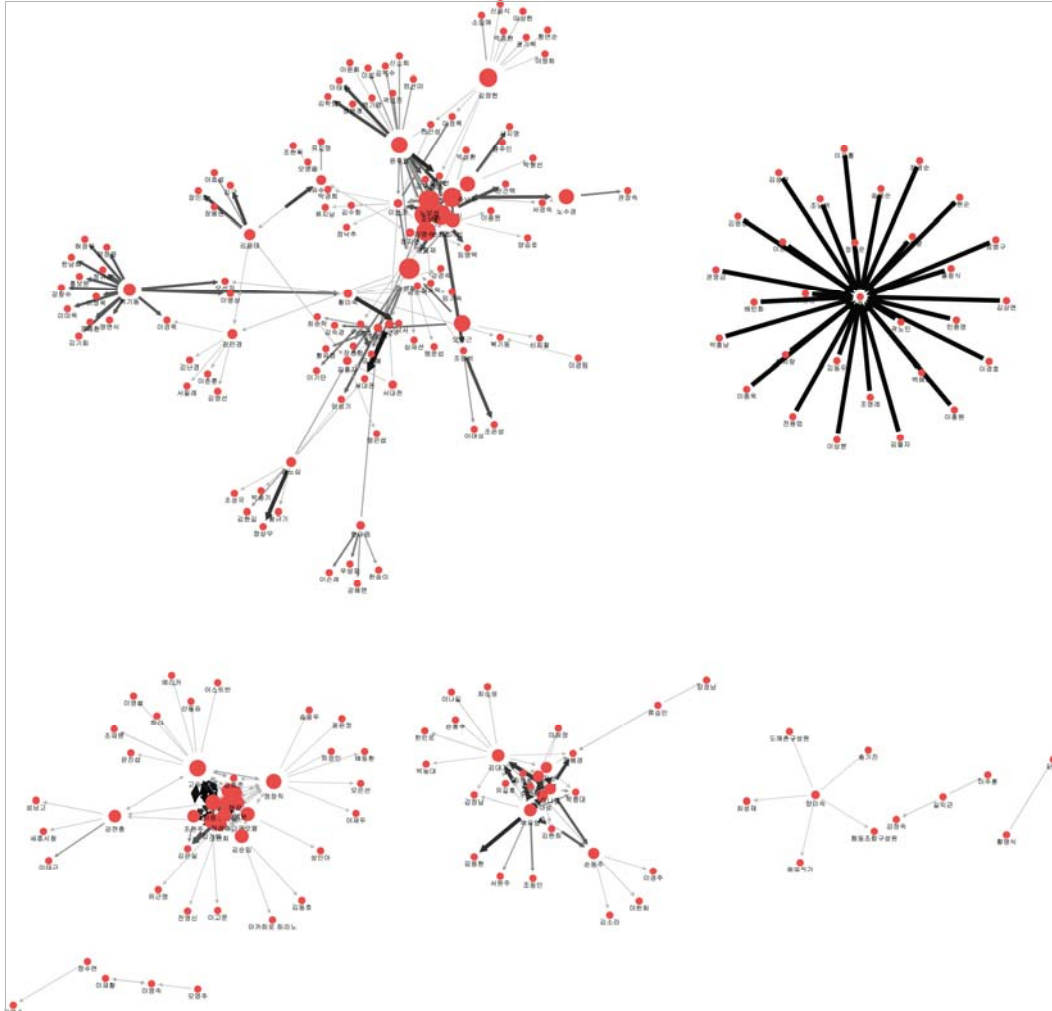
주 : 근접중심성 지수가 높은 상위 10인 만 표기

상위내향근접중심성은 내향연결정도중심성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향근접중심성의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속한 예술인과의 교류가 보다 활발히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 3-4〉는 〈표 3-42〉 중 외향 근접중심성 지수 전체를 가지고 스프링도표(소시오그램)로 시각화 한 것으로 노드의 반경이 클수록 네트워크 전체의 전역적 차원(직접 및 간접 연계된 예술인간의 링크 거리 계산)에서 응답설문자들이 협력예술인으로 가장 많이 교류하는 예술인으로 지목한 사람임을 의미하며, 링크의 굵기는 교류의 강도(빈도)를 의미한다.

분석결과, 국지적 중심성을 볼 수 있는 연결정도중심성과 매우 흡사한 관계망 그래프(노드 크기 주목)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하위네트워크 집단 간에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아닌, 지역단위의 소집단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네트워크 구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좌측 상단의 비교적 복잡한 네트워크 집단 일부를 제외하고, 국지적 중심성이 높은 지역예술인이 전역적 중심성 또한 높게 나타나는 유사적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 3-4〉 외향 근접중심성 관계망 그래프(협력예술인)

④ 매개 집중도⁶³⁾

설문응답에 기반한 협력예술가 네트워크망은 소집단 별로 네트워크망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네트워크망은 1인에 집중되어 있거나 또는 파편적으로 분절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러 소 네트워크 집단별로 분절 내지 파편화 되어 있는 이유는 이들 소 네트워크 집단간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매개해 줄 수 있는 지역예술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한다.

한편, 전체 예술인들 간의 네트워크는 동일지역 내에서 예술기관 및 단체별로 유사한 활동 내지 친분적 교류만을 할 뿐, 이질적인 예술단체들 간 또는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융복합적 창작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네트워크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분석은 전체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하위 네트워크 집단간을 매개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지역예술인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하위 네트워크 집단 범위 내에서도 구성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교류를 촉진하는 브로커 내지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내 예술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매개중심성이 높은 사람은 주로 홍성군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예술인으로 나타났다(표 3-43 참조).

〈표 3-43〉 매개중심성이 높은 지역예술인(매개중심성지수)

순위	소속	이름	매개중심성
1	홍성문화연구소길	최0	0.006983
2	한국연극협회	전00	0.004452
3	-	김00	0.003571
4	홍주들꽃사랑연구회	김00	0.003095
5	이응노의집	윤00	0.002185
6	한국자연미술가협회	고00	0.002077
7	문화in	이00	0.001998
8	홍성미술협회	주00	0.001803
9	홍성군청	손00	0.001621
10	홍길동	유00	0.001462

주 : 매개중심성 지수가 높은 상위 10인 만 표기

63) 매개 집중도(중심성)는 네트워크내에서 매개자 혹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일명 브로커(broker) 또는 문지기(gatekeeper) 역할자를 찾고자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

라. 예술인과 지역문화기관과의 네트워크에 대하여

① 지역문화기관과의 교류

지역문화기관과의 교류에서는 가장 많은 빈도는 보인 것은 ‘1~2회/1달’에 27.0%, ‘3회 이상/1년’에 27.0%를 보였고, ‘없음’도 7.9%를 보여 교류의 빈도가 낮았다.

지역문화기관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한 클러스터는 ‘홍주문화연구회’로서 ‘거의 매일’ 24.1%, ‘1~2회/1주’ 13.8%, ‘1~2회/1달’ 17.2%의 분포를 보였다. ‘야투’도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예술단혼’, ‘계룡산도예촌’, ‘보부상난전놀이’ 등은 지역문화기관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4〉 지역문화기관과의 교류

지역문화기관과 교류		홍주문화 연구회	야투	전통예술단 혼	계룡산 도예촌	보부상 난전놀이	전체 합계
합계	빈도(명)	29	14	8	12	26	89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거의 매일	빈도(명)	7	1				8
	비율(%)	24.1	7.1				9.0
1~2회/1주	빈도(명)	4	2		1		7
	비율(%)	13.8	14.3		8.3		7.9
1~2회/1달	빈도(명)	5	5	3		11	24
	비율(%)	17.2	35.7	37.5		42.3	27.0
3회 이상/1달	빈도(명)	1		2			3
	비율(%)	3.4		25.0			3.4
1~2회/1년	빈도(명)	2		1	8	5	16
	비율(%)	6.9		12.5	66.7	19.2	18.0
3회 이상/1년	빈도(명)	5	5	2	2	10	24
	비율(%)	17.2	35.7	25.0	16.7	38.5	27.0
없음	빈도(명)	5	1		1		7
	비율(%)	17.2	7.1		8.3		7.9

② 예술인과 지역문화기관(또는 단체)과의 협력 네트워크

설문 예술인들과 지역문화기관(또는 단체)과의 네트워크 특성을 연결정도집중도, 근접집중도, 매개집중도로 보면 다음과 같았다.

〈표 3-45〉 예술가와의 협력 기관 및 단체 집중도 분석 결과

구분			연결정도 집중도 (로컬)	근접 집중도 (글로벌)		매개 집중도	
				표준화	싱글모드 표준화	표준화	싱글모드 표준화
협력 단체	1-mode		0.101	0.091		0.113	
	2-mode	Main Node(Actor)	0.099	1.433	1.88	0.097	0.097
		Sub Mode(Event)	0.159	1.733	1.057	0.113	0.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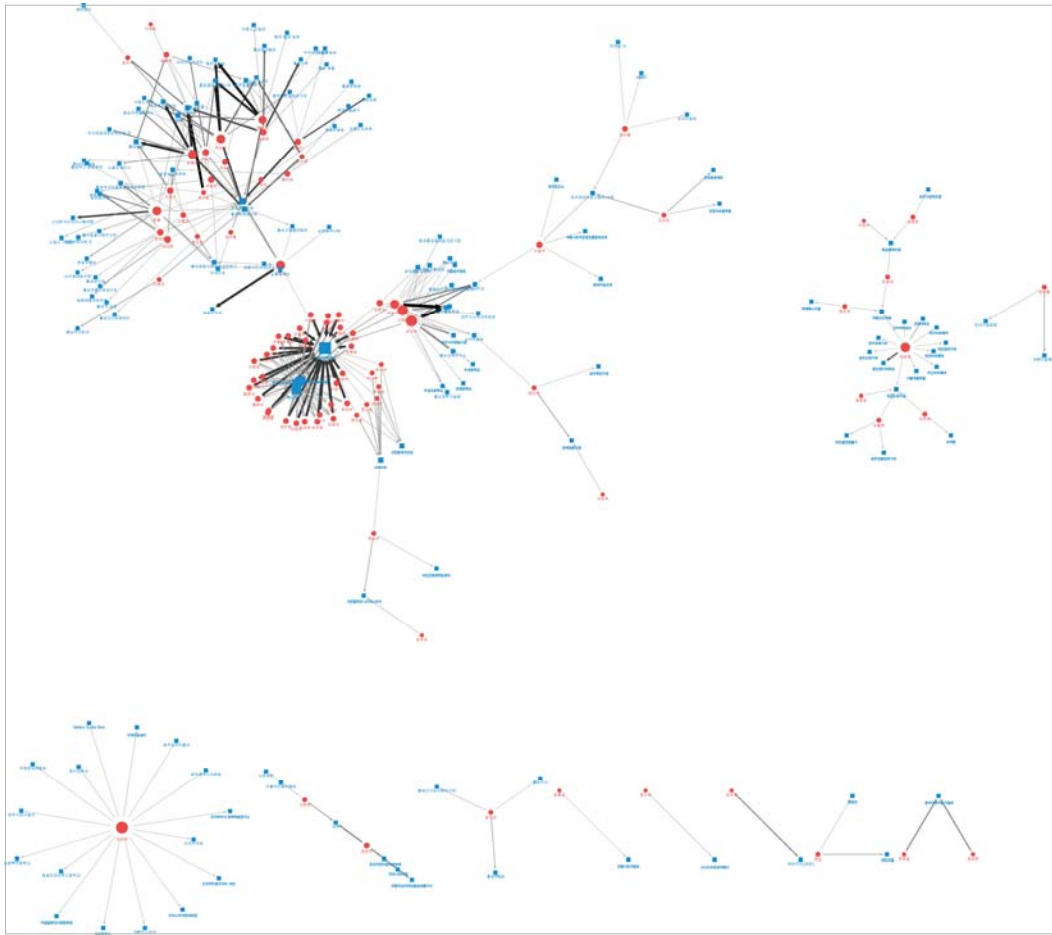
협력기관 및 단체와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 예술인과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연계되어 있는 기관 및 단체는 각각 다음과 같다.

〈표 3-46〉 국지적 중심성이 높은 지역예술인 및 기관·단체(연결정도중심성지수)

순위	예술인	2-mode 연결정도중심성	순위	협력기관 및 단체명	2-mode 연결정도중심성
1	이00	0.108844	1	충남문화재단	0.168033
2	김00	0.102041	2	마사회	0.122951
3	고00	0.088435	3	의좋은 형제공원	0.122951
4	임00	0.081633	4	충의사주차장	0.122951
5	최0	0.07483	5	문화연구소길	0.057377
6	허000	0.07483	6	홍주문화연구회	0.032787
7	강00	0.068027	7	홍성문화원	0.032787
8	전00	0.068027	8	서천군청	0.028689
9	손00	0.068027	9	문화in	0.02459
10	윤00	0.054422	10	서천문예의전당	0.02459

주 : 2-모드 연결정도중심성 지수가 높은 상위 10인만 표기

예술인 이000의 경우, 16개 기관 및 단체와 직접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나, 표준화된 연결정도 중심성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기관 및 단체들은 특정 예술인을 제외하고는 타 예술인과의 관계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3-7〉 국지적 중심성(연결정도중심성) 관계망 그래프(예술인과 지역문화기관
(또는 단체)과의 협력 네트워크)

마. 예술인과 지역사회(주민)와의 네트워크에 대하여

① 지역 사회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봉사활동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봉사활동에서는 ‘1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1달’ 17.6%, ‘1시간 미만/1달’ 12.1%, ‘5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1달’ 12.1%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없다’ 는 응답은 전체 15.4%였다.

〈표 3-47〉 지역 사회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봉사활동

교육 및 봉사활동		홍주문화 연구회	야투	전통예술단 흔	계룡산 도예촌	보부상 난전놀이	전체 합계
합계	빈도	28	13	9	13	28	91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없다	빈도	5	1	1	7		14
	비율(%)	17.9	7.7	11.1	53.8		15.4
1시간 미만 /1주	빈도	1	1				2
	비율(%)	3.6	7.7				2.2
1시간이상 ~ 5시간 미만 /1주	빈도	5	3	1		1	10
	비율(%)	17.9	23.1	11.1		3.6	11.0
5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1주	빈도	1	1	2			4
	비율(%)	3.6	7.7	22.2			4.4
10시간 이상 /1주	빈도			1	1		2
	비율(%)			11.1	7.7		2.2
1시간 미만 /1달	빈도	2	2			7	11
	비율(%)	7.1	15.4			25.0	12.1
1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1달	빈도	6	2	2		6	16
	비율(%)	21.4	15.4	22.2		21.4	17.6
5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1달	빈도	5	3	2	1		11
	비율(%)	17.9	23.1	22.2	7.7		12.1
10시간 이상 / 1달	빈도	2					2
	비율(%)	7.1					2.2
기타	빈도	1			4	14	19
	비율(%)	3.6			30.8	50.0	20.9

② 예술인과 지역사회(주민)와의 협력 네트워크

설문 예술인들과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장소 중심으로 연결정도집중도, 근접집중도, 매개집중도로 보면 다음과 같았다.

〈표 3-48〉 예술가와의 활동장소 집중도 분석 결과(2-mode)

구분		연결정도 집중도(로컬)	근접 집중도(글로벌)		매개 집중도	
			표준화	싱글모드 표준화	표준화	싱글모드 표준화
활동 장소	1-mode	0.075	0.058		0.006	
	2-mode Main Node(Actor)	0.070	1.247	1.639	0.005	0.005
	2-mode Sub Mode(Event)	0.118	1.513	0.919	0.006	0.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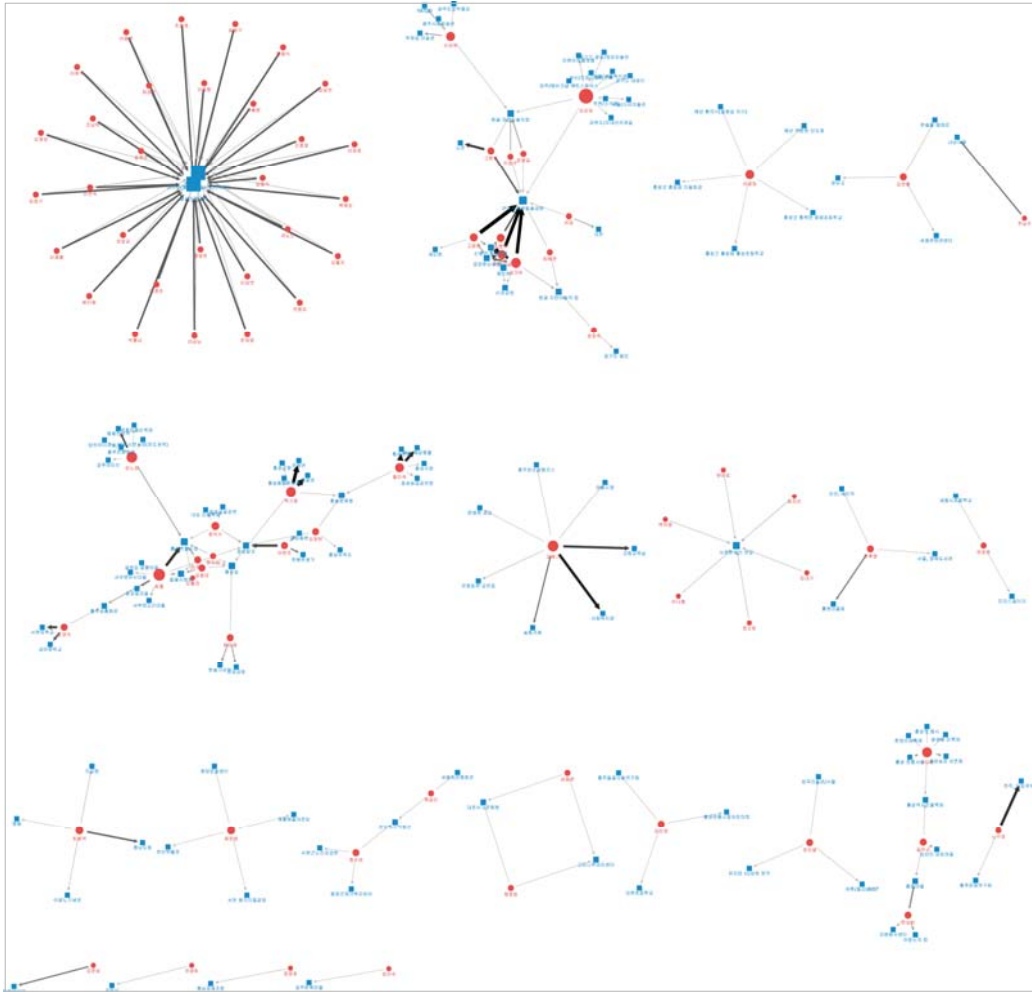
예술가와 활동기관 및 단체 간의 네트워크 집중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예술가와 활동장소 간의 네트워크 집중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기관 및 단체에 비해 특정장소에 얽매어 있는 쏠림 현상 없이 다양한 장소와의 활동 폭이 보다 넓음을 의미한다. 즉, 예술가의 입장에서 기관 및 단체를 매개로 한 활동 교류 기회 보다는 장소를 매개로 한 활동 교류 기회가 낮다고 볼 수 있다. 활동장소와의 교류 측면에서 중심성이 가장 높은 지역 예술인과 활동장소는 각각 다음과 같다.

〈표 3-49〉 국지적 중심성이 높은 지역예술인(연결정도중심성지수)

순위	예술인	2-mode 연결정도중심성	순위	활동장소	2-mode 연결정도중심성
1	김순임	0.075862	1	마사회(홍성, 화성, 논산, 해미)	0.122951
2	최철	0.055172	2	갈산어메니티	0.122951
3	강노심	0.048276	3	연미산자연미술공원	0.040984
4	오왕근	0.048276	4	홍성전통시장	0.028689
5	목기동	0.041379	5	서천문예의 전당	0.024590
6	서대천	0.041379	6	홍주성	0.020492
7	김가빈	0.041379	7	원골 자연미술의집	0.020492
8	이경림	0.034483	8	결성향교	0.016393
9	황미숙	0.034483	9	금강쌍신공원	0.016393
10	이선주	0.034483	10	신평면 원골마을	0.016393
10	허샘이나	0.034483			

주 : 2-모드 연결정도중심성 지수가 높은 상위 10인 만 표기

설문응답 예술인들이 활동한 지역장소 간의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특정 단체의 예술인들이 특정 활동 장소에 집중된 형태(좌측 최상단)를 제외하고,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관계 구조는 미약하였다.



〈그림 3-8〉 국지적 중심성(연결정도중심성) 관계망 그래프 (예술인과 지역장소와의 네트워크)

즉, 장소중심 내지 장소를 매개로 한 예술가들의 협업 네트워크는 협력예술인이나 협력기관 및 단체를 중심으로 한 협업 네트워크 구조에 비해 네트워킹 결집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추해 볼 때, 충남의 문화예술인 네트워크 관계도는 기관 및 단체, 또는 활동장소를 매개로 한 협력문화 확산보다는 개인의 사적 네트워크망(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예술인)에 의존한 협업문화 확대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인들의 클러스터화 내지 협업활동에 대한 확산문화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공적 네트워크망의 강화 노력이 요구되는데, 예를 들면 예술기관 및 단체의 연대화 전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협력 기관 및 단체를 매개로 하여 예술가들 간의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를 도모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바.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것

① 문화예술인 간의 네트워크(교류·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것

문화예술인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① ‘교류공간’ 13.0%, ② ‘교류·활동 프로그램 제공’ 12.6%, ③ ‘예술가들을 위한 집적공간[예술촌, 마을 등]조성’ 8.5%, ④ ‘공동학습·교육 지원’ 7.6% 순으로 나타났다.

집적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계룡산도예촌’, ‘전통예술단촌’의 경우는 ① ‘교류공간 조성’, ② ‘교류·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원하였고, ‘야투’, ‘홍주문화연구회’의 경우는 ① ‘교류활동 프로그램 제공’, ② ‘예술가들을 위한 집적공간[예술촌, 마을 등]조성’을 원하였다.

‘보부상난전놀이’의 경우는 개별 클러스터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생활예술인들 간에 연습할 수 있는 공간과 소품의 부족으로 ‘이동차량지원’, ‘작업 및 창작공간 제공’, ‘소품 및 장비지원’에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개별 의견으로는 문화예술인 간의 교류를 매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성격의 제안으로서 ‘전시공간 및 전시기회 제공’, ‘실무 및 사무 인력지원’, ‘지역 공동활동 프로그램’, ‘아트마켓’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예술인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기반으로서 ‘예술가 서로 간 마음비우기’를 통해 교류와 협력에 바탕을 형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표 3-42〉 문화예술인 간의 네트워크(교류·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것

문화예술인 간 네트워크 촉진		홍주문 화 연구회	야투	전통예술단 촌	계룡산 도예촌	보부상 난전놀 이	전체 합계
예술가들을위한집적공간 [예술촌, 마을 등]조성	빈도	11	4	1	2	1	19
	비율(%)	19.0	12.1	5.6	10.0	1.1	8.5
교류공간 조성	빈도	10	3	7	8	1	29
	비율(%)	17.2	9.1	38.9	40.0	1.1	13.0
교류·활동 프로그램		빈도	12	7	4	5	28

제공	비율(%)	20.7	21.2	22.2	25.0		12.6
공동학습·교육 지원 등	빈도	11	3		3		17
	비율(%)	19.0	9.1		15.0		7.6
재정적지원	빈도	3	3	3		1	10
	비율(%)	5.2	9.1	16.7		1.1	4.5
작업 및 창작공간 제공	빈도	1	3			27	31
	비율(%)	1.7	9.1			28.7	13.9
상설 전시 및 공연장 교류	빈도		2	1	1		4
	비율(%)		6.1	5.6	5.0		1.8
전시공간 및 전시기획 제공	빈도	1	2			1	4
	비율(%)	1.7	6.1			1.1	1.8
실무 및 사무 인력지원	빈도	2	1			7	10
	비율(%)	3.4	3.0			7.4	4.5
정책적 지원	빈도	1	1	1	1	0	4
	비율(%)	1.7	3.0	5.6	5.0	.0	1.8
소품 및 장비지원	빈도					25	25
	비율(%)					26.6	11.2
지역 공동활동 프로그램	빈도		1				1
	비율(%)		3.0				0.4
이동차량지원	빈도					30	30
	비율(%)					31.9	13.5
정당한 작가료 지급	빈도		1				1
	비율(%)		3.0				0.4
관객유치	빈도	1					1
	비율(%)	1.7					0.4
문화예술인 탐방의 날 운영	빈도		1				1
	비율(%)		3.0				0.4
문화예술인들의 결과물을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채널 구축	빈도	1					1
	비율(%)	1.7					0.4
아트마켓	빈도	1					1
	비율(%)	1.7					0.4
예술가 서로 간 마음비우기	빈도	1					1
	비율(%)	1.7					0.4
예술인 창작공간 지도 구축	빈도	1					1
	비율(%)	1.7					0.4
작가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기를 희망함	빈도		1				1
	비율(%)		3.0				0.4
작품보관공간 필요	빈도	1					1
	비율(%)	1.7					0.4
재능기부 활성화	빈도			1			1
	비율(%)			5.6			0.4
전문예술인초청	빈도					1	1
	비율(%)					1.1	0.4
총합계	빈도	58	33	18	20	94	223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② 문화예술인과 지역 기관과의 네트워크(교류·활동) 축진을 위해 필요한 것

문화예술인과 지역 기관(또는 단체)과의 네트워크(교류·활동) 축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 ① ‘교류·활동 프로그램 제공’ 29.2%, ② ‘교류공간’ 19.8%, ③ ‘공동학습교육 지원’ 15.8%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개별 의견으로는 ‘교류·활동 프로그램 제공’의 성격을 가진 ‘전시회 및 학술대회를 통한 교류’, ‘전시공간 및 전시기회 제공’, ‘재능기부 기회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교류에 있어 예술인들은 기관과의 기본적인 관계에 대해 필요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예우’, ‘기관의 유연한 자세’, ‘수평적 의사소통’, ‘동반자적 관계 수립’, ‘지자체와 동등한 파트너십’ 등이었다.

〈표 3-43〉 문화예술인과 지역 기관(또는 단체)과의 네트워크(교류·활동) 축진을 위해 필요한 것

문화예술인과 지역기관 간 네트워크 축진		홍주문화 연구회	야투	전통예술단 혼	계룡산 도예촌	보부상 난전놀이	전체 합계
교류공간 제공	빈도	15	1	6	5	13	40
	비율(%)	24.2	3.7	37.5	29.4	16.3	19.8
교류·활동프로그램 제공	빈도	22	9	6	5	17	59
	비율(%)	35.5	33.3	37.5	29.4	21.3	29.2
공동학습·교육 지원 등	빈도	7	2	2	5	16	32
	비율(%)	11.3	7.4	12.5	29.4	20.0	15.8
소득연관 활동지원	빈도	2					2
	비율(%)	3.2					1.0
재정적 지원	빈도	4	1			2	7
	비율(%)	6.5	3.7			2.5	3.5
작업 및 창작공간 제공	빈도	1	1			8	10
	비율(%)	1.6	3.7			10.0	5.0
전시회 및 학술대회를 통한 교류	빈도		2				2
	비율(%)		7.4				1.0
전시공간 및 전시기회 제공	빈도		1		1		2
	비율(%)		3.7		5.9		1.0
재능기부 기회 제공	빈도	3					3
	비율(%)	4.8					1.5
실무 및 사무 인력지원	빈도		1			14	15
	비율(%)		3.7			17.5	7.4
인력양성	빈도					1	1
	비율(%)					1.3	0.5
정책적 지원	빈도	1	1				2
	비율(%)	1.6	3.7				1.0
소품 및 장비지원	빈도					5	5

	비율(%)					6.3	2.5
창작지원	빈도		1				1
	비율(%)		3.7				0.5
이동차량지원	빈도					2	2
	비율(%)					2.5	1.0
정당한 작가료 지급	빈도		1				1
	비율(%)		3.7				0.5
교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빈도					1	1
	비율(%)					1.3	0.5
문화예술인에 대한 예우	빈도	2					2
	비율(%)	3.2					1.0
기관의 유연한 자세	빈도	1					1
	비율(%)	1.6					0.5
수평적 의사소통	빈도	1					1
	비율(%)	1.6					0.5
동반자적 관계 수립	빈도	1					1
	비율(%)	1.6					0.5
지자체와 동등한 파트너쉽	빈도			1			1
	비율(%)			6.3			0.5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 연수	빈도		1				1
	비율(%)		3.7				0.5
문화담당관 임용	빈도		1				1
	비율(%)		3.7				0.5
미술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빈도		1				1
	비율(%)		3.7				0.5
사무실 지원	빈도					1	1
	비율(%)					1.3	0.5
예술인 문화교류 전문인 육성	빈도		1				1
	비율(%)		3.7				0.5
예술인 복지를 위한 간담회	빈도			1			1
	비율(%)			6.3			0.5
예술인 지원 전문기관 구축	빈도		1				1
	비율(%)		3.7				0.5
작가 등록 및 평가자격 도입	빈도		1				1
	비율(%)		3.7				0.5
전통예술 다양성	빈도	1					1
	비율(%)	1.6					0.5
중장기적 교류계획 연구방안 수립	빈도				1		1
	비율(%)				5.9		0.5
중장기적인 지원계획 수립	빈도	1					1
	비율(%)	1.6					0.5
총합계	빈도	62	27	16	17	80	202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③ 문화예술인과 지역 주민들과의 네트워크(교류·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것

문화예술인과 지역 주민들과의 네트워크(교류·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 ① ‘교류·활동 프로그램 제공’ 26.4%, ② ‘공동학습교육 지원’ 22.9%, ③ ‘교류공간 제공’ 16.3%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개별 의견으로는 ‘교류·활동 프로그램 제공’의 성격을 가진 ‘교류지원센터’ 구축, ‘마을주민자치회와의 교류’, ‘마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문화 만남의 날 운영’, ‘문화 예술인 탐방’, ‘재능기부 기회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공동학습·교육 지원’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의 이해를 돕는 교육과정 개설 운영’, ‘체험학습’ 등을 제안하였다.

이중 특징적인 것은 ‘연구’, ‘젊은 층’과 관련된 제안이 있었는데 ‘연구’ 관련된 제안은 ‘작가들의 참여시스템 연구’, ‘연계협력사업 발굴 육성’, ‘작가들의 연구과제 도입’이 있었고, ‘젊은 층’과의 교류 관련 제안으로서는 ‘젊은 세대 참여 기회 확대’, ‘지역 청년들과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이 있었다.

〈표 3-44〉 문화예술인과 지역 주민들과의 네트워크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것

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간 네트워크 촉진		홍주문화 연구회	야투	전통예술단 혼	계룡산 도예촌	보부상 난전놀이	전체 합계
교류공간 제공	빈도	12	3	4	3	15	37
	비율(%)	19.0	13.0	23.5	15.0	14.4	16.3
교류·활동프로그램 제공	빈도	14	6	5	8	27	60
	비율(%)	22.2	26.1	29.4	40.0	26.0	26.4
공동학습·교육 지원 등	빈도	12	4	5	7	24	52
	비율(%)	19.0	17.4	29.4	35.0	23.1	22.9
다양한 행사 활성화	빈도	2					2
	비율(%)	3.2					0.9
재정적 지원	빈도	2				5	7
	비율(%)	3.2				4.8	3.1
작업 및 창작공간 제공	빈도					2	2
	비율(%)					1.9	0.9
홍보 기회 증대	빈도	1	1	1			3
	비율(%)	1.6	4.3	5.9			1.3
작가들의 참여시스템	빈도		1				1

연구	비율(%)		4.3				0.4
실무 및 사무 인력지원	빈도	1			1	3	5
	비율(%)	1.6			5.0	2.9	2.2
사무실 지원	빈도					2	2
	비율(%)					1.9	0.9
소품 및 장비지원	빈도					5	5
	비율(%)					4.8	2.2
타지역, 단체와 교류지원	빈도	4				12	16
	비율(%)	6.3				11.5	7.0
이동차량지원	빈도					4	4
	비율(%)					3.8	1.8
젊은인력유입	빈도					1	1
	비율(%)					1.0	0.4
인력양성	빈도	1				2	3
	비율(%)	1.6				1.9	1.3
주민들의 참여 증대	빈도	3		1			4
	비율(%)	4.8		5.9			1.8
재능기부 기회 제공	빈도	1					1
	비율(%)	1.6					0.4
교류지원센터	빈도				1		1
	비율(%)				5.0		0.4
기관의 유연한 자세	빈도	1					1
	비율(%)	1.6					0.4
교육 공간	빈도					1	1
	비율(%)					1.0	0.4
구체적 시스템	빈도		1				1
	비율(%)		4.3				0.4
마을주민자치회와의 교류	빈도			1			1
	비율(%)			5.9			0.4
마주할 수 있는 기회 늘린다	빈도	1					1
	비율(%)	1.6					0.4
문화 만남의 날 운영	빈도		1				1
	비율(%)		4.3				0.4
문화예술인 탐방	빈도		1				1
	비율(%)		4.3				0.4
문화예술의 이해를 돕는 교육과정 개설 운영	빈도		1				1
	비율(%)		4.3				0.4

문화재심사 준비교육	빈도		0			1	1
	비율(%)		0.0			1.0	0.4
양질의 미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구	빈도		1				1
	비율(%)		4.3				0.4
연계협력사업 발굴 육성	빈도	1	0				1
	비율(%)	1.6	0.0				0.4
예술가 장기 체류시 경제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빈도		1				1
	비율(%)		4.3				0.4
예술가의 장기 체류 공간 제공	빈도		1				1
	비율(%)		4.3				0.4
작가들의 연구과제도입	빈도		1				1
	비율(%)		4.3				0.4
전통문화관심	빈도	1					1
	비율(%)	1.6					0.4
젊은세대 참여 기회 확대	빈도	1					1
	비율(%)	1.6					0.4
지역 청년들과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빈도	1					1
	비율(%)	1.6					0.4
처우개선	빈도	1					1
	비율(%)	1.6					0.4
체험학습	빈도	1					1
	비율(%)	1.6					0.4
프로젝트형 사업 추진	빈도	1					1
	비율(%)	1.6					0.4
회원확보	빈도	1					1
	비율(%)	1.6					0.4
총합계	빈도	63	23	17	20	104	227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분석 종합

1) 충남 문화예술인 분포 및 활동실태

첫째, 충남 예술인의 시군별, 도시/비도시지역 분포상으로 보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예술인들이 집중해서 거주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형성 측면에서 공간적으로 양호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시군별로는 천안에 26.2%가 집중 분포하고, 공주(9.8%), 아산(9.1%), 서산(7.7%), 보령(7.4%)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인구대비 예술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공주, 보령, 계룡 순이었다. 장르별로는 미술이 42.1%로 가장 많고, 연극(10.4%), 문학(8.1%), 국악(5.7%), 음악(5.6%) 순이었다.

도시/비도시지역 분포를 보면 충남의 문화예술인은 3/4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계룡(98.7%), 천안(93.5%), 홍성(80.5%), 논산(79.2%), 아산(75.7%) 지역은 충남 평균에 비해 높은 도시지역 분포하고 있었다. 분야별로 보면, 사진이 93.1%로 도시지역에 절대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음악(86.5%), 무용(83.6%), 문학(77.5%), 미술(75.3%) 등이 충남 평균에 비해 도시지역에 보다 집중하여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전국과 비교하여 더 넓은 창작공간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예술활동을 통한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 겸업비율이 높았다.

예술활동실태를 보면 충남의 문화예술인 활동경력은 10~20년이 27.7%가 가장 많고 발표 횟수는 6~10회가 43.3%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국과 평균과 유사하였다.

예술인의 개인창작공간보유현황에서는 전국은 54.3%만이 보유하고 있으나, 충남은 68.2%가 개인창작공간을 보유하고 있어 보유비율, 면적크기, 자가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더 높았다.

충남의 문화예술인의 가구소득 수준은 3~4천만원이 2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국 평균소득이 중앙값을 기준으로 4,000만원인데 비해 충남은 3,600만원으로 낮았다. 예술인의 활동수입을 보면 문화예술인의 예술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전국이 1,255만원인데, 충남은 1,191만원으로 적은 수준이었고, 충남의 문화예술인의 예술활동 종사형태는 36.1%가 전업, 63.9%가 겸업으로 하고 있어 전국(50:50)과 비교하면, 겸업비율이 높았다.

2)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실태조사·분석의 대상을 ①홍주문화연구회, ②야투, ③전통예술단 혼, ④계룡산도예촌, ⑤보부상난전놀이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거주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구성원 90% 이상이 대부분 활동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만 야투의 경우는 초기 공주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주변지역인 대전, 세종 또는 수도권으로 이주하여 야투를 매개로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거주기간은 평균 22.1년이었으며, 예술인 평균 연령은 54.5세로서 ‘전통예술단혼’이 평균 33.4세로서 가장 젊었다. 예술인 경력은 평균 15.1년으로서 ‘야투’는 평균 26.8년, ‘계룡산도예촌’은 평균 24.2년으로 역사가 깊었다.

클러스터별로 예술인들의 종사 장르를 보면 ‘야투’는 (자연)미술, ‘전통예술단혼’은 무용, 국악, ‘계룡산도예촌’은 (도예)미술, ‘보부상난전놀이’는 국악, 연극으로 각 클러스터가 활동하는 예술장르와 특성을 보여주었다. ‘홍주문화연구회’의 경우는 구성들의 종사예술 장르로 미술, 국악, 연극, 무용, 문학 등 가장 다양하였다.

현 거주지에서 활동하게 된 동기는 ① ‘예술가들과의 교류 용이’, ② ‘지역사회에 기여’, ③ ‘고향 및 연고지여서’ 순이었고, 현거주지에서 활동의 장점은 클러스터마다 달랐는데 1순위는 ‘주변환경이 예술활동에 적합’ 또는 ‘주민들과 소통의 기회’였고, 2순위는 공통적으로 ‘예술가들과의 교류 용이’였다.

주변지역에서 알고 교류하는 예술가의 수로는 ‘31명 이상’ 또는 ‘3~5명’이 많아서 예술인에 따라 편차를 보였고, 알고 교류하는 주민 수로는 ‘31명 이상’이 가장 많았다. 교류 정도는 예술가, 주민들 각각 ‘1주일에 1~2회’가 가장 많았다.

거주환경의 창작 및 활동에 도움 정도는 만족도가 높았고(‘매우 도움이 됨’ 36.5%, ‘도움됨’ 29.2%), 자부심(‘매우 자부심을 가짐’ 32.6%, ‘자부심을 가짐’ 30.5%)도 컸다.

지난 1년 동안 창작활동에 도움을 받은 예술가 혹은 단체는 각 클러스터별로 분포가 다양했지만 평균 횟수는 3.7회로 많지 않았다.

지역문화기관과의 교류에서 가장 많은 빈도는 보인 것은 ‘1~2회/1달’ 27.0%, ‘3회 이상/1년’ 27.0%를 보였고, ‘없음’도 7.9%를 보여 교류의 빈도가 낮았다.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봉사활동은 ‘없다’는 응답은 전체 15.4%였고, 1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1달’

17.6%, ‘1시간 미만/1달’ 12.1%, ‘5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1달’ 12.1%로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실태조사·분석을 ①예술인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 ②예술인과 지역 문화기관(또는 단체)간의 교류 네트워크, ③예술가와 주민과의 네트워크 관계를 지역장소 간의 네트워크 관계로 분석해 결과, 대부분의 클러스터들이 동일지역 내 기관 및 단체별로 유사한 예술활동 내지 친분적 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질적인 단체 및 지역과의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융복합적 창작활동에 기반한 새로운 예술영역의 개척과 실험적 활동을 시도코자 하는 모습은 어려운 네트워크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집단별로 네트워크 들이 여러 개의 소규모 네트워크로 분절 내지 파편화 되어 있어, 이들 소 네트워크 집단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매개 시켜 줄만한 지역예술인 내지 기관 및 단체, 활동장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를 들면 매개 중심성이 높은 지역예술인, 단체, 장소 등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지역장소보다는 기관 및 단체 중심으로, 기관 및 단체보다는 협업예술인 중심의 네트워크 결속력이 강하게 나타나, 지역의 문화예술 네트워크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협업예술인에 대한 인적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역할들에 대한 탐색연구를 통하여, 충남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육성 관리 및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지역예술인은 주로 홍성군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역예술인과 기관 및 단체 간에 가장 고르고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 역시 홍성군 일대로 나타났다. 그 외 일부 공주 및 대전권, 서천권역에서도 네트워크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일부 예술가 내지 기관 및 단체 등에 지나치게 쏠리거나 네트워크 관계가 단절되는 현상은 향후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한편, 예술인과 주민들과의 교류 네트워크로써, 장소중심 내지 장소를 매개로 한 예술가들의 네트워크는 협력예술인이나 기관 및 단체를 중심으로 한 협업 네트워크 구조에 비해 네트워크 결집력이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및 단체를 매개로 한 활동 교류 기회 보다는 장소를 매개로한 활동 교류 기회가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충남의 문화예술인 네트워크 관계도는 기관 및 단체, 또는 활동장소를 매개로한 협력문화 확산보다는 개인의 사적 네트워크망(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예술인)에 의존한 협업문화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문화예술인들의 클러스터화 내지 협업문화에 대한 확산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공적 네트워크망의 강화 노력이 필요한데, 예술기관 및 단체의 연대화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협력 기관 및 단체를 매개로 하여 예술가들 간의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를 도모해 나가는 전략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협력 기관 및 단체로는 충남문화재단, 문화연구소 길, 홍주문화연구회, 공주대학교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예술인들이 교류하는 지역장소 중에는 홍성전통시장, 연미산자연미술공원, 홍주성, 결성향교 등이 매개중심성이 높은 지역장소로 분석되었는데, 매개중심성이 높은 장소는 다양한 지역장소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각 지역예술인들이 서로 공유하여 활용하는 빈도가 높은 장소라는 점에서 지역예술인 간의 교류 기회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매개 거점 공간으로 조성 및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인 간, 문화예술인과 지역기관(단체), 문화예술인과 주민들과 네트워크 형성(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한 것에서는 다음의 표와 같은 의견이 도출되었다.

〈표 3-45〉 문화예술인 간, 문화예술인과 지역기관(단체), 문화예술인과 주민들과 네트워크 형성(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한 것

구분	필요사항	기타 개별적인 의견
문화예술인 간	①교류공간 ②교류·활동 프로그램 제공 ③예술가들을 위한 집적공간 (예술촌, 마을 등) 조성 ④공동학습·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 프로그램 성격의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공간 및 전시기회 제공 - 실무 및 사무 인력지원 - 지역 공동활동 프로그램 - 아트마켓 • 예술인들 내에 근본적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 서로 간 마음비우기
문화예술인과 지역기관(단체) 간	①교류·활동 프로그램 제공 ②교류공간 ③공동학습·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 프로그램 성격의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회 및 학술대회를 통한 교류 - 전시공간 및 전시기회 제공 - 재능기부 기회 제공 • 예술인과 기관의 기본적인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예우 - 기관의 유연한 자세 - 수평적 의사소통 - 동반자적 관계 수립 - 지자체와 동등한 파트너쉽

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 간	①교류·활동 프로그램 제공 ②공동학습·교육 지원 ③교류공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 프로그램 성격의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지원센터 - 마을주민자치회와의 교류 - 마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문화 만남의 날 운영 - 문화예술인 탐방 - 재능기부 기회제공 • 공동학습·교육지원 성격의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의 이해 교육과정 개설 운영 - 체험학습 • 연구관련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들의 참여시스템 연구 - 연계협력사업 발굴 육성 - 작가들의 연구과제 도입 • 젊은 층과의 교류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세대 참여 기회 확대 - 지역 청년들과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

제4장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1. 기본방향

1) 공공 측면에서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 목표에 부합되는 정책 접근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과 활성화는 주체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술가 입장에서는 클러스터 형성의 목적은 첫 번째 예술창작과 교류 활성화이며, 두 번째가 문화예술진흥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이다. 공공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목적이 지역 문화예술진흥 또는 활성화이며, 두 번째 목적이 예술창작과 활성화가 될 수 있다. 넓은 측면에서는 양 주체자의 목적이 상호 연계될 수 있지만, 형성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효과를 다르게 나타낼 수 있으며, 한정된 자원을 투자할 때는 더욱 그렇다.

공공 입장에서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의 궁극적 목적은 예술인들을 위해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정체성 형성, 지역 활성화,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증대, 문화복지의 실현이라면,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의 기본방향은 충남의 문화예술 진흥과 도민 문화혜택에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는 유도 접근

문화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사업의 지속성이다. 공공이 정책적으로 개입을 할 때는 사업의 효과가 발생되지만, 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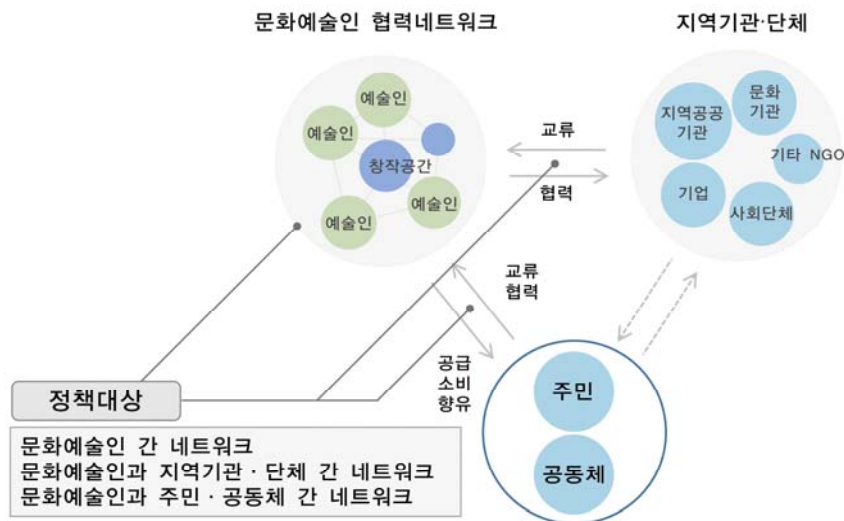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공이 잘못 개입할 경우 클러스터 내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의 형성 방향은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에 공공이 일정 부분 참여할 지라도 궁극적인 운영과 관리의 주체자는 문화예술인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정책적 지원과 사업은 간접적·유도적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3) 내생성, 착근성,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생태 접근

문화예술인 클러스터가 지역 문화예술진흥과의 정체성 형성, 지역 활성화,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증대, 문화복지 증진에 연계되거나 기여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내부의 공동체 활성화,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융화와 조화, 클러스터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문화예술인 네트워크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뿐 아니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예술인들의 건강한 활동 토대를 만들어 주는 정책적 접근도 필요하다. 또한 지역기관과 주민·공동체와 상호 교류와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매개 정책도 필요하다.



〈그림 4-1〉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에 정책대상

2. 정책과제

1) 문화예술인 간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 측면

충남지역의 문화예술인 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상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파악과 함께 소프트적인 측면에서는 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물리적인 측면에서 집적할 수 있는 정책사업이 요구된다.

(1) 충남 문화예술인 협력네트워크 매개자 양성 및 예술인 등록제 도입

가. 문화예술인 협력네트워크 매개자 발굴 및 양성

기존 충남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문화예술인 협력네트워크와 클러스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네트워크 속에 활동하고 있는 매개자를 발굴하여 전략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조사에서 나타난 홍성과 공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매개자들에 대해서는 충남도, 시군, 문화재단에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매개자들의 활동역량 강화는 기존의 협력네트워크 강화와 지역에 기반한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또한 활동사례는 다른 지역에 네트워크 형성과 활동에 좋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문화예술인 매개자들을 대상으로 예술인의 협력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교육기회 부여와 매개자 간의 협의체 구성과 지원방안 모색은 클러스터 형성에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인 매개자로서 잠재적 역량을 가지고 있거나 의사가 있는 신진(청년)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인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예술인은 개인 중심적 예술창작과 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교류활동에도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 공공의 지원을 받는다면, 도민과 사회공동체, 문화기관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그 속에서 예술인이 어떠한 역할과 활동⁶⁴⁾하여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예술인 간의

64) 지역문화진흥, 공동체 형성,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교육과 공감에 필요하다.

협력네트워크와 클러스터 형성에 장애요소인 예술인들 및 단체 간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와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충남도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문화이모작 사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충남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련학과를 졸업한 신진 청년 예술인들은 지역에서 활동의사가 있지만, 활동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타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전공을 바꾸어 생활한다. 이들 인적자원을 발굴하여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매개자로 육성하는 것은 인큐베이팅 역할과 충남 지역 문화예술진흥에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표 4-1〉 충남 문화예술인 협력네트워크 매개자 발굴 및 양성

대상	내용	비고
기존 충남, 시·군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에서 발굴된 홍성, 공주지역 예술인 · 충남 문화예술인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형성관련 정보교환 - 우수 네트워크 형성 사례 학습 - 협력 네트워크 과제 및 실천사업 발굴 	· 지역문화전문인력, 문화이모작 사업과 연계 추진
매개자 희망 문화예술인 (충남 내·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지역 문화예술인 중 희망자 대상 · 교육양성 프로그램 기회부여 · 문화예술인 네트워크 형성 사업 참여 지원 	· 충남 문화예술인 네트워크 협의체 참여
신진 청년 문화예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문화예술인 중 희망자 대상 · 교육양성 프로그램 기회부여 · 문화예술인 네트워크 형성 사업 참여 지원 	· 충남 문화예술인 네트워크 협의체 참여

나. 충남 문화예술인 등록제 도입 및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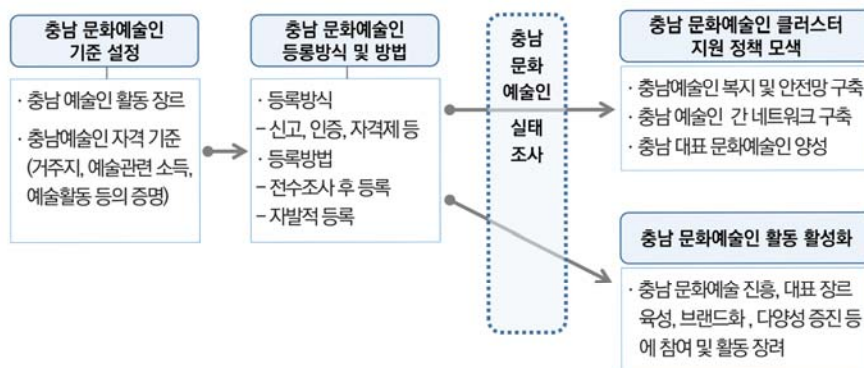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충남 문화 예술인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어야 한다. 현재 충남도는 충남을 대표하는 ‘100의 충남예술인’ 명부를 가지고 있고, 충남문화재단은 홈페이지 상에 등록된 101건의 예술인 밖에 없어 이를 바탕으로 예술인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⁶⁵⁾.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5 예술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충남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실태조사에서 예술인 활동분야는 14개 분야(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로 하고, 대상은

65) 충남 문화예술인 파악은 복지서비스 제공, 창작지원 시스템 구축, 가치 조망 및 아카이브 구축 등이 사업의 기초가 될 수 있다.

①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신청예술인, ②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수혜 예술인, ③문화예술 관련 협회·단체 회원 등으로 하여, 충남의 문화예술인수를 조사한 결과 2,934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실제 주소지 확인, 연락이 가능한 인원은 2,364명으로 570명은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며 장르로서는 문학분야의 예술인 파악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에는 시·군, 지역(도시, 농촌)에 따라 장르, 활동, 소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중앙 정부에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시·군에서 세밀한 예술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활성화에 필요한 예술인 협력네트워크 및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충남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에 대한 등록제(신고제) 도입을 통해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가 수반이 되어야 한다.



〈그림 4-2〉 충남 문화예술인 등록제 도입 및 실태조사 정책화 과정

(2) 문화예술인 네트워크화 프로그램 운영 - 교류·활동 프로그램

충남의 문화예술인 분포를 보면 시·군에서 도시지역에 75.3%, 비도시지역에 24.7%가 분포하고 있다. 많은 예술인들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문화예술인의 네트워크 형성에 충분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예술인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 문화재단, 시·군에서는 첫째, 문화예술인 간에 협력과 교류촉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협력 아티스트 프로그램 도입이다. 지역 문화유산, 전통을 배경으로 같은 장르별, 다른 장르별, 세대별, 성별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새로운 예술작품을 구상하고 창작하여 시연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 네트워크를 촉진할 뿐 아니라 지역문화진흥 효과를 기대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온라인(On-line) 상에서 젊은 예술인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충남도 내에는 20개 대학에 83개의 문화예술 관련 학과가 있으며, 12개 학교 132개의 문화예술 창작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으나, 졸업 후 취업 및 활동기반이 형성되지 않아 다른 직종에 근무하거나 수도권으로 이주를 한다.

공모 등을 통해 우수 동아리 및 창작활동에 대해서는 졸업 후 2~3년 간의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에 착근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3) 문화예술인 집적 공간 조성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에 있어 예술인 간의 물리적 근접성과 접근성의 확보는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예술인 교류와 협력을 매개하고 촉진할 수 있는 공동체 교류 시설은 클러스터 활성화에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충남의 경우 문화예술인 집적 공간 형성 방향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기존 시·군 지역에 예술인 협력 네트워크 형성 또는 활성화에 잠재력이 있는 곳에 매개공간을 조성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클러스터에 일부는 아직 교류·매개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는 교류 공간, 생활문화센터 창작·연습공간의 제공은 기존 클러스터의 강화와 집적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도, 시군차원에서 충남 문화예술인의 분포와 활동상황을 살피고 희망하는 지역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매개공간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지역에 유허공간을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공급하는 것이다. 도시화, 상권 등의 이동으로 인해 시·군의 구도심, 시장지역에는 많은 유허공간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유휴공간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지역들을 조사하여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도시공간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

세 번째는 지역과 소통하는 문화예술인 촌 조성이다. 문화예술인 촌(마을) 조성은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며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충남 문화예술인력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을 고려할 때 서울·수도권 등 외부지역의 예술인들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예술인촌이 지역과 소통하지 않는 섬적인 공간으로 존재하거나, 일부 예술인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되는 문제, 부동산의 투자 일환으로 전략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신진 청년 문화예술인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큐베이팅 센터의 운영이다.

〈표 4-2〉 충남 문화예술인 집적공간 조성

시책	내용	비고
문화예술인 협력 매개 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구도심, 생활권 중심지에 유휴 공간, 지역생활문화 공간 등을 활용 -예술인의 사회적인 가치와 역할 교육 -교류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인 간 교류매개 지원
문화예술인 지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구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에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인 지구로 조성 -거주·창작 공간 조성 -지역주민과 예술로 교류하는 프로그램 지원 (예: 커뮤니티 아트, 예술보건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도심 및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와 연계 추진
예술인촌(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지역 내외의 문화예술인을 대상 -입주자격 및 정착지원을 하되 일정기간 거주 및 지역사회/주민에게 일정기간 봉사할 수 있도록 함 -예술인 네트워크/봉사/매개 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장소마케팅 · 사례:독스빌리지
신진 청년 문화예술인 인큐베이팅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문화예술인 중 희망자 대상 -예술인 네트워크/봉사/매개 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문화예술인 네트워크 협의체 참여

2) 문화예술인과 기관·단체의 네트워크 형성 측면

문화예술인과 기관·단체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 주체 간에 상호 존중, 동반자적 관계, 파트너십의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많은 예술인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기관·단체의 관계가 약자일 경우가 많고, 기관·단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술인들 간에 역량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신뢰적,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⁶⁶⁾. 수평적 신뢰구축 프로그램(문화예술인·기관 간 공감 프로그램)을 통해 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1) 레지던시 사업의 개선 - 충남 커뮤니티형 레지던시 사업 추진

충남문화재단 및 시군에서는 지역문화예술인 창작활동지원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레지던시 사업을 하고 있다. 레지던시 사업 자체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지만 최근에는 지역공동체와의 연계 사업을 통해 예술인 간, 예술인과 지역공동체간 협력활동을 의무화 하여 레지던시 사업 종료 후에도 예술인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예술인들이 지역사회에 봉사를 함으로써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예술인과 주민 간에 신뢰와 예술인의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 형성, 주민들의 예술에 대한 인식전환 등의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지역으로서 부산의 또따또가 사업은 세밀한 접근으로, 입주 예술인 간의 교류 및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예술인들에게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자부심을 이끌고, 주민들에게는 예술인들의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향유 확대하였다.

따라서 충남도, 문화재단 및 시군에서도 레지던시 사업을 단순히 예술인 창작활동에 한정할 것이 아닌, 예술인들 간 협력형, 공동체 참여형 과제를 부여하여 레지던시 참여예술인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클러스터링,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2) 문화전통유산과 연계된 예술인들 간 협력형 사업 발굴 및 추진

예술인들이 지역과 호흡하며 활동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측면에서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가 하다.

66) 이러한 측면에서도 문화예술인 협력네트워크는 기관·단체와의 교류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지역기관·단체의 입장에서는 지역문예 진흥이 중요하며, 예술인들은 창작에 있어 소재의 발굴이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지역의 문화전통유산을 소재로 하여 기관과 예술인들 간에 협력 사업을 위해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을 매개 수단으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전통유산을 바탕으로 한 예술창작은 국악, 무용 등의 특정 장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진, 현대미술 등 다양한 장르에 예술인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여러 분야의 예술인들의 참여와 협력 작업을 통해 창작물을 만들고 시현할 수 있는 ‘지역 특화 예술창작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여 예술인 간의 협력 작업을 촉진하고 클러스터링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3) 생활공간 개선에 예술인의 참여와 역할 증대

주민생활 공간 활용에 예술인들의 참여는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술 장르별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은 예술인들의 창작, 발표라는 특성 때문에 향유자인 주민 입장에서 시간의 제약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 미술, 공예, 건축 등은 시간에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한번 설치되면 상당기간 감상을 할 수 있다.

공간적으로 충남은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이 많다. 농촌지역 환경을 문화예술적으로 가꾸어, 농촌주민들이 문화적 환경에서 살고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며, 예술가들에게는 문화예술적인 농촌환경이 예술의 창작 소재가 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예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활성화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일본 농촌의 ‘에치고츠마리 대지예술제(大地藝術祭)’와 브라질 리오의 ‘파벨라 페인팅 프로젝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에치고츠마리의 ‘대지예술제’는 예술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통해 지역을 새롭게 만든 모델로서, 지역의 빈집과 농·산촌 경관에 예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⁶⁷⁾하고 있다. 충남 공주에는 자연을 소재로 한 예술제가 금강과 연미산에서부터 제민천으로 확대되며 점차 지역사회와 가까워지고 있는데, 충남도와 공주시에서는 이를 잘 연계할 필요가 있다.

67) 이순자, 2016.7.11., 지역주도 국토문화자원 활용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 국토정책 Bri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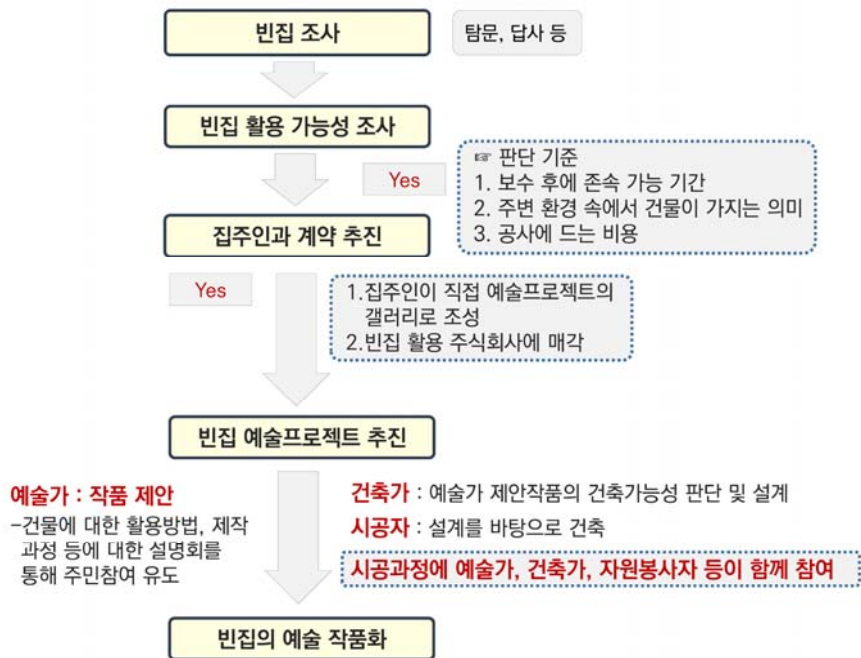
〈그림 4-3〉 예술인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역할 사례

농촌 경관과 예술의 융합을 통한 활성화

빈집의 예술작품화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자료: <http://www.echigo-tsumari.jp/>



〈그림 4-4〉 예술인 참여에 의한 빈집활용 사업 프로세스 - 일본 에치고 쓰마리

한편, 충청남도에서는 공공디자인센터를 두어 충남의 공공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한 환경개선을 넘어 보다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술인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환경 개선작업 뿐 아니라 환경의 개선에 공동체의 의미와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공공디자인의 작업에 예술가 집단의 협력적 작업의 참여는 예술가들의 상호협력과 지역의 가치를 재창조하는데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그림 4-5 예술가와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을 변화시킨 사례 - 브리질 리오의 파벨라(빈민가)〉



네덜란드의 예술가인 예로엔 쿨하스(Jeroen Koolhaas)와 드레유한(Dre Urhahn)의 커뮤니티아트로 재생된 브라질 리오의 파벨라(빈민가). 그래픽 예술가로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림 밖에는 없었고, 결국 파벨라 페인팅 프로젝트를 준비한다. 디자인의 초안을 잡고, 마을사람들을 교육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벽화를 그리며,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었다.

자료 : <http://www.unurth.com/Favela-Painting-Rio-De-Janeiro>

3) 문화예술인과 주민공동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측면

문화예술인과 주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해 알고, 문화예술인 또한 주민들의 생활공간 속에서 예술의 역할과 기능을 구현할 때 촉진될 수 있다.

(1) 충남 문화예술인의 날 / 충남문화 만남의 날 제도 도입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문화기본법 제12조②)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업으로는 지역 거점 특화 프로그램과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청춘마이크’ 사업 등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충남지역에 문화예술인을 지역주민들에게 거리, 광장, 시장 등 공공장소에서 알리고 만날 수 있는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여 예술인과 주민들이 네트워크 형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홍성의 풍물놀이패, 공주대 문화예술동아리들은 전통시장에서의 공연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프로그램을 공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것인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이라는 진지한 시각을 주민들에게 인지시켜야 한다.

또한 충남문화 만남의 날 제도 등을 도입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에 방문하여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시키며, 네트워크 형성에 간접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공주시의 경우 야투가 활동하는 연미산 자연미술의 집 또는 계룡산 도예촌 등과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학교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⁶⁸⁾ 도입 활성화를 통한 교류 확대

충남 커뮤니티 아트 사업은 지역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여 공감함으로써 주민들을 알고, 주민들은 예술을 매개로 공동체에 대한 신뢰, 자신에 대한 자존감,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회복하며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과 예술인의 가치를 재인식시켜 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커뮤니티 아트 활동은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내용은 고령화, 청소년 문제, 은퇴자, 여성 및 주부, 장애인, 이주민 등 주민들과 예술인들이 상호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그림 4-6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



Heidelberg Project 미국 디트로이트(좌), Career Path, 핀란드(우)

- 예술과 디자인을 일상의 생활환경에 접목하여 문화생활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이 문화적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조성

자료 : <http://www.socialworkdegreeguide.com/25-most-amazing-community-arts-projects/>

68) 커뮤니티 아트는 우리말로 공동체 예술 혹은 공동체의 이해에서 출발한 예술로 해석이 가능하다. 공동체의 이해는 청소년 교육 문제, 여성 차별 문제, 인종 차별 문제, 노동자/실직자/은퇴자의 이해, 지역 발전 문제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 공동체의 이해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예술 창작에 직접 참여한다. 커뮤니티 아트에서 예술가는 창작을 유도하는 매개자이며, 참여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주는 촉매자 역할을 하게 된다. 커뮤니티 아트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조 역량을 인식시키고, 창조과정에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경험과 이해의 폭을 넓혀주며, 지역공동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참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한다(전병태, 2007, 커뮤니티 아트 진흥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p.7~8의 내용을 정리).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 문화예술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문화향유, 지역재생/활성화, 사회문제 해결 등)되고 있는 시점에서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의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모색에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연구진행은 제1장에서 연구범위와 방법을 설정하고, 제2장에서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관련 이론 정책추진 검토를 통해 충남의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에 대한 유무를 검토하였고, 정책방안 도출을 위해 관련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제3장에서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실태를 조사·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 클러스터 정책방향인 기본방향과 과제를 제안하였다.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 정책은 명확하지 않지만 관련 정책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문전성시 프로젝트)’,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지구 조성사업’, 창고 및 공장 등 지역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사업 및 창작스튜디오 조성 사업’이 있었다. 충청남도 및 시군 차원에서의 정책은 없었고, 중앙정부와 연계된 사업만 추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책방향의 시사점을 얻고자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사례조사로서 국내는 광주 대인예술시장, 부산 또따또가, 국외는 영국 이스트엔드(East End)와 Acme 스튜디오, 일본 요코하마(横浜) 문화예술창조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 첫 번째,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에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곳이라도 정책적 지원은 중요하고, 두 번째 예술가들의 협력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세 번째 예술가들의 협력네트워크가 지역사회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실태조사는 충남 문화예술인과 클러스터에 대해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첫 번째, 충남 문화예술인 실태는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에 구성인자로서 클러스터 형성 정책에 기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조사하였고, ‘2015 예술인 실태조사’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충남 문화예술인 조사 내용을 별도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두 번째, 2장에서 조사된 충남 문화예술인 관련 단체, 정책사업 추진현황 등을 바탕으로 15개 시·군 문화예술 담당자, 문화단체, 충남문화재단 및 시·군 문화재단 예술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클러스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클러스터의 성격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최종 5개의 문화예술인 클러스터(①홍주문화연구회, ②야투, ③전통예술단 혼, ④계룡산도예촌, ⑤보부상난전놀이)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충남 문화예술인 분포 및 활동실태 결과, 충남지역의 예술인들의 3/4 이상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어 공간적 측면에서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를 형성에 양호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활동여건과 상태는 전국과 비교하여 넓은 창작공간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예술활동을 통한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 겸업비율이 높았다.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에 대해 ①홍주문화연구회 ②야투 ③전통예술단 혼 ④계룡산도예촌 ⑤보부상난전놀이를 대상으로 ①예술인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 ②예술인과 지역문화기관(또는 단체)간의 교류 네트워크 ③예술가와 주민과의 네트워크 관계를 지역장소 간의 네트워크 관계로 분석해 결과, 대부분의 클러스터들이 동일지역 내 기관 및 단체별로 유사한 예술활동 내지 친분적 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질적인 단체 및 지역과의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융복합적 창작활동에 기반한 새로운 예술영역의 개척과 실험적 활동을 시도코자 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운 네트워크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집단별로 네트워크 들이 여러 개의 소규모 네트워크로 분절 내지 파편화 되어 있어, 이들 소 네트워크 집단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매개시켜 줄만한 지역예술인 내지 기관 및 단체, 활동장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를 들면 매개 중심성이 높은 지역예술인, 단체, 장소 등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지역장소보다는 기관 및 단체 중심으로, 기관 및 단체보다는 협업예술인 중심의 네트워크 결속력이 강하게 나타나, 지역의 문화예술 네트워크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협업예술인에 대한 인적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역할들에 대한 탐색연구를 통하여, 충남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육성 관리 및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지역예술인은 주로 홍성군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역예술인과 기관 및 단체 간에 가장 고르고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 역시 홍성군 일대로 나타났다. 그 외 일부 공주 및 대전권, 서천권역에서도 네트워크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일부 예술가 내지 기관 및 단체 등에 지나치게 쏠리거나 네트워크 관계가 단절되는 현상은 향후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한편, 예술인과 주민들과의 교류 네트워크로서, 장소중심 내지 장소를 매개로 한 예술가들의 네트워크는 협력예술인이나 기관 및 단체를 중심으로 한 협업 네트워크 구조에 비해 네트워크 결집력이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및 단체를 매개로 한 활동 교류 기회 보다는 장소를 매개로 한 활동 교류 기회가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충남의 문화예술인 네트워크 관계도는 기관 및 단체, 또는 활동장소를 매개로 한 협력문화 확산보다는 개인의 사적 네트워크망(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예술인)에 의존한 협업문화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문화예술인들의 클러스터화 내지 협업문화에 대한 확산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공식 네트워크망의 강화 노력이 필요한데, 예술기관 및 단체의 연대화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협력 기관 및 단체를 매개로 하여 예술가들 간의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를 도모해 나가는 전략 마련이 요구되었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협력 기관 및 단체로는 충남문화재단, 문화연구소 길, 홍주문화연구회, 공주대학교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예술인들이 교류하는 지역장소 중에는 홍성전통시장, 연미산자연미술공원, 홍주성, 결성향교 등이 매개중심성이 높은 지역장소로 분석되었는데, 매개중심성이 높은 장소는 다양한 지역장소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각 지역예술인들이 서로 공유하여 활용하는 빈도가 높은 장소라는 점에서 지역예술인 간의 교류 기회 폭을 넓혀줄 수 있는 매개 거점 공간으로 조성 및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실태조사분석 결과, 충남도와 시·군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기본 방향과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책 기본방향은 첫째, 공공 측면에서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형성을 추진해야 하며, 두 번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는 유도적 접근, 세 번째, 내생성, 착근성,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생태적 접근이 요구된다.

정책과제로서 문화예술인 간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는 첫째 충남 문화예술인 협력 네트워크 매개자 양성 및 예술인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 충남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문화예술인 협력네트워크와 클러스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네트워크 속에 활동하고 있는 매개자를 발굴하여 전략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인 매개자로서 잠재적 역량을 가지고 있거나 의사가 있는 신진(청년)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문화예술인 네트워크화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이 필요하다. 충남도, 문화재단, 시·군에서는 지역 문화유산, 전통을 배경으로 같은 장르별, 다른 장르별, 세대별, 성별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새로운 예술작품을 구상하고 창작하여 시연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 네트워크를 촉진할 뿐 아니라 지역문화진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협력 아티스트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매개집적공간에 대한 공급이 필요하다. 예술인 간의 물리적 근접성과 접근성의 확보는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예술인 교류와 협력을 매개하고 촉진할 수 있는 공동체 교류 시설은 클러스터 활성화에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다.

문화예술인과 기관단체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 주체 간에 상호 존중, 동반자적 관계, 파트너십의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많은 예술인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현실로 인해 기관단체의 관계에 있어서는 약자일 경우가 많고, 기관단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술인들 간에 역량에 편차가 있어 신뢰직,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수평적 신뢰구축 프로그램(문화예술인·기관 간 공감 프로그램)을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매개로 한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세부시책으로는 충남 커뮤니티형 레지던시 사업, 전통유산과 연계된 예술인들 간 협력형 사업 발굴 및 추진, 생활공간 개선에 예술인의 참여와 역할 증대 방안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인과 주민공동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해 알고, 문화예술인 또한 주민들의 생활공간 속에서 예술의 역할과 기능이 구현될 때 촉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충남 문화예술인의 날 / 충남문화 만남의 날 제도 도입,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 도입 활성화를 통한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조사되지 않았던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실태를 살펴보았다. 충남지역에는 일부 지역별로 예술인 클러스터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클러스터로서 발전할 수 있는 활동이 미흡하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책화와 추진을 위해서는 충남도 및 시·군차원에서 예술인 클러스터 형성에 대한 중요성과 문제의식을 예술인, 공공,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의 매개역할을 하는 문화재단, 예총, 문화원 등과의 문화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별로 클러스터가 잘 형성되지 않은 원인, 클러스터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정책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별로 여건과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는 세심한 정책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지만, 향후 실천을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연진, 2015,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문화예술 도입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연진, 2013, 창작스튜디오 현황 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연진, 2011, 문화지구 제도 개선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민석, 2015,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활성화 방안,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아, 2011, 유희공간 활용 창작공간의 프로그램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금연, 2014, 문화지구 관리 운영에 대한 인식 평가 연구 : 대학로 문화지구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중심으로,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세훈, 주유민, 2014,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지구정책 거버넌스 연구 : 부산광역시 또따또가를 사례로,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통권 제83권 (2014년 12월) pp.49-67
- 박혁, 2010, 문화지구의 유형별 계획특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도시 및 부동산개발학 석사학위논문
- 박세훈, 김은란, 박경현, 정소양, 2011,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국토연 2011-45
- 이상혁, 2012, 해외의 문화지구 사례, 2012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포럼
- 이지원, 2016, 제주 가시리 마을의 문화교육을 통한 농촌지역활성화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석사학위논문
- 임학순, 1999, 문화지구 조성모델 개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윤나영, 2015, 창작공간 기반 커뮤니티 아트 지원 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 : 서울시창작공간 금천예술공장 '금천미세스'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제12호 (2015년 12월) pp.161-185
- 정영도, 이정형, 2014, 미국 문화지구(Cultural District)의 문화특성 보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8
- 장혜영, 2008, 지역혁신을 위한 문화클러스터의 발전전략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영국의 셰필드, 스페인의 빌바오, 한국의 부천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Renn university, 2007.6, Culture and Urban Revitalization, p23
- <http://cafe.naver.com/studio525/155> (김소연, 마크 스톤 & 수잔 세이퍼트, 2008, 도시재생 프로젝트에서 예술가의 역할은, 예술경영지원센터, [해외논단] 창조경제에서 창조사회로)

부 록

1. 설문조사지

2. 네트워크 분석

부록 1. 설문조사지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관련 설문조사

ID				
----	--	--	--	--

안녕하세요? 충남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전략과제로서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예술인 및 관계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기획된 것으로서, 모든 응답 내용은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통계적인 자료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리며,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9월

충남연구원장

* 문화예술인 클러스터란? 문화예술인들의 협력네트워크가 지역사회(기관 또는 주민)와 다양한 형태(교류, 활동 등)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 충남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박철휘 박사 Tel 041-840-1142

1 일반사항

문-1.1. 성함 및 소속? _____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_____)

문-1.2. 귀하의 현재 살고계신 거주지와 거주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거주지 : _____ 시·군 _____ 읍·면 _____ (신도로명 또는 번지까지)

② 거주기간 : _____ 년

문-1.3. 귀하의 연령 및 예술가로서의 경력은?

① 나이: _____ 세 ② 예술가로서 경력 : _____ 년

문-1.4. 귀하의 예술분야? (중복응답 가능)

- | | | |
|---------------|------|------|
| ① 문학 | ⑥ 영화 | ⑪ 어문 |
| ② 미술(응용미술 포함) | ⑦ 연예 | ⑫ 출판 |
| ③ 음악 | ⑧ 국악 | ⑬ 만화 |
| ④ 무용 | ⑨ 사진 | ⑭ 기타 |
| ⑤ 연극 | ⑩ 건축 | |

2

거주동기

(공주 외 지역에 계신 분은 현재 거주지를 중심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2.1. 현 거주지에서 활동을 하게 된 동기는? (중복응답 가능)

- ① 고향 및 연고지여서
- ② 공간을 얻기가 용이해서
- ③ 교통이 편리해서
- ④ 예술가들과 교류가 용이해서
- 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서
- ⑥ 기타 ()

문-2.2. 현 거주공간은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거주공간
- ② 창작공간
- ③ 전시공간
- ④ 교육공간(세마나, 학습 등)
- ⑤ 홍보·판매공간
- ⑥ 기타 ()

문-2.7. 귀하의 거주환경과 거주지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매우 자부심을 가짐	자부심을 가짐	약간 자부심을 가짐	보통	약간 자부심이 없음	자부심이 없음	전혀 자부심이 없음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 예술가와의 네트워크에 대하여

문-3.1. 지난 1년 동안 창작활동에 도움을 받은 예술가 혹은 단체는 어디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거주지역 내 주변의 귀하와 동일한 분야 예술가
- ② 거주지역 내 귀하와 타분야 예술가
- ③ 지역 지원기관 및 프로그램
- ④ 지역 주민 및 민간단체
- ⑤ 거주지역 외부에 동일한 분야 예술가
- ⑥ 거주지역 외부에 타 분야 예술가
- ⑦ 거주 지역 내 자치단체(시청, 군청)
- ⑧ 충남도청 / 충남문화재단
- ⑨ 중앙정부 관련 기관(문화관광부 등)
- ⑩ 전국 규모의 민간예술단체
- ⑪ 지역의 민간예술단체
- ⑫ 학교(대학 및 모교)
- ⑬ 기타 ()

문-3.2.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창작활동을 하는데 ‘협력작업*’을 한 지역 내의 예술가와 횃수를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협력작업이란 작품창작 아이디어 구상, 작품활동, 전시, 교육, 홍보/판매 등 전문적인 도움을 주고 받은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illegible]

4 지역 문화기관과의 네트워크에 대하여

문-4.1. 귀하께서는 지역문화기관과 어느 정도 교류를 하십니까?

- | | |
|--------------|--------------|
| ① 거의 매일 | ⑤ 1~2회 / 1년 |
| ② 1~2회 / 1주 | ⑥ 3회 이상 / 1년 |
| ③ 1~2회 / 1달 | ⑦ 없음 |
| ④ 3회 이상 / 1달 | |

문-4.2. 지난 1년 동안, 귀하께서 지역기관·단체와 활동(협력, 교류 등)한 내용 및 횟수를 표시해 주십시오(없으면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번호	지역기관 · 단체명	지역기관·단체와 활동한 내용 및 횟수					
		공연/전시 /발표	교육	행사 /축제	재능 기부	친분유지	기타
예시	OOO문화원	2	4	2			3

문화예술인, 기관(단체), 주민들간의 협력·교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안

문-6.1. 문화예술인 간의 네트워크(교류·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 공주(또는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예 : 예술가들을 위한 집적 공간[예술촌, 마을 등] 조성, 교류공간 조성, 교류·활동 프로그램 제공, 공동학습·교육 지원 등)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 ④ 기타(_____)

문-6.2. 문화예술인과 지역 기관(또는 단체)과의 네트워크(교류·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 공주(또는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예 : 교류공간 제공, 교류·활동 프로그램 제공, 공동학습·교육 지원 등)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 ④ 기타(_____)

문-6.3. 문화예술인과 지역 주민들과의 네트워크(교류·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 공주(또는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예 : 교류공간 제공, 교류·활동 프로그램 제공, 공동학습·교육 지원 등)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 ④ 기타(_____)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문화예술인 네트워크 분석⁶⁹⁾

1. 네트워크 분석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설문대상자와 협력예술인, 협력단체, 그리고 활동장소로 구분해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총 97명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하여, 협력네트워크 규모와 밀도, 그리고 중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협력예술인들에 대해서는 89명의 조사자가 응답을 하였고, 협력예술인 네트워크에 나타난 행위자수는 총 495개 노드로 나타났으며, 이 중 13개는 고립 노드수로 분류되었다.

전체 링크수는 494개이고, 네트워크의 밀도는 0.008로 나타났으며, 평균연결수는 2.016, 노드들간 평균거리는 2.303으로 분석되었다.

〈부록 표 2-1〉 협력예술가 네트워크 일반 속성 분석 결과

구분	링크수	밀도	평균연결수	군집화계수	노드들간 평균거리	고립 노드수
협력예술가	494	0.008	2.016	0.467	2.303	13

1) 예술인간의 네트워크 - 협력예술가

설문 응답자(예술인)와 협업한 예술가 간에는 1모드 네트워크 관계가 형성되므로 1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결정도집중도, 근접집중도, 매개집중도를 각각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부록 표 2-2〉 예술가와의 협업 예술가 집중도 분석 결과(1-mode)

구분		연결정도 집중도 (로컬)	근접 집중도 (글로벌)	매개 집중도
협력예술가	내향(in)	11.15	15.155	0.684
	외향(out)	7.844	7.523	

(1) 국지적 중심성 분석(연결정도중심성 : Degree Centrality)

연결정도중심성은 각 행위자와 직접 연결된 행위자수 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국지적(local) 차원에서 중심성을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수라 할 수 있다.

69) 본 네트워크 분석은 (재)대전세종연구원원의 정경석박사의 연구자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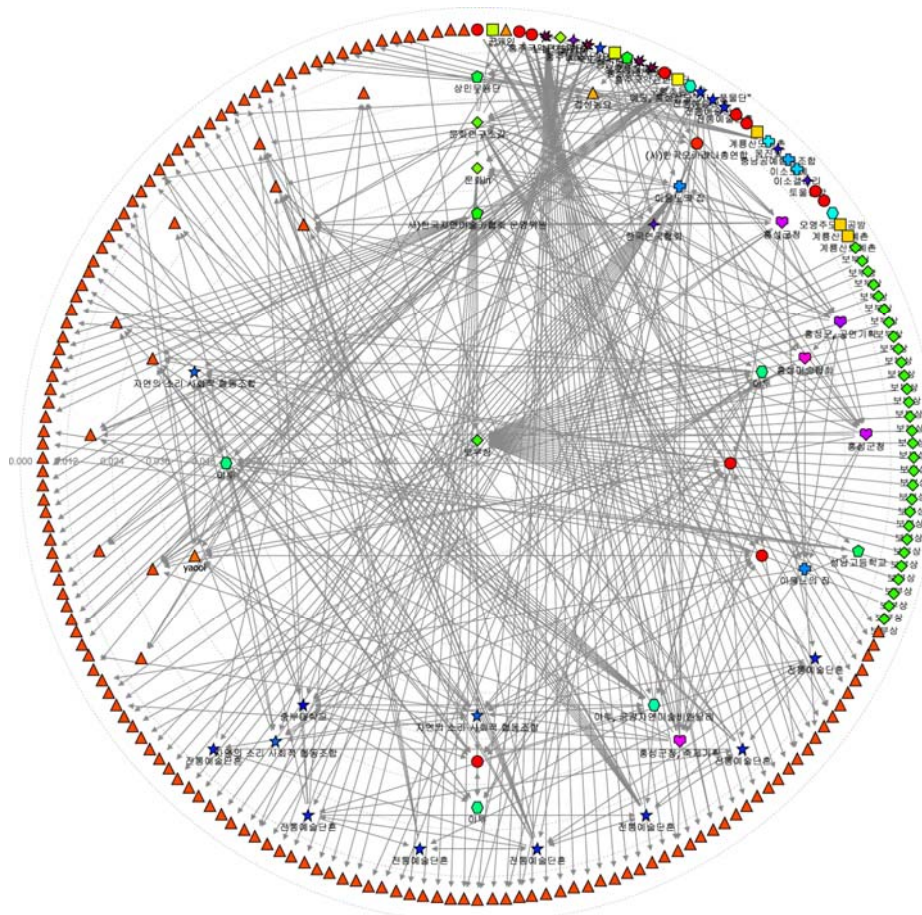
내향연결정도중심성이 높다는 의미는 국지적 네트워크 범위 내에서 다른 예술인들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명예 또는 선망이 높은 사람을 의미하며, 외향연결정도중심성이 높다는 의미는 국지적 네트워크 범위에서 일명 마당발로 통할만큼, 주변 예술인과의 인적 교류망이 두터운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부록 표 2-3〉 국지적 중심성이 높은 지역예술인(연결정도중심성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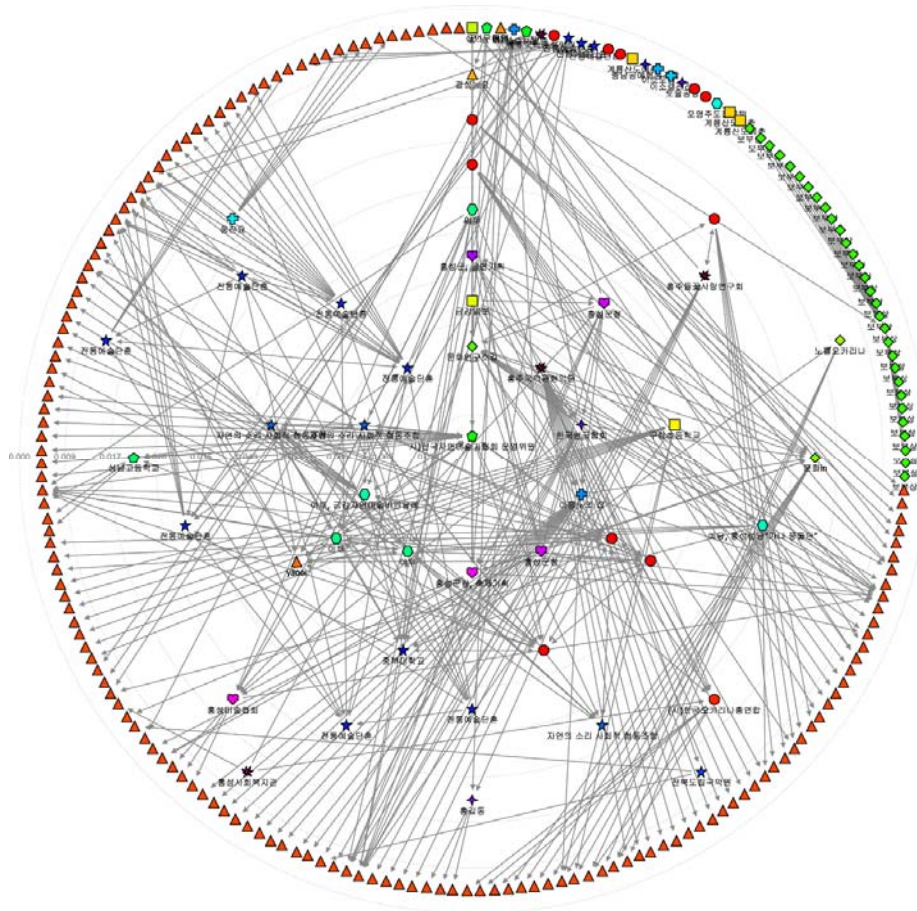
순위	소속	이름	내향중심성	순위	소속	이름	외향중심성
1	보부상	이00	0.119342	1	한국자연미술가협회	고00	0.086420
2	자연의소리	김00	0.053498	2	이응노의집	윤00	0.065844
3	한국자연미술가협회	고00	0.049383	3	홍성문화연구소 길	최0	0.061728
4	-	전00	0.049383	4	홍주국악관현악단	목00	0.061728
5	야투	이00	0.049383	5	한국연극협회	전00	0.061728
6	야투	고00	0.045267	6	홍성군청	공00	0.061728
7	자연의소리	허샘00	0.045267	7	홍성군청	손00	0.061728
8	-	권00	0.041152	8	야투	고00	0.061728
9	야투	정00	0.041152	9	야투	정00	0.061728
10	-	최00	0.041152	10	자연의소리	김00	0.061728
	중부대학교	허0	0.041152		전통예술단혼	백00	

주 : 연결정도중심성 지수가 높은 상위 10인 만 표기

다음의 동심원 도표(concentric graph)는 각각 국지적 차원에서 명예가 높은 상위 지역예술가들과 협업 활동을 위해 도움을 받고 교류를 원하는 상위 마당발 스타일의 지역예술가들이 갖는 중심적 위상관계를 그들이 속한 예술기관 및 단체 등으로 표기하여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시각화 한 자료로써, 예술가(소속) 노드 위치가 동심원 중앙에 가까울수록 연결정도중심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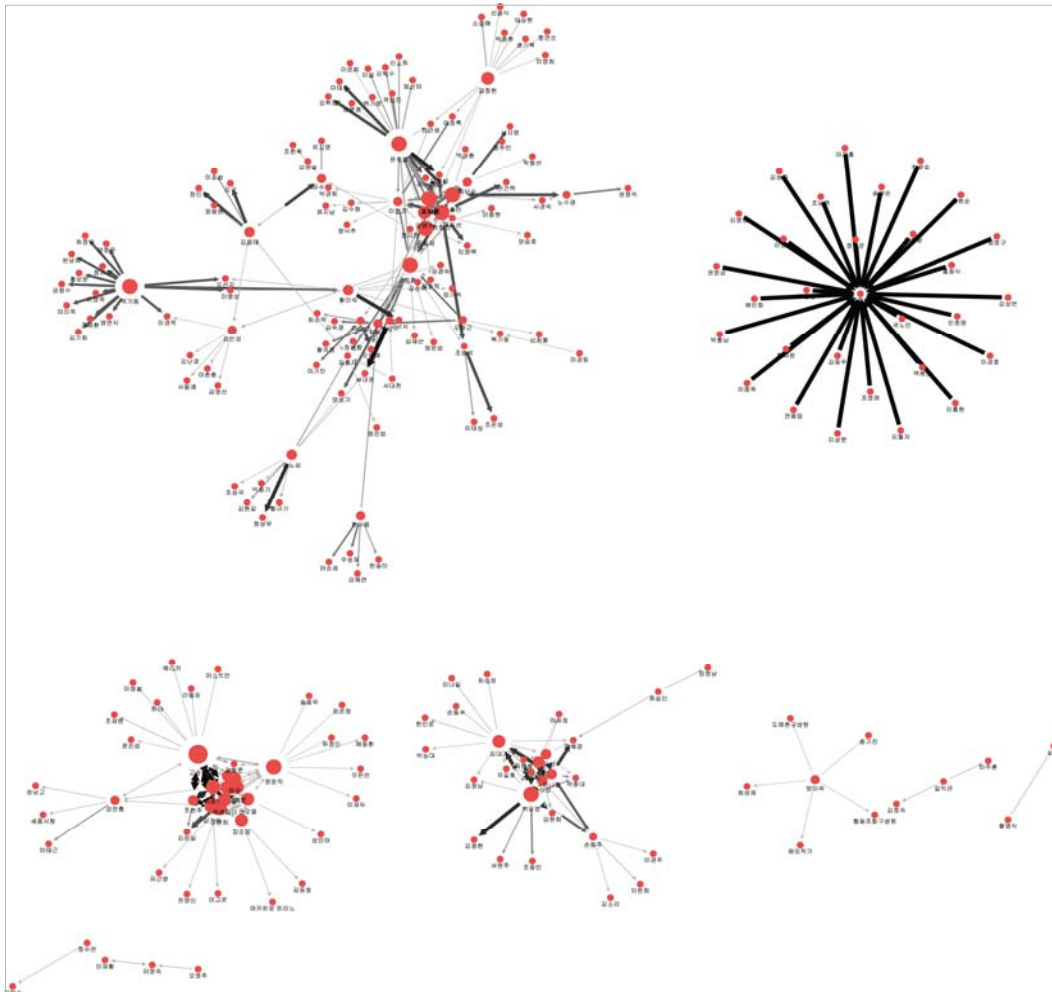
〈부록 그림 2-1〉 국지적 내향 중심성이 높은 지역 예술가 소속 관계도



〈부록 그림 2-2〉 국지적 외향 중심성이 높은 지역 예술가 소속 관계도

한편, 〈부록 그림 2-3〉은 〈부록 표 2-3〉 중 외향 연결정도중심성 지수 전체를 가지고 스프링도표(소시오그램)로 시각화 한 것으로 노드의 반경이 클수록 국지적 차원(직접 연계된 예술인 수)에서 응답설문자들이 협력예술인으로서 가장 많이 교류하는 사람임을 의미하며, 링크의 굵기는 교류의 강도(빈도)를 의미한다.

관계망도를 보면, 비교적 복잡한 3개의 다발형 네트워크망과 2개의 스타망, 그리고 4개의 1차원 망(2~3개 노드)으로 구성된 9개 하위 네트워크망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부록 그림 2-3〉 외향 연결정도중심성 관계망 그래프(협력예술가)

(2) 전역적 중심성 분석(근접중심성 : Closeness Centrality)

근접중심성은 직접적으로 연결된 노드뿐 아니라 네트워크 내 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노드들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중심성을 측정하는 전역지표로써 특정 예술인이 전체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얼마나 가까이 또는 멀리 위치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심성 지수이다.

네트워크 내 근접중심성이 높은 예술인 일수록 정보, 권력, 영향력, 사회적 지원에 대한 확보와 접근이 쉬움을 의미하며, 이는 곧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 속에서 위세(prestige)가 높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부록 표 2-4〉 전역적 중심성이 높은 지역예술인(근접중심성지수)

순위	소속	이름	내향중심성	순위	소속	이름	외향중심성
1	보부상	이00	0.119342	1	홍성문화연구소 길	최0	0.146507
2	자연의소리	김00	0.053498	2	홍성군청	공00	0.135369
3	한국자연 미술가협회	고00	0.049677	3	홍성군청	손00	0.134582
4	-	전00	0.049677	4	홍성군	강00	0.134582
5	야투	이00	0.049677	5	한국연극협회	전00	0.133804
6	야투	고00	0.046365	6	금강일보	김00	0.133537
7	자연의소리	허샘00	0.046365	7	홍성군청	조00	0.13078
8	-	권00	0.043467	8	구항초등학교	김00	0.120637
9	야투	정00	0.043467	9	이응노의집	윤00	0.107167
10	-	최00	0.043467	10	홍성사회복지관	오00	0.106547
	중부대학교	허0	0.043467				

주 : 근접중심성 지수가 높은 상위 10인 만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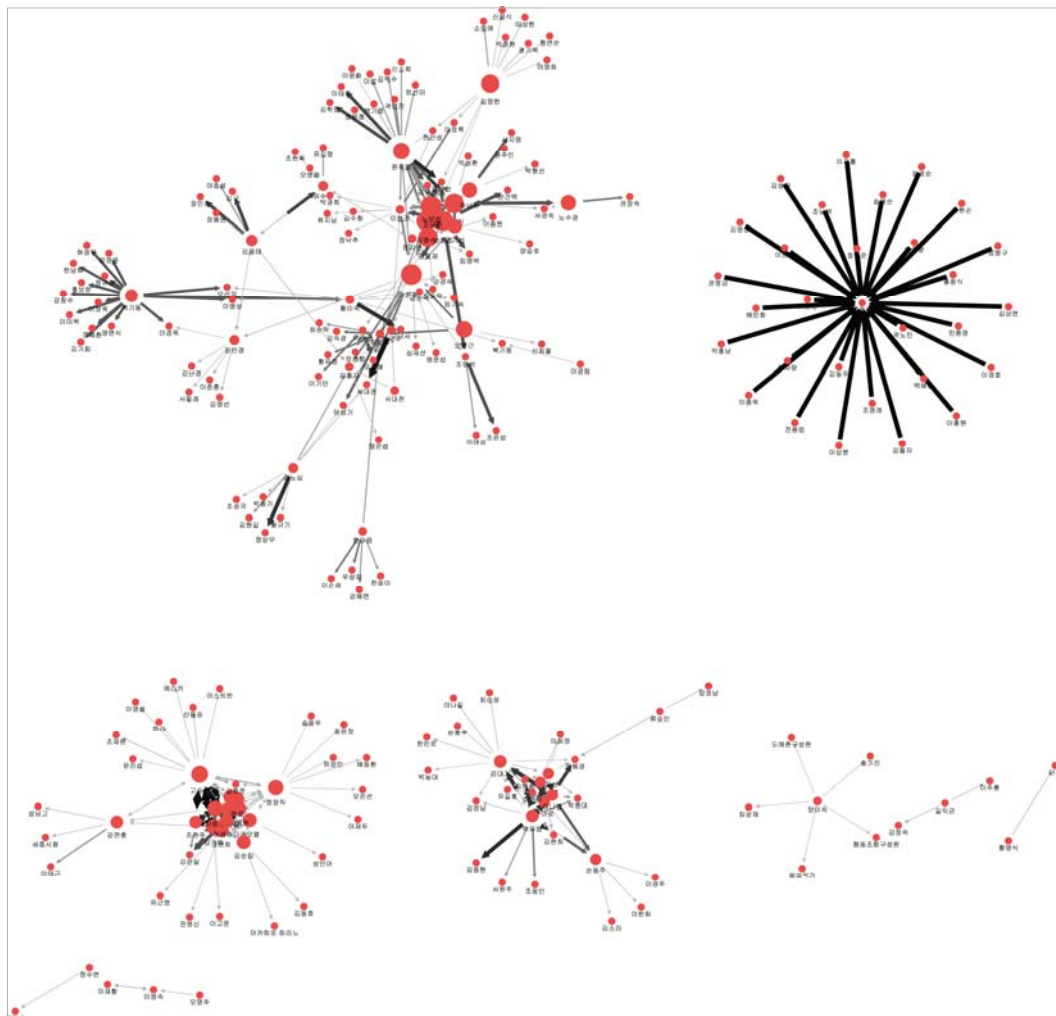
내향근접중심성이 높다는 의미는 전체 네트워크 속에서 다른 예술인들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명에 또는 선망이 높은 사람을 의미하며, 외향근접중심성이 높다는 의미는 전체 네트워크 속에서 일명 마당발로 통할 만큼, 주변 예술인과의 인적 교류망이 두터운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상위내향근접중심성은 내향연결정도중심성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향근접중심성의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속한 예술인과의 교류가 보다 활발히 나타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이들의 영향력이 전체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부록 그림 2-4〉는 〈부록 표 2-4〉 중 외향 근접중심성 지수 전체를 가지고 스프링도표(소시오그램)로 시각화 한 것으로 노드의 반경이 클수록 네트워크 전체의 전역적 차원(직접 및 간접 연계된 예술인간의 링크 거리 계산)에서 응답설문자들이 협력예술인으로 가장 많이 교류하는 예술인으로 지목한 사람임을 의미하며, 링크의 굵기는 교류의 강도(빈도)를 의미한다.

국지적 중심성을 볼 수 있는 연결정도중심성과 매우 흡사한 관계망 그래프(노드크기 주목)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하위네트워크 집단 간에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아닌, 지역단위의 소집단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네트워크 구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좌측 상단의 비교적 복잡한 네트워크 집단 일부를 제외하고, 국지적 중심성이 높은 지역예술인이 전역적 중심성 또한 높게 나타나는 유사적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록 그림 2-4〉 외향 근접중심성 관계망 그래프(협력예술인)

(3) 매개중심성 분석(between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은 네트워크내에서 매개자 혹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일명 브로커(broker) 또는 문지기(gatekeeper) 역할자를 찾고자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

즉, A라는 친목단체와 C라는 친목단체는 서로 직접 만나거나 교류해 본적이 없으나 A 및 C는 모두 B라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언젠가 B라는 사람을 통해 A와 C는 서로 알고 지낼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때 B라는 사람은 일종의 브로커(broker) 내지 브릿지(bridge)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매개중심성이 높은 사람은 정보의 교류를 통제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의미하며, 다른 집단 내 예술인과 타 집단의 예술인을 이어주고 소개해 주는 가교적 역할 수행자라 볼 수 있다.

연결정도중심성과 근접중심성 분석 결과, 설문응답에 기반한 협력예술가 네트워크망은 소 집단별로 네트워크망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네트워크망은 1인에 집중되어 있거나 또는 파편적으로 분절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러 소 네트워크 집단별로 분절 내지 파편화 되어 있는 이유는 이들 소 네트워크 집단간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매개해 줄 수 있는 지역예술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한다.

한편, 전체 예술인들 간의 네트워크는 동일지역 내에서 예술기관 및 단체별로 유사한 활동 내지 친분적 교류만을 할 뿐, 이질적인 예술단체들 간 또는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융복합적 창작활동을 어려운 네트워크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분석은 전체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하위 네트워크 집단간을 매개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지역예술인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하위 네트워크 집단 범위 내에서도 구성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교류를 촉진하는 브로커 내지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내 예술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매개중심성이 높은 사람은 주로 홍성군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예술인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2-5 참조).

다음의 동심원 도표(concentric graph)는 타 예술기관 또는 단체에 속하는 예술가와 다른 예술가를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자로서 매개중심성이 높은 사람을 그 소속기관명으로 대체하여 표기한 것이다.

〈부록 표 2-5〉 매개중심성이 높은 지역예술인(매개중심성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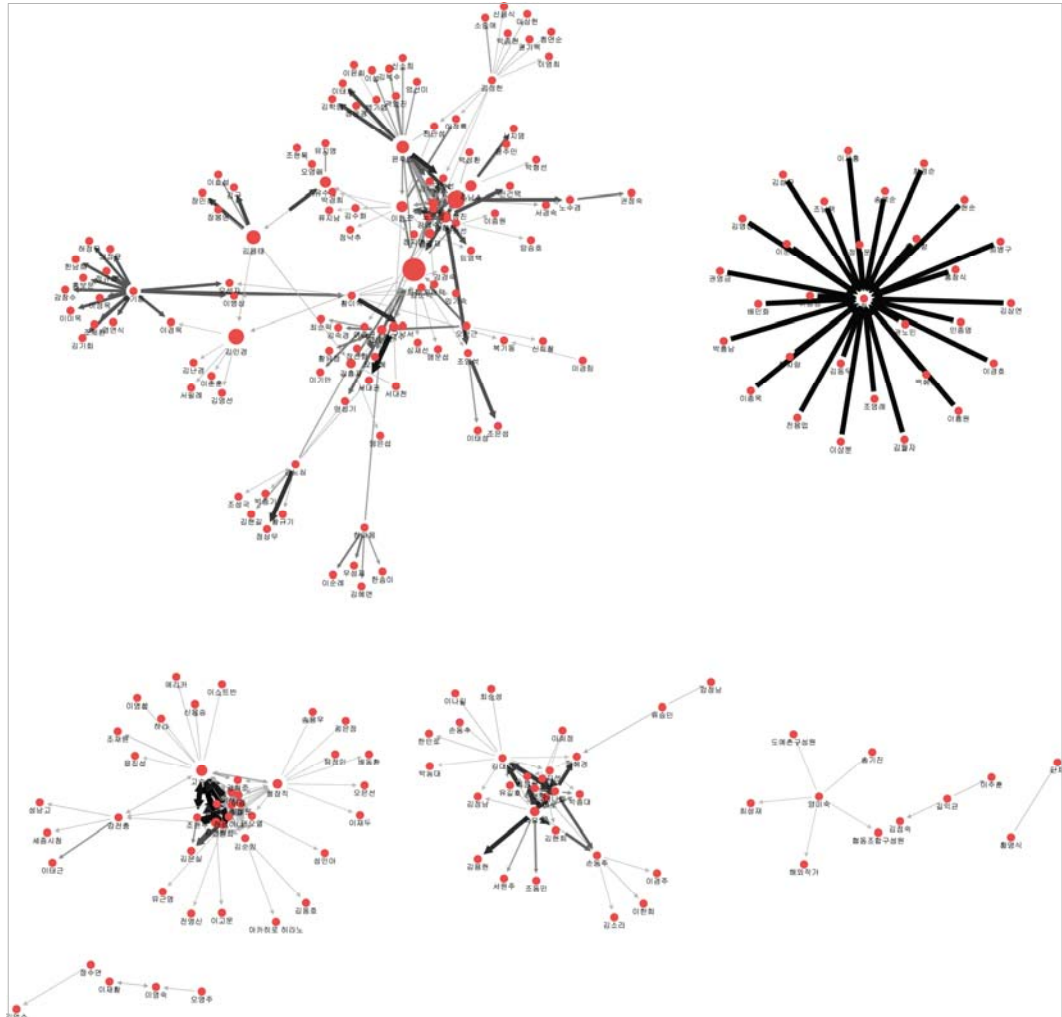
순위	소속	이름	매개중심성
1	홍성문화연구소길	최0	0.006983
2	한국연극협회	전00	0.004452
3	-	김00	0.003571
4	홍주들꽃사랑연구회	김00	0.003095
5	이응노의집	윤00	0.002185
6	한국자연미술가협회	고00	0.002077
7	문화in	이00	0.001998
8	홍성미술협회	주00	0.001803
9	홍성군청	손00	0.001621
10	홍길동	유00	0.001462

주 : 매개중심성 지수가 높은 상위 10인 만 표기



〈부록 그림 2-5〉 매개중심성이 높은 지역 예술가 소속 관계도

〈부록 그림 2-6〉은 〈부록 표 2-5〉의 매개중심성 지수 전체를 가지고 스프링도표(소시오그램)로 시각화 한 것으로 노드의 반경이 클수록 매개중심성이 높은 지역예술인임을 의미하며, 링크의 굵기는 교류의 강도(빈도)를 의미한다.



〈부록 그림 2-6〉 매개중심성 관계망 그래프(협력예술가)

일반적으로 근접중심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매개중심성 또한 높은 것은 아니며, 근접중심성 또한 정보통제력을 표현하는 지표로 활용되기는 하나, 매개중심성보다는 약하다.

따라서 정보의 통제 측면에서는 매개중심성이 가장 현저한 통제력을 보이는 지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예술인(예를 들면 최0, 전00, 윤00, 고00, 손00 등)들의 경우, 국지적 중심성 뿐 아니라 전역적 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해 볼 때, 지역의 문화예술 네트워크 저변 확대 측면에서 이들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역할들에 대한 탐색연구를 통하여, 충남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육성 관리 및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2) 예술인과 협력기관 및 단체 간의 네트워크

설문 응답 예술인과 협력하는 기관 및 단체 간에는 2모드 네트워크 관계가 형성되므로 2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결정도집중도, 근접집중도, 매개집중도를 각각 구해보면 다음과 같았다.

〈부록 표 2-6〉 예술가와의 협력 기관 및 단체 집중도 분석 결과(2-mode)

구분			연결정도 집중도 (로컬)	근접 집중도 (글로벌)		매개 집중도	
				표준화	싱글모드 표준화	표준화	싱글모드 표준화
협력 단체	1-mode		0.101	0.091		0.113	
	2-mode	Main Node(Actor)	0.099	1.433	1.88	0.097	0.097
		Sub Mode(Event)	0.159	1.733	1.057	0.113	0.113

(1) 2-모드(예술인+기관 및 단체) 국지적 중심성 분석(연결정도중심성 : Degree Centr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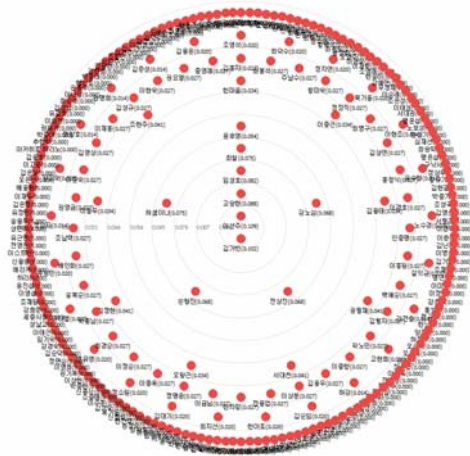
협력기관 및 단체와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 예술인과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연계되어 있는 기관 및 단체는 각각 다음과 같다.

〈부록 표 2-7〉 2-모드 국지적 중심성이 높은 지역예술인 및 기관·단체(연결정도중심성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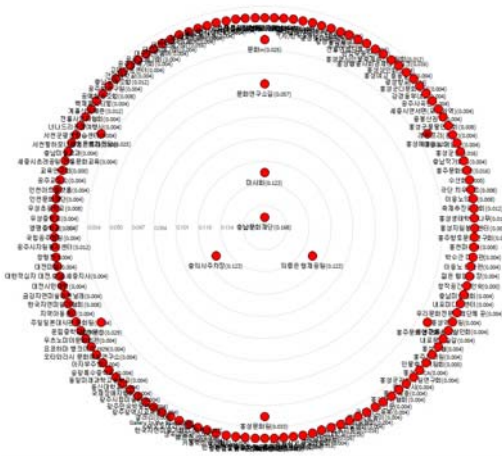
순위	예술인	2-mode 연결정도중심성	협력기관 및 단체명	2-mode 연결정도중심성
1	이00	0.108844	충남문화재단	0.168033
2	김00	0.102041	마사회	0.122951
3	고00	0.088435	의좋은 형제공원	0.122951
4	임00	0.081633	충의사주차장	0.122951
5	최0	0.07483	문화연구소길	0.057377
6	허샘00	0.07483	홍주문화연구회	0.032787
7	강00	0.068027	홍성문화원	0.032787
8	전00	0.068027	서천군청	0.028689
9	손00	0.068027	문화in	0.02459
10	윤00	0.054422	서천문예의전당	0.02459

주 : 2-모드 연결정도중심성 지수가 높은 상위 10인 만 표기

다음의 동심원 도표(concentric graph)는 협력기관 및 단체와 교류하는 지역예술인과 기관 및 단체의 국지적 중심성 지수 크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표기한 것이다.



〈부록 그림 2-7〉 기관 및 단체와 교류경험이 있는 예술가의 국지적 중심성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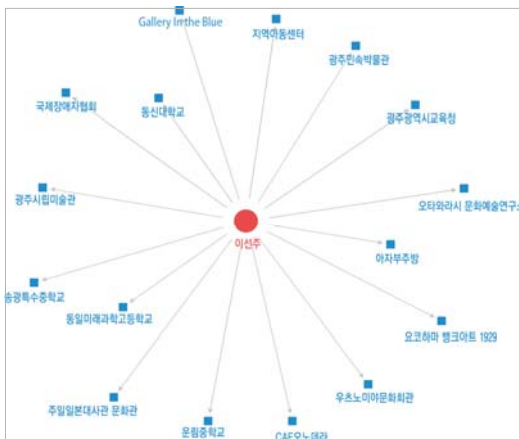


〈부록 그림 2-8〉 예술가와 교류경험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국지적 중심성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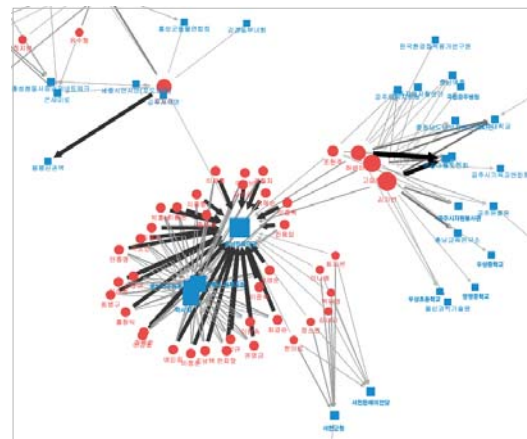
예술인 이00의 경우, 16개 기관 및 단체와 직접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나, 표준화된 연결정도 중심성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기관 및 단체들은 특정 예술인을 제외하고는 타 예술인과의 관계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부록 그림 2-7 참조).

이에 반해, 김00, 고00, 허샘00 등의 지역예술인들은 공주권역의 기관 및 단체와 비교적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홍성권역(부록 그림 2-11 좌측 상단)의 경우에는 지역예술인과 기관 및 단체간에 가장 고르고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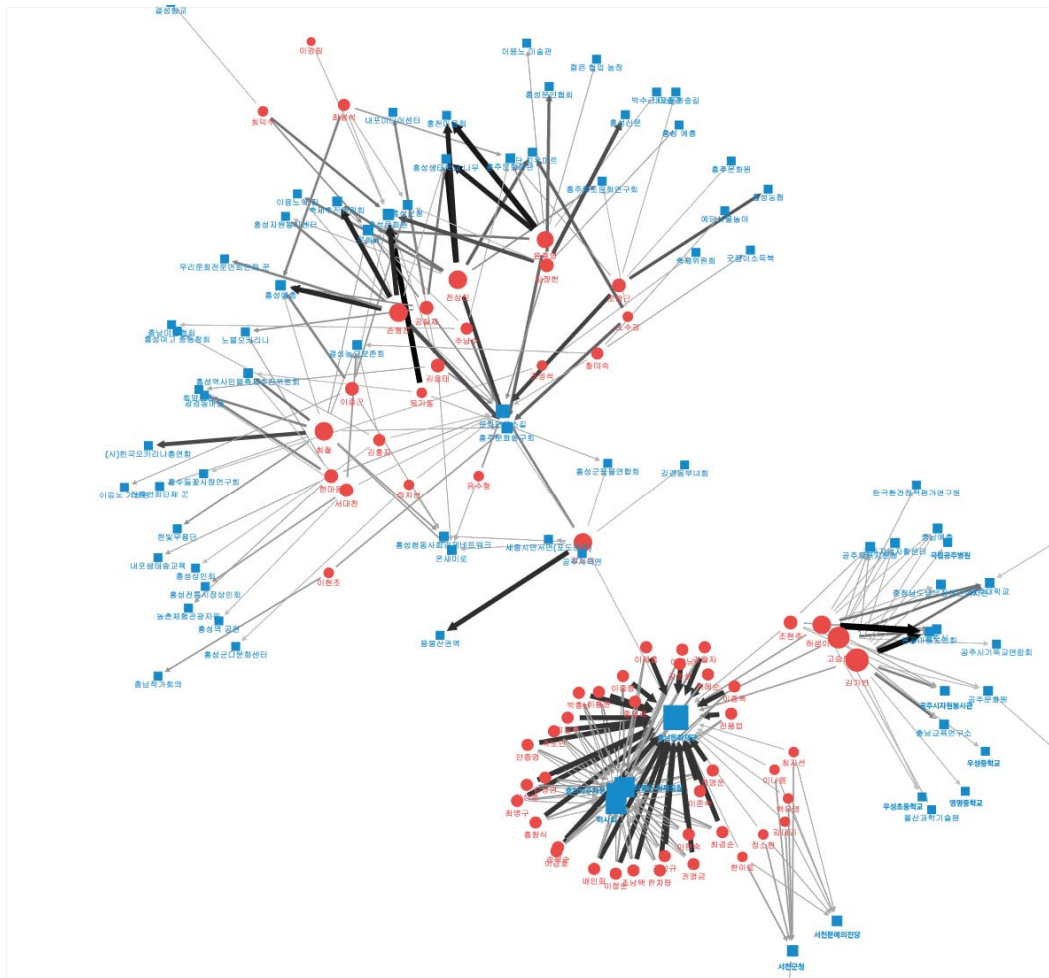
한편, 지역예술인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있는 협력기관 및 단체를 중심으로 국지적 중심성을 살펴보면, 충남문화재단, 마사회, 의좋은 형제공원, 충의사주차장 등에서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으나, 밀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부록 그림 2-8 참조), 홍성권역은 비록 집중도는 낮으나, 밀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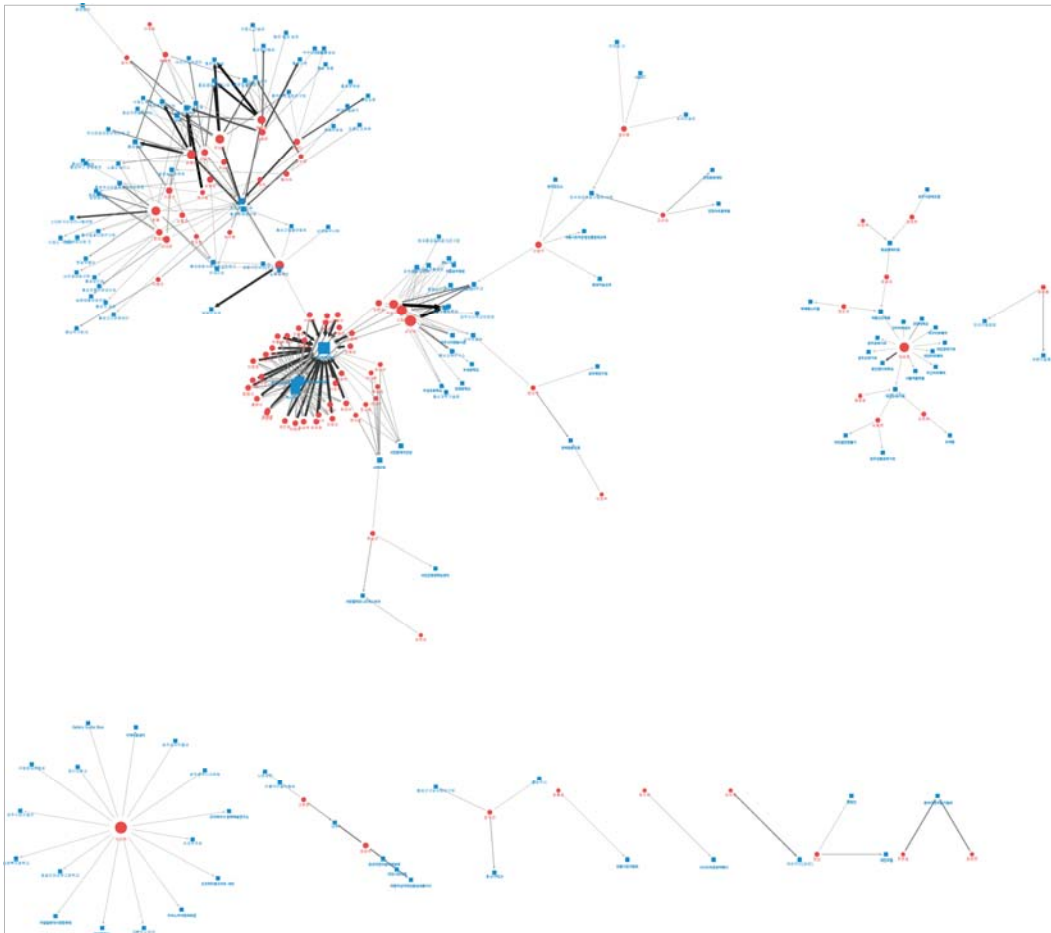
〈부록 그림 2-9〉 연결정도중심성이 가장 높은 지역예술인의 관계망 그래프



〈부록 그림 2-10〉 연결정도중심성이 가장 높은 기관·단체의 관계망 그래프



지역예술인들이 지역기관 및 단체와 협력 및 교류한 관계망을 살펴보면, 크게 홍성권역과 일부 공주 및 대전권, 그리고 미세하나마 서천권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홍성권역을 제외하고는 일부 예술인 및 기관 및 단체에 쏠림 현상 내지 단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부록 그림 2-12〉 국지적 중심성(연결정도중심성) 관계망 그래프(예술인+협력기관 및 단체)

(2) 2-모드(예술인+기관 및 단체) 전역적 중심성 분석(근접중심성 : Closeness Centrality)

2-모드 근접중심성 분석은 직접적으로 연결된 노드뿐 아니라 2-모드 네트워크 내 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노드들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중심성을 측정하는 전역지표로써 특정 예술인과 협력기관 및 단체 간에 연결된 전체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네트워크의 중심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심성 지수이다.

앞서 1-모드 분석(예술인간의 교류)과 달리 여기에서는 기관 및 단체와 작·간접적으로 교류한 예술인 집단 중 전역적 중심성이 가장 높은 사람과 기관 및 단체를 찾아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체 네트워크가 여러 개의 하위 네트워크 그룹으로 분절되어 있고 파편화 되어 있는 경우, 2-모드 근접 중심성 지수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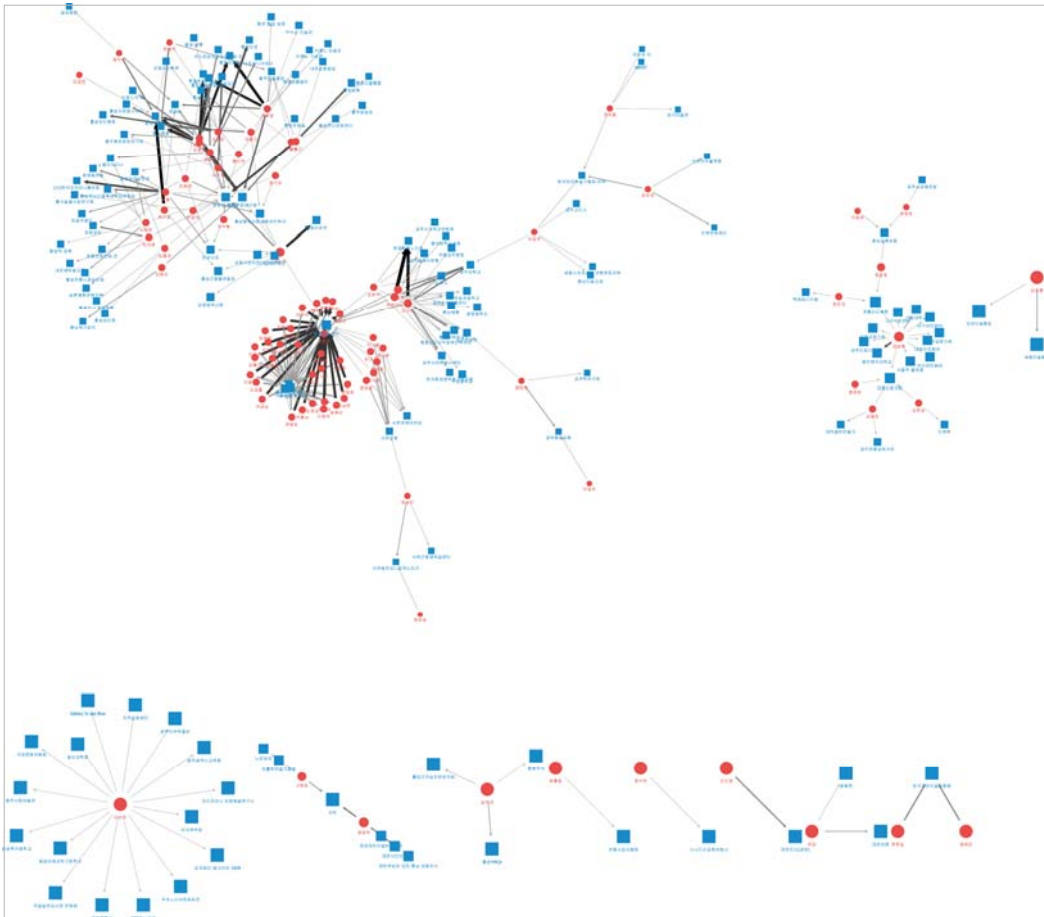
다시 말해, 독립된 스타형이나 1자형의 1대 1 매칭 네트워크 구조 하에서는 상대적 근접중심성이 이론적 최대치인 1이 나오게 되므로 이들을 제척시킨 상태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록 표 2-8〉 2-모드 전역적 중심성이 높은 지역예술인 및 기관·단체(근접중심성지수)

순위	예술인	2-mode 근접중심성	순위	협력기관 및 단체명	2-mode 근접중심성
1~9	김00	1	1~29	레몬트리(공방)	1
	길00	1		홍성YMCA	1
	강00	1		홍성군귀농지원연구회	1
	이00	1		홍성역사	1
	전00	1		세종미술협회	1
	최00	1		자연미술협회	1
	허0	1		야투	1
	정00	1		CAF오노데라	1
	최00	1		Gallery In the Blue	1
10	정00	0.666667		광주광역시교육청	1
11	임00	0.640000		광주민속박물관	1
12	고00	0.571429		광주시립미술관	1
13	강00	0.503268		국제장애자협회	1
14	정00	0.421053		동신대학교	1
15	김00	0.416216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1
16	고00	0.413238		송광특수중학교	1
17	허쌤00	0.404553		아자부주방	1
18	정00	0.390244		오타와라시 문화예술연구소	1
19	김00	0.390244		요코하마뱅크아트 1929	1
20	조00	0.386935		우츠노미야문화회관	1
21	한00	0.383085		운림중학교	1
22	최00	0.383085		주일일본대사관 문화원	1
23	김00	0.383085		지역아동센터	1

순위	예술인	2-mode 근접중심성	순위	협력기관 및 단체명	2-mode 근접중심성
24	정00	0.383085		한국자연미술가협회	1
25	백00	0.383085		대전미협	1
26	이00	0.383085		창형전	1
27	김00	0.380952		너나드리공정여행사	1
28	최00	0.37931		전통사업자협회	1
29	김00	0.37931	29	계룡산도예촌	0.7
30	홍00	0.37931	30	대전도예가회	0.677419
31	이00	0.37931	31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0.666667
32	인00	0.37931	32	대전시민대학	0.666667
33	이00	0.37931	33	대한적십자대전.충남.세종지사	0.666667
34	백00	0.37931	34	노은성당	0.6
35	김00	0.37931	35	카톨릭미술가협회	0.6
36	곽00	0.37931	36	건양대학교	0.567568
37	이00	0.37931	37	고마아트센터	0.567568
38	김00	0.37931	38	공주공예가회	0.567568
39	이00	0.37931	39	공주도예가회	0.567568
40	전00	0.37931	40	대구아트페어	0.567568
41	한00	0.37931	41	대전공예가회	0.567568
42	이00	0.37931	42	대전아트페어	0.567568
43	정00	0.37931	43	부산아트페어	0.567568
44	이00	0.37931	44	서울역 플랫폼	0.567568
45	이00	0.37931	45	용인명지대학교	0.567568
46	최00	0.37931	46	충남문화재단	0.551648
47	박00	0.37931	47	문화연구소길	0.489279
48	송00	0.37931	48	홍주문화연구회	0.455535
49	배00	0.37931	49	충남공예조합	0.446809
50	조00	0.37931	50	홍성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0.432014

주 : 2-모드 근접중심성 지수가 높은 상위 50위 만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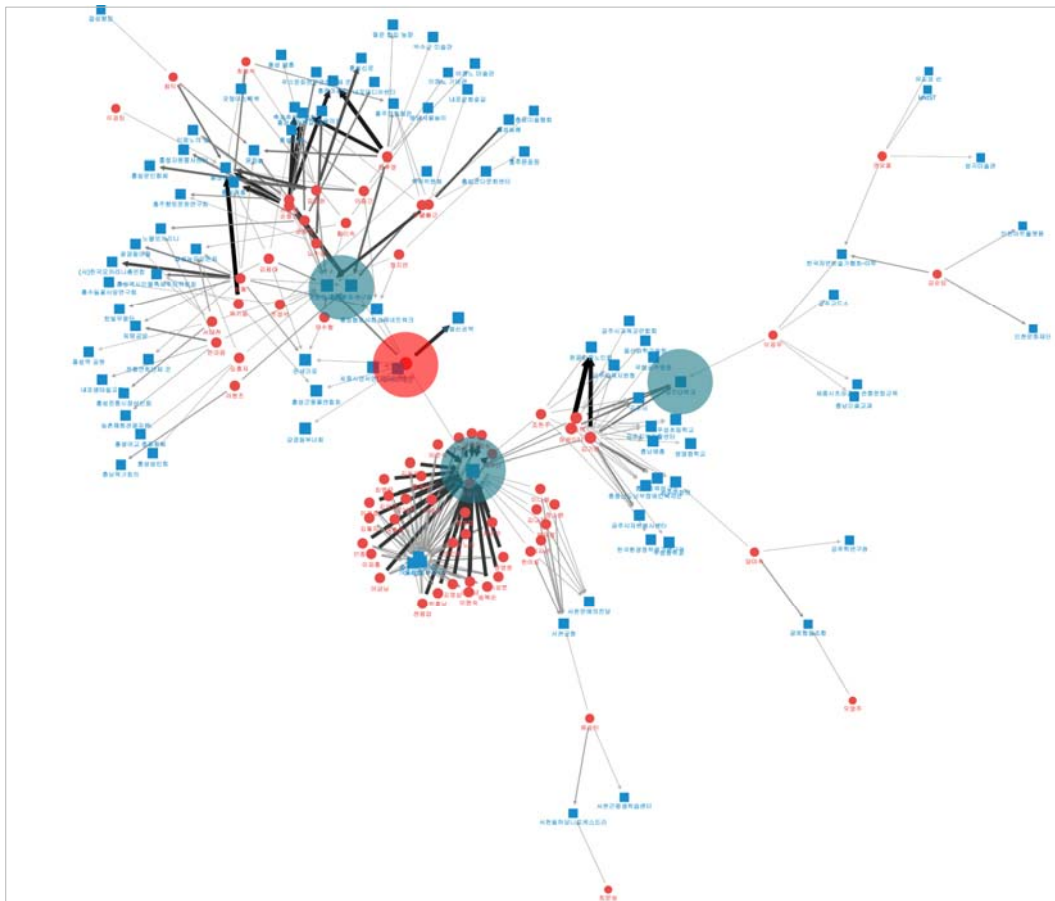
〈부록 그림 2-13〉 전역적 중심성(근접 중심성) 관계망 그래프(예술인+협력기관 및 단체)

〈부록 그림 2-13〉 하단의 스타형 하위 네트워크나 1자형의 1대 1매칭 네트워크에 속한 행위자들은 근접중심성 지수가 모두 1로 수렴하고 있다.

또한, 상단 우측의 분절된 소규모 네트워크 구조 하에서도 전역 중심성 지수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비록 이 소규모 네트워크 집단 내에서 전역적 중심성이 높은 예술인 또는 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보다 바람직한 네트워크 관계의 형성은 상단 중간 또는 좌측에 위치한 주(main) 네트워크 집단과 연계될 수 있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일례로 상단 좌측과 상단 중간 네트워크 그룹을 하나로 연계시키면서 브릿지(bridge)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강00씨의 경우, 전역중심성은 다소 낮으나, 그 역할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기관 및 단체의 경우에 있어서도, 충남문화재단, 문화연구소 길, 홍주문화연구회, 공주대학교 등은 전체 네트워크 구조 상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부록 그림 2-14〉 가교역할로서의 전역중심성이 높은 예술인 및 기관·단체의 중요성

즉, 여러 개의 하위 네트워크 집단으로 파편화 되어 있거나 분절되어 있는 전체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예술가 및 기관단체는 매개중심성이 높은 집단이다.

(3) 2-모드(예술인+기관 및 단체) 매개중심성 분석(betweenness Centrality)

2-모드 매개중심성 분석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기관 및 단체와 교류 경험이 있는 예술인 중 강00씨의 경우,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도 김00, 이00, 고00, 허샘00, 최0 순으로 이들은 소속 네트워크 집단과 타 네트워크 집단을 연계시키는 가교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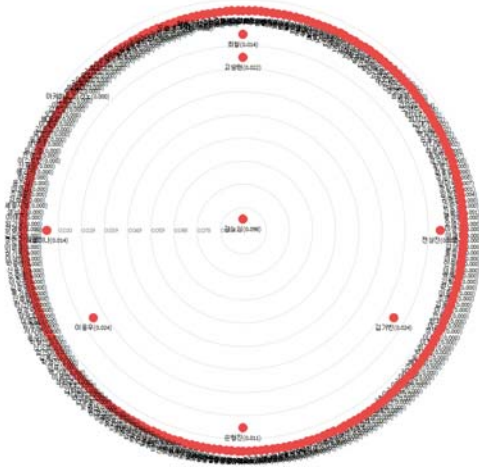
또한, 예술인과 교류 경험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있어서도 충남문화재단, 문화연구소길, 홍주문화연구회, 공주대학교 등도 유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이라 볼 수 있다.

〈부록 표 2-9〉 매개중심성이 높은 지역예술인 및 기관·단체(매개중심성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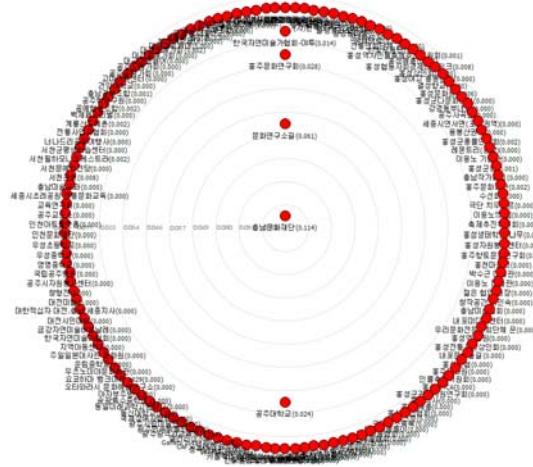
순위	예술인	2-mode 매개중심성	협력기관 및 단체명	매개중심성
1	강00	0.097774	충남문화재단	0.114408
2	김00	0.024192	문화연구소길	0.06068
3	이00	0.023634	홍주문화연구회	0.027531
4	고00	0.022255	공주대학교	0.023664
5	허샘00	0.013706	한국자연미술가협회-야투	0.014397
6	최0	0.013578	공주문화원	0.008372
7	손00	0.011475	서천군청	0.008361
8	전00	0.010487	홍성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0.008197
9	윤00	0.008824	홍성문화원	0.006248
10	김00	0.008422	온새미로	0.005752

주 : 2-모드 매개중심성 지수가 높은 상위 10인 만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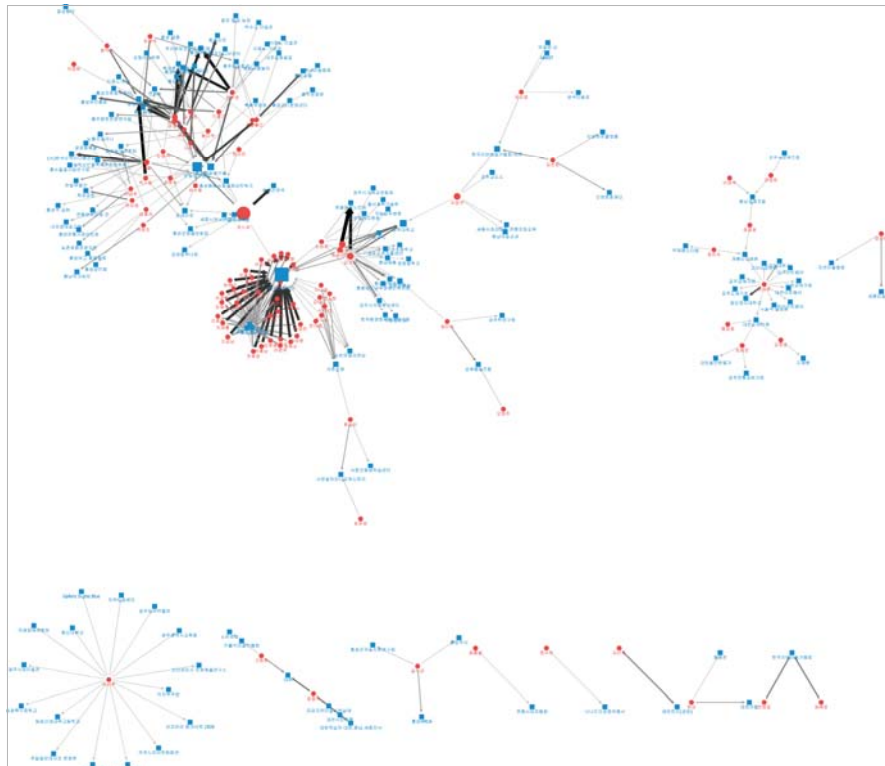
다음의 동심원 도표(concentric graph)는 협력기관 및 단체와 교류하는 지역예술인과 기관 및 단체의 매개중심성 지수 크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표기한 것이다.



〈부록 그림 2-15〉 기관 및 단체와 교류 관계가 있는 예술가의 매개중심성 분포도



〈부록 그림 2-16〉 예술가와 교류 관계가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매개중심성 분포도



〈부록 그림 2-17〉 매개중심성 관계망 그래프(예술인 + 협력기관 및 단체)

지역예술인과 지역기관 및 단체와 협력 및 교류한 매개중심성 관계망을 살펴보면, 앞서 설명한 매개중심성이 높은 지역예술인과 기관 및 단체의 노드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부록 그림 2-17 참조).

3) 예술인과 지역장소 간 네트워크

설문 응답 예술인과 활동한 장소 간에도 2모드 네트워크 관계가 형성되므로 2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결정도집중도, 근접집중도, 매개집중도를 각각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부록 표 2-10〉 예술가와의 활동장소 집중도 분석 결과(2-mode)

구분			연결정도 집중도(로컬)	근접 집중도(글로벌)		매개 집중도	
				표준화	싱글모드 표준화	표준화	싱글모드 표준화
활동 장소	1-mode		0.075	0.058		0.006	
	2-mode	Main Node(Actor)	0.070	1.247	1.639	0.005	0.005
		Sub Mode(Event)	0.118	1.513	0.919	0.006	0.006

예술가와 활동기관 및 단체 간의 네트워크 집중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예술가와 활동장소 간의 네트워크 집중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기관 및 단체에 비해 특정장소에 얽매어 있는 풀림 현상 없이 다양한 장소와의 활동 폭이 보다 넓음을 의미한다. 즉, 예술가의 입장에서 기관 및 단체를 매개로 한 활동 교류 기회 보다는 장소를 매개로 한 활동 교류 기회가 낮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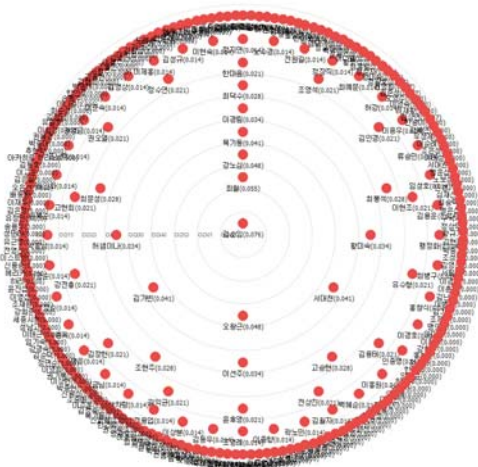
(1) 2-모드(예술인+지역장소) 국지적 중심성 분석(연결정도중심성 : Degree Centrality)
 활동장소와의 교류 측면에서 중심성이 가장 높은 지역 예술인과 활동장소는 각각 다음과 같다.

〈부록 표 2-11〉 2-모드 국지적 중심성이 높은 지역예술인(연결정도중심성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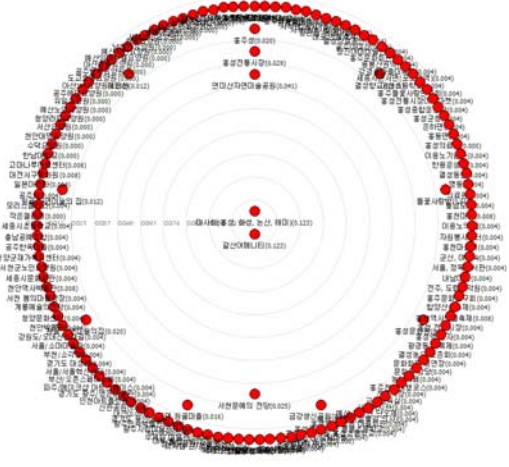
순위	예술인	2-mode 연결정도중심성	활동장소	2-mode 연결정도중심성
1	김00	0.075862	마사회(홍성, 화성, 논산, 해미)	0.122951
2	최0	0.055172	갈산어메니티	0.122951
3	강00	0.048276	연미산자연미술공원	0.040984
4	오00	0.048276	홍성전통시장	0.028689
5	목00	0.041379	서천문예의 전당	0.024590
6	서00	0.041379	홍주성	0.020492
7	김00	0.041379	원골 자연미술의집	0.020492
8	이00	0.034483	결성향교	0.016393
9	황00	0.034483	금강쌍신공원	0.016393
10	이00	0.034483	신평면 원골마을	0.016393
10	허샘00	0.034483		

주 : 2-모드 연결정도중심성 지수가 높은 상위 10인 만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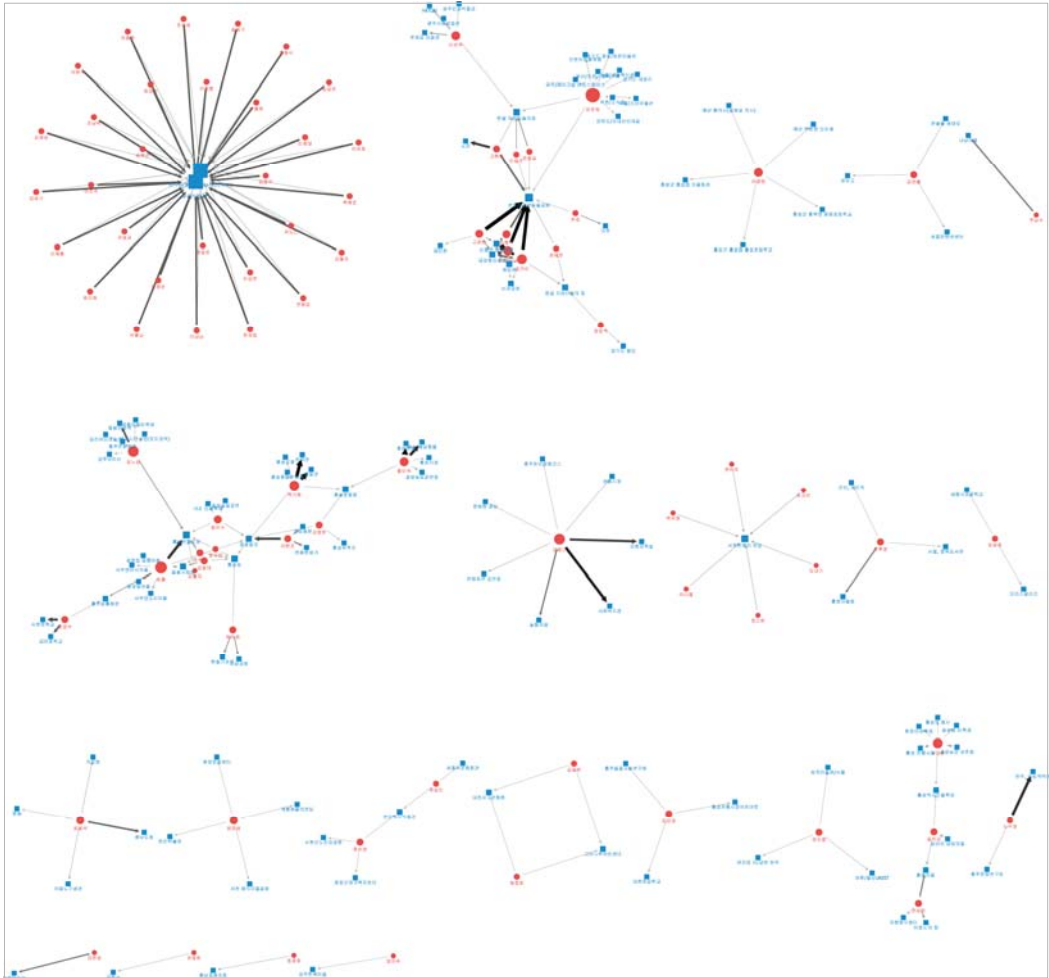
다음의 동심원 도표(concentric graph)는 장소와 교류 경험이 있는 지역예술인과 지역장소의 국지적 중심성 지수 크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표기한 것이다.



〈부록 그림 2-18〉 지역장소와 교류 관계가 있는 예술가의 국지적 중심성 분포도



〈부록 그림 2-19〉 예술가와 교류 관계가 있는 지역장소의 국지적 중심성 분포도



〈부록 그림 2-20〉 국지적 중심성(연결정도중심성) 관계망 그래프(예술인+지역장소)

설문응답 예술인들이 활동한 지역장소간의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특정 단체의 예술인들이 특정 활동 장소에 집중된 형태(좌측 최상단)를 제외하고,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관계 구조는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장소중심 내지 장소를 매개로 한 예술가들의 협업 네트워크는 협력예술인이나 협력기관 및 단체를 중심으로 한 협업 네트워크 구조에 비해 네트워킹 결집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추해 볼 때, 충남의 문화예술인 네트워크 관계도는 기관 및 단체, 또는 활동장소를 매개로한 협력문화 확산보다는 개인의 사적 네트워크(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예술인)에 의존한 협업문화 확대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인들의 클러스터화 내지 협업활동에 대한 확산문화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공적 네트워크망의 강화 노력이 요구되는데, 예를 들면 예술기관 및 단체의 연대화 전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협력 기관 및 단체를 매개로 하여 예술가들 간의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를 도모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2) 2-모드(예술인+지역장소) 전역적 중심성 분석(근접중심성 : Closeness Centr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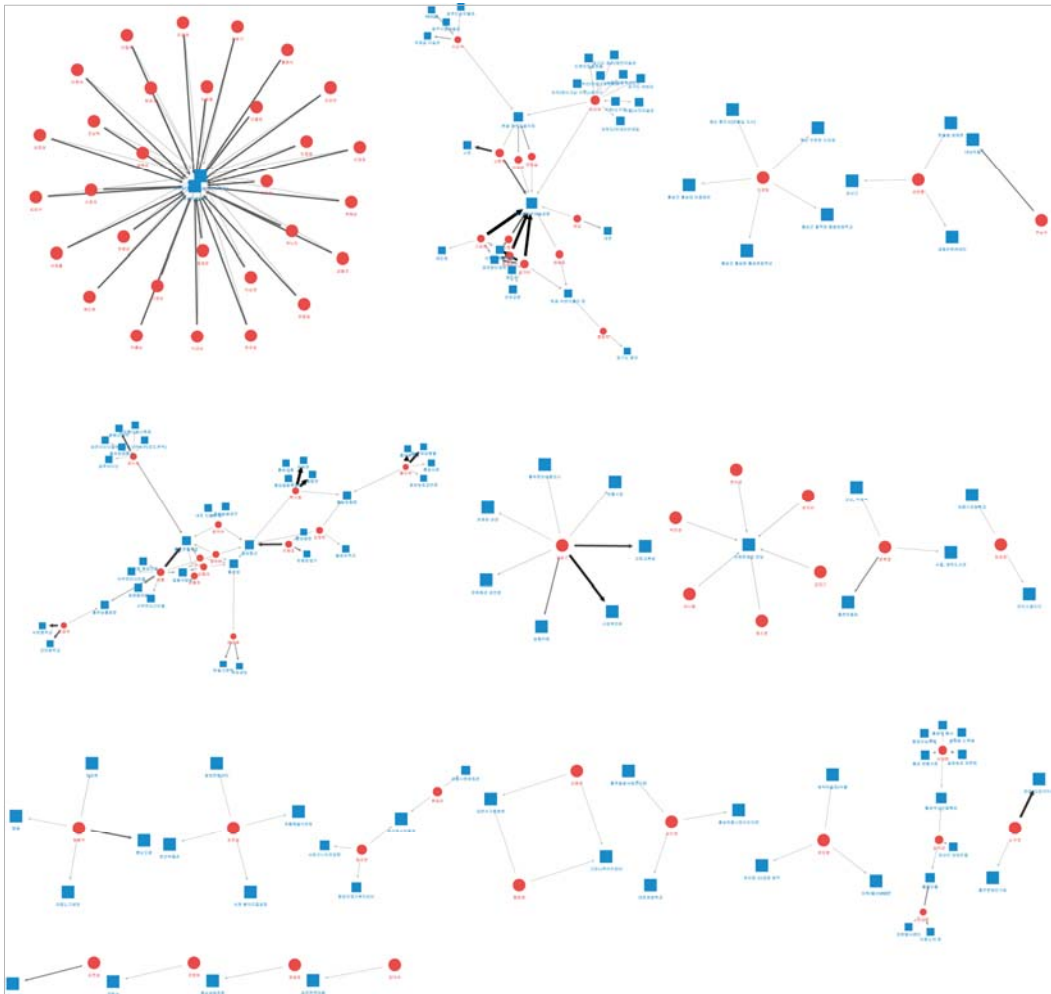
앞서 예술인과 협력기관 및 단체와의 2모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독립된 스타형이나 1자형의 1대 1 매칭 네트워크 구조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상대적 근접중심성이 이론적 최대치인 1이 다수 산출되었다.

이들을 제외하고, 상대적 전역중심성이 높은 예술인 및 지역장소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부록 표 2-12〉 2-모드 전역적 중심성이 높은 지역예술인 및 지역장소(근접중심성지수)

순위	예술인	2-mode 근접중심성	순위	지역장소	2-mode 근접중심성	
1~54	-	1	1~48	-	1	
55	정수연	0.75	49	연미산자연미술공원	0.805556	
56	김순임	0.605263	50	홍성역사인물축제	0.777778	
57	류승민	0.6	51	서천군노인요양원	0.666667	
58	서대천	0.5		청양군재가복지센터	0.666667	
	길익균	0.5	52	홍천마을	0.636364	
	고현희	0.5	53	원골 자연미술의집	0.630435	
	김가빈	0.5	54	홍성전통시장	0.587786	
59	전원길	0.489362	55	세종시문화회관	0.571429	
	이응우	0.489362	56	결성향교	0.553957	
60	허샘이나	0.469388	57	함양산삼축제	0.538462	
61	고승현	0.46		홍성 전통시장	0.538462	
	최예문	0.46		홍성역 행사	0.538462	
				광경동 미륵제	0.538462	
	조현주	0.46		결성농요 보존회	0.538462	
				담산리 상담마을	0.538462	

주 : 2-모드 근접중심성 지수가 높은 상위 순위 표기



〈부록 그림 2-21〉 전역적 중심성(근접중심성) 관계망 그래프(예술인+지역장소)

상단 중앙 및 중단 좌측의 하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앞서 분석한 연결정도중심성(노드크기)과 근접중심성(노드크기)을 비교해 보면, 국지적 네트워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예술인 및 장소와 전역적 네트워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예술인 및 장소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전역적 차원에서 중심성이 높은 예술인 내지 장소는 상대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3) 2-모드(예술인 + 지역장소) 매개중심성 분석(betweenness Centrality)

지역장소와 교류 경험이 있는 예술인 중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은 지역예술인은 최철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김00, 목00, 강00, 김00 순으로 이들은 소속 네트워크 집단과 타 네트워크 집단을 연계시키는 가교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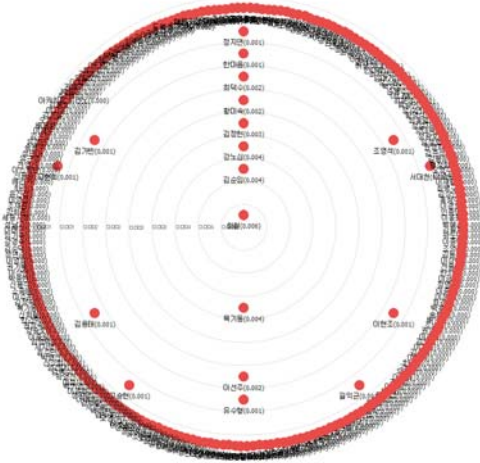
또한, 지역예술인들이 교류하는 지역장소 중에는 홍성전통시장, 연미산자연미술공원, 홍주성, 결성향교 등이 매개중심성이 높은 장소로 분석되었다.

〈부록 표 2-13〉 2-모드 매개중심성이 높은 지역예술인 및 지역장소(매개중심성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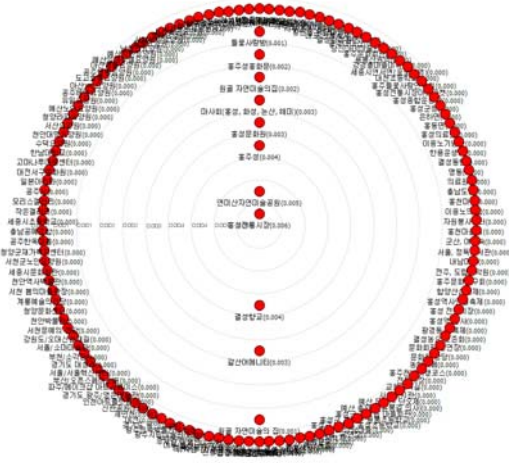
순위	예술인	2-mode 매개중심성	지역장소	매개중심성
1	최0	0.005535	홍성전통시장	0.005850
2	김00	0.004201	연미산자연미술공원	0.004878
3	목00	0.003713	홍주성	0.003971
4	강00	0.003558	결성향교	0.003943
5	김00	0.002810	홍성문화원	0.003372
6	황00	0.002429	마사회(홍성, 화성, 논산, 해미)	0.002903
7	최00	0.001950	갈산어메니티	0.002903
8	이00	0.001858	원골 자연미술의집	0.002302
9	김00	0.001331	홍주성홍화문	0.001681
10	유00	0.001299	원골 자연미술의 집	0.000901
	김00	0.001299		

주 : 2-모드 매개중심성 지수가 높은 상위 10인 만 표기

다음의 동심원 도표(concentric graph)는 지역장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예술인과 지역장소의 매개중심성 지수 크기를 직관적으로 표현한 그래프이다.



〈부록 그림 2-22〉 지역장소와 교류 관계가 있는 예술가의 매개중심성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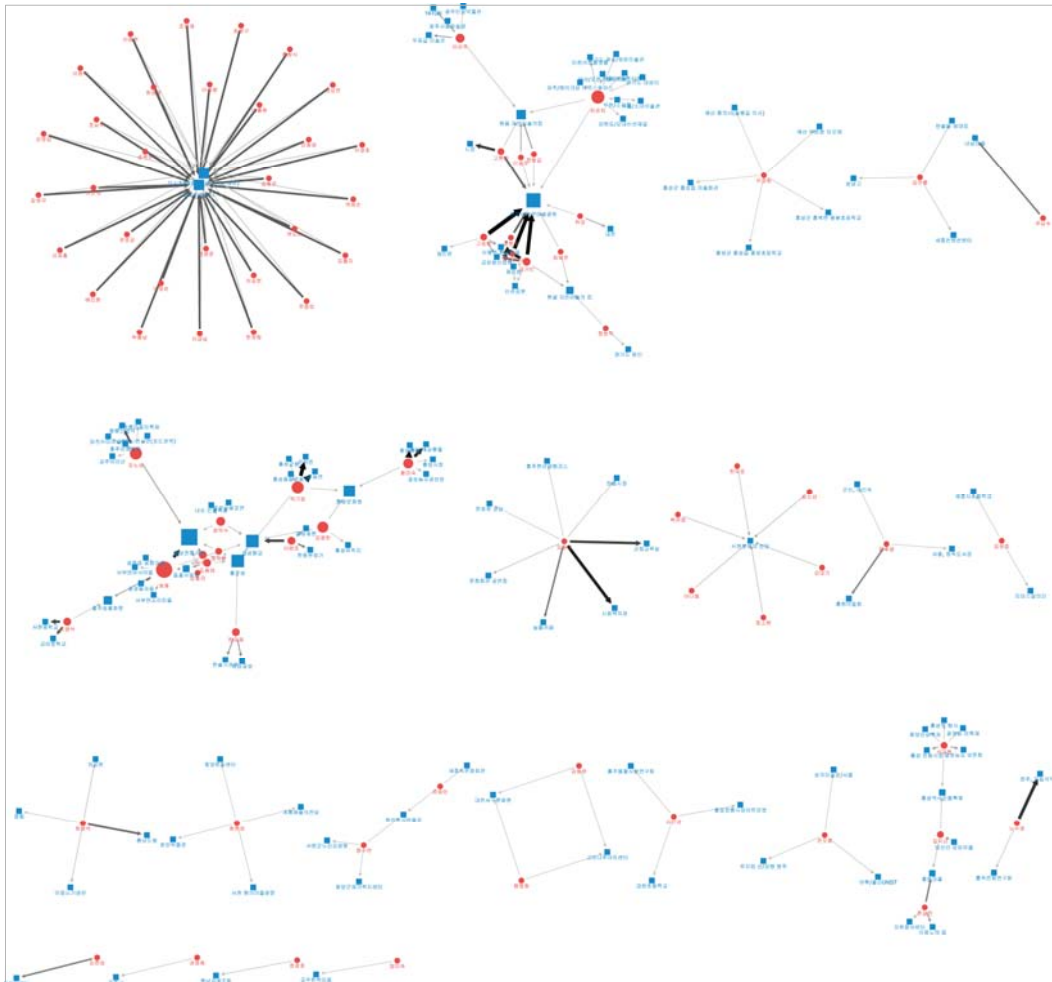


〈부록 그림 2-23〉 예술가와 교류 관계가 있는 지역장소의 매개중심성 분포도

예술인과 지역장소간의 매개중심성 관계망을 살펴보면, 상단 중앙의 소규모 네트워크 집단에서는 예술인의 경우, 김순임, 이선주 등이, 지역장소의 경우에는 연미산자연미술공원, 원골자연미술의 집 등이 중요한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단 좌측의 소규모 네트워크집단에서는 최철, 강노심, 목기동 등이, 지역장소의 경우에는 홍성전통시장, 홍주성, 결성향교, 홍성문화원 등이 중요한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매개중심성이 높은 장소는 다양한 지역장소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각 지역 예술인들이 서로 공유하여 활용하는 빈도가 높은 장소임을 의미하며, 이는 곧 교류 기회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매개 거점 공간으로써의 위상이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부록 그림 2-24〉 매개중심성 관계망 그래프(예술인+지역장소)

2. 분석의 종합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충남 문화예술인의 예술가들 간의 교류관계 및 예술가와 기관 및 단체 간의 교류관계, 그리고 예술가와 지역장소간의 교류관계를 분석해 결과, 대부분의 클러스터들이 동일지역 내 기관 및 단체별로 유사한 예술활동 내지 친분적 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질적인 단체 및 지역과의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융복합적 창작활동에 기반한 새로운 예술 영역의 개척과 실험적 활동을 시도코자 하는 모습은 어려운 네트워크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 여러 개의 소규모 네트워크 집단별로 분절 내지 파편화 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들 소 네트워크 집단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매개 시켜 줄만한 지역 예술인 내지 기관 및 단체, 활동장소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절화 내지 파편화 되어 있는 소규모 네트워크 집단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매개중심성이 높은 지역예술인 및 단체, 그리고 장소 등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역장소보다는 기관 및 단체 중심으로, 기관 및 단체보다는 협업예술인 중심의 네트워크 결속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의 문화예술 네트워크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협업예술인에 대한 인적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역할들에 대한 탐색연구를 통하여, 충남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육성 관리 및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지역예술인은 주로 홍성군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역예술인과 기관 및 단체 간에 가장 고르고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 역시 홍성군 일대로 나타났다.

그 외 일부 공주 및 대전권, 서천권역에서도 네트워크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일부 예술가 내지 기관 및 단체 등에 지나치게 쏠리거나 네트워크 관계가 단절되는 현상은 향후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한편, 장소중심 내지 장소를 매개로 한 예술가들의 협업 네트워크는 협력예술인이나 기관 및 단체를 중심으로 한 협업 네트워크 구조에 비해 네트워크 결집력이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관 및 단체를 매개로 한 활동 교류 기회 보다는 장소를 매개로한 활동 교류 기회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충남의 문화예술인 네트워크 관계도는 기관 및 단체, 또는 활동장소를 매개로한 협력문화 확산보다는 개인의 사적 네트워크망(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예술인)에 의존한 협업문화 확대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인들의 클러스터화 내지 협업문화에 대한 확산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공적 네트워크망의 강화 노력이 필요한데, 예술기관 및 단체의 연대화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곧 협력 기관 및 단체를 매개로 하여 예술가들간의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를 도모해 나가는 전략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협력 기관 및 단체로는 충남문화재단, 문화연구소 길, 홍주문화연구회, 공주대학교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예술인들이 교류하는 지역장소 중에는 홍성전통시장, 연미산자연미술공원, 홍주성, 결성향교 등이 매개중심성이 높은 지역장소로 분석된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장소는 다양한 지역장소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각 지역예술인들이 서로 공유하여 활용하는 빈도가 높은 장소라는 점에서 지역예술인간의 교류 기회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매개 거점 공간으로 조성 및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 집 필 자 ■

연구책임 · 박철휘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 · 조봉운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신선하 충남연구원 연구원

전략연구2016-39 · 충남 문화예술인 클러스터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글쓴이 · 박철휘, 조봉운, 신선하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6년 12월 31일 / 발행 · 2016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142(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259

ISBN · 978-89-6124-383-4 03350

<http://www.cni.re.kr>

© 2016.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